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체육학 석사 학위 논문

학교체육에서 비판적 체육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중등체육 현장에서의 사회정의적, 민주적 교육 실천 탐색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조 윤 섭

학교체육에서 비판적 체육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중등체육 현장에서의 사회정의적, 민주적 교육 실천 탐색 -

지도교수 최 의 창

이 논문을 체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조 윤 섭

조윤섭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이 옥 선 (인)

부 위 원 장 권 순 용 (인)

위 원 최 의 창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비민주적 상황의 원인을 사회의 권력 구조와 연관지어 파악해보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 이론 중 하나인 비판적 페다고지를 실천하기 위해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교육 방안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로는 첫째, 중등학교 체육에서 비민주적 교육은 어떤 모습인가? 둘째, 비민주적 교육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 상황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셋째, 비판적 교육 실천을 위해 중등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을 통한 사회 개선 의식을 파악하고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활용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준거를 설정하여 의도적 표본 추출과 눈덩이 표본 추출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면담과 현지문서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Nviv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범주화 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체육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상황은 체육교과가 가진 이미지로 인한 교과 소외 현상과 기능 중심의 능력주의, 그리고 성별에 의한 불평등이 주된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체육교사들은 이러한 비민주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업 공간의 민주화를 지향하였으며, 과거의 관습을 넘어서는 체육교육의 실천을 통해 체육교육 분야의 민주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사들은 이러한 대응을 통해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이슈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민주성을 함양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체육에서 민주적인 체육수업과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학생요인, 교사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학생 요인에는 학생들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행 경험의 차이, 그리고 학생들 간의 권력 관계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비민주적 상황은 학생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예민함으로 인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요인에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관념으로 인해 민주적 체육수업의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 전문성의 부족이 있었다. 체육교사들의 낮은 민감성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체육수업이 가지고 있는 비민주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기존의 체육수업에 고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비판적 체육수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요인으로는 체육교과에 대한 전통적 인식으로 인한 체육교과의 지위,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문화와 갈등, 혐오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는 민주적 체육수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민주적인 체육수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평등을 지향하는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필요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6가지 핵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은 사회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하였으며,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접근하면서 비판적 체육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성찰 능력이 필요했다.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과 적용 과정에서는 체육교과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체육수업에 적용하는 적극성이 필요했으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과도하게 급진적인 주제 선정을 지양하며 교사 개인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주입하지 않는 중립성이 교사의 중요한 자질로 나타났다.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체육교사가 향후 민주적인 체육수업의 운영을 위해 기존에 행해진 체육수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체육교사들에게 비판적 페다고지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학교체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현재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며,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비판적 페다고지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후속 연구를 통하여 학교체육의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체육교사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 페다고지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시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체육교사 면담 이외에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등의 자료 수집 방식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 방식과 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비판적 페다고지를 적용한 체육수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비판적 페다고지, 사회정의, 중등체육
학 번 : 2020-23483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7

3. 연구문제 ····· 7

4. 용어의 정의 ····· 8

5. 연구의 제한점 ····· 9

Ⅱ. 이론적 배경 ····· 11

1. 비판적 페다고지와 민주시민 교육 ····· 11

가. 사회정의와 교육 ····· 11

1) 갈등과 혐오 ····· 11

2) 불평등과 차별 ····· 14

3) 사회정의와 교육 ····· 16

나. 비판적 페다고지 ····· 17

1) 민주시민 교육 ····· 17

2) 비판적 페다고지 ····· 20

2. 체육교육과 비판적 페다고지 ····· 22

가. 체육교육과 사회정의 ····· 22

1) 갈등 ····· 22

2) 불평등과 차별 ····· 27

나. 체육교육과 페다고지 ····· 33

1) 학교체육에서의 비판적 페다고지 ····· 33

2) 비판적 페다고지와 체육수업 ····· 35

3. 비판적 체육교사의 자질 ····· 38
가. 체육교사의 전문성 ····· 38
나. 체육교사의 인성 ····· 41

Ⅲ. 연구방법 ····· 43

1. 연구의 설계 ····· 43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 43
나. 연구의 절차 ····· 44

2. 연구참여자 ····· 45

3. 자료수집 ····· 48
가. 사전 온라인 개방형 설문 ····· 49
나. 심층 면담 ····· 50
다. 비참여 관찰 ····· 50
라. 현지문서 ····· 50

4. 자료 분석 및 해석 ····· 53

5. 연구의 진실성 ····· 53
가. 구성원 간 검토 ····· 54
나. 동료 간 협의 ····· 54
다. 삼각검증법 ····· 54

6. 연구의 윤리 ····· 55

Ⅳ. 연구결과 및 논의 ····· 56

1. 학교체육에서의 비민주적 상황과 대응 ····· 56
가. 비민주적인 상황들 ····· 57
1) 전통적 교과 이미지로 인한 소외 ····· 57
가) 정체된 체육교사 이미지 ····· 57
나) 전통적 기능중심 체육수업 ····· 59
다) 체육교과의 낮은 지위 ····· 61
2) 체육수업에서의 능력주의 ····· 62
가) 기능 차이에 의한 갈등과 불평등 ····· 62
나) 능력주의에 의한 위계 ····· 65
3) 성별에 의한 불평등과 갈등 ····· 66
가) 전통적 성관념 ····· 67
나) 성별 간 운동기능 차이 ····· 69
다) 역차별 ····· 71

나. 비민주적 상황의 대응 ····· 73
1) 수업에서의 민주적 상황 조성 ····· 73
가) 소외 학생 없는 체육수업 ····· 73
나) 수업에서의 기능 차이 완화 ····· 78
다) 비경쟁적 체육수업 설계 ····· 81
2) 관습을 넘어서는 수업의 실천 ····· 83
가) 수업 내용의 다양화 ····· 83
나) 학습자 중심 수업 ····· 86
다) 양성평등 실천 교육 ····· 88
라)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체육수업 ····· 93

2. 민주적 체육수업과 비판적 체육교육 실천 저해요인 98
가. 학생 요인 ····· 99

1) 불평등 발생 원인 ····· 99
가) 선행 경험의 차이 ····· 100
나) 권력관계 ····· 101
2) 불평등 완화의 장해요인 ····· 102
가) 소극적인 자세 ····· 102
나) 감정적 예민함 ····· 103
나. 교사 요인 ····· 104
1) 민주적 체육수업에 대한 낮은 필요성 ····· 104
가) 체육수업의 고착화 ····· 104
나)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기 ····· 106
2)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 전문성 부족 ····· 107
가) 비판적 체육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 107
나) 비판적 주제 선정의 어려움 ····· 108
다) 비판적 체육수업 실행의 어려움 ····· 110
다. 환경 요인 ····· 112
1) 체육 교과에 가해지는 제약 ····· 112
가) 체육교과에 대한 편협한 인식 ····· 112
나) 신체활동 시간의 부족 ····· 114
2)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한 제약 ····· 115
가) 보수적인 문화 ····· 115
나) 갈등과 혐오 사회 ····· 117

3.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의 자질 ····· 118
가. 민주적 체육수업을 실행하는 체육교사 ····· 119
1) 평등을 지향하는 체육수업 운영자 ····· 120
가) 학생들의 감정 이해자 ····· 120
나) 공감과 이해 ····· 122
2) 교육과정 실행자로서의 자질 ····· 124

나.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전문성 ····· 127
1) 비판적 체육교육의 관심 ····· 129
가) 사회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 ····· 129
나) 개방성 ····· 130
2) 비판적 체육교육의 의미 내재화 ····· 131
가) 학습과 반성적 성찰 ····· 131
나) 비판적 체육교육의 가치 이해 ····· 133
3) 비판적 체육교육 실천 ····· 135
가) 적극성 ····· 135
나) 중립성 ····· 136
다.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 인성 ····· 139

4. 종합 논의 ····· 141
가. 비민주적 상황의 원인과 대응 ····· 141
나.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 ····· 142

Ⅴ. 결론 및 제언 ····· 146

1. 결론 ····· 146
2. 제언 ····· 148
가. 현장 실천 ····· 148
나. 후속 연구 ····· 149

참고문헌 ····· 151
Abstract ····· 162

표 목 차

[표 1] 민주시민교육 목표 및 내용기준 ····· 4
[표 2] 혐오 표현의 유형 ····· 13
[표 3] 갈등 해결을 위한 TSP 모형 ····· 25
[표 4] 스포츠교육모형의 운영 방식 ····· 26
[표 5] TPSR 모형과 사회정의를 위한 TPSR 모형 ····· 37
[표 6] 연구 수행 절차 ····· 45
[표 7] 연구 참여 교사 정보 ····· 47
[표 8] 사전 온라인 개방형 설문 내용 ····· 49
[표 9] 심층 면담 질문 내용 ····· 51
[표 10] PAPS(학생건강체력 평가 기준표) ····· 70
[표 11] 2022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 125
[표 12] 사회정의 지향 체육교육의 활용 주제 ····· 138

그 림 목 차

[그림 1] 사회정의의 나무 ····· 17
[그림 2] 다양성-통일성, 비판성-무비판성 분석틀 ····· 18
[그림 3] 다문화 학생 현황 ····· 31
[그림 4] 사회정의를 위한 TPSR 모형 ····· 36
[그림 5] 체육교사교육의 접근이론 변화 ····· 39
[그림 6] Nine pedagogies for social justice ····· 40
[그림 7] 학교체육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상황 ····· 72
[그림 8] 소외 학생들이 경험한 체육수업 의미의 본질 ····· 74
[그림 9] 주제발표 수업자료 ····· 84
[그림 10] 보스턴 마라톤에서의 캐서린 스위처 ····· 92
[그림 11] 패럴림픽 활용 수업자료 및 포스터 ····· 94
[그림 12] 홍사랑 교사의 골볼 수업 실천사례 ····· 96
[그림 13] 황존중 교사의 보치아 종목 활용사례 ····· 97
[그림 14] 체육교육의 비민주적인 상황과 대처방안 ····· 98
[그림 15] 시민적 프락시스의 개념 ····· 128
[그림 16]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정의 주제의 실천 구분 ····· 137
[그림 17] 민주적 체육수업과 비판적 체육교육 실천 자질 139
[그림 18] 종합 정리 ····· 145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벌써 교직 10년차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지금의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 호감, 미움, 증오와 같은 감정들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그러한 형태의 교류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쿨하고 멋진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불쑥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표현을 보면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불특정 다수를 향하는 변덕스러운 감정들이 단순히 감정 표현에서 멈출 수 있을까? 혹시 더 큰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
> 다른 한편으로 아이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어쩌면 이미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의 갈등과 불평등이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투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자조 섞인 반성도 하게 된다. 혹시 아이들과 사회 속 갈등과 불평등에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며 고민해보고 행동해본다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
> (2022년 5월 조 교사의 일기)

체육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체육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지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떠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교과의 본질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며, 체육교과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명료

하게 내리는 것을 매우 어렵다. 교육이라는 행위도, 그리고 체육교과의 존재 자체도 '사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사회의 흐름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체육교과의 존재 가치가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에 온전히 매몰되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간 체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더 나은 인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것으로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교육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도록 변화해가고 있을까? COVID-19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전쟁 발발, 난민 문제로 인한 유럽 내 극우 정당의 득세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들(Davis, 2019; 송지원, 2018; 정병기, 2017)은 우리가 평소 마주하는 갈등과 차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이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의 일상화는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보다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에 집착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낳게 되었다.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를 증폭시킨 요인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이다(Tinning et al, 2020). 커뮤니티에 기반한 대화 및 상호 작용, 콘텐츠 공유 및 협업에 활용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집합체인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며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채널로 여겨졌고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과 같이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기에는 갈등, 혐오와 같은 부정적 표현을 빠르게 전달하는 창구가 되기도 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COVID-19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국가들로 전파되기 시작된 2020년 초, 동양인 전체에 대한 비하와 혐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양 사회에 부지불식간에 전파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효과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무분별한 정보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올바른 가치판단에 대한 교육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게 만들었고(Suzuki, Asaga, Sourander, Hoven, & Mandell, 2011), 이러한 교육적 요구

는 교사들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육의 방향을 어디로,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개인마다 매우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또한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성인에게도 쉬운 과제가 아니며, 시대나 상황에 따라 그 기준도 변하기에 기성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때문에 사회 속에서의 정의를 판단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Westheimer et al, 2004; Tinning, 2002; Tinnig, 2020; Giroux, 1983; 최의창, 1992; 정현우, 2015; 김동식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를 민주시민 교육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민주시민에 대한 정의와 그 자질에 대한 탐색은 연구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Westheimer와 Kahne(2004)는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속 문제를 개선하고자 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민주시민의 자질로 보았다. 또한 White(1997)는 민주 시민의 자질로 사회 참여 능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 양성하고자 교육과정 상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2009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하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부, 2009)

<표 1> 민주시민교육 목표 및 내용기준

◆ 민주시민교육의 시민 가치를 교육 목표에 반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기르고 진로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방향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졌으며, <표 1>에 나타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방향으로 여겨져 모든 학교급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시민 가치를 교육 목표에 반영하며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교육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체육교육에서의 불평등, 갈등, 무차별적 소비와 같은 행태는 학교 체육교육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체육수업에서는 사회정의의 이해와 민주시민 교육을 적용하는 것을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로 언론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엘리트 스포츠계에서의 4대 악(입시비리, 폭행, 조직 사유화, 승부조작)문제 역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육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과이며, 동시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팀워크, 페어플레이, 배려와 존중 등 사회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서광호, 2010)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기를 기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 간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그 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양적으로 큰 발전을 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최의창, 2018). 하지만 그에 비해 체육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최의창,

2009). 실천적 노력은 이론적 배경의 테두리 안에서 고민되고 실행되어야 하는데(Felshin, 1972), 그러한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정책들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결국 체육수업을 통한 인성 함양이라는 목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체활동 시간(체육수업 및 수업 시간 외 스포츠클럽 등)증가와 같은 단순한 양적 증대 정책은 학교 현장 시설 및 제도의 개선, 그리고 지도교사의 역량 함양과 같은 선행 조건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우며(박태인 등, 2017; 권민정, 2012),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교육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의창(2009)이 제안한 전인지향적 체육교육론으로서의 인문적 체육교육은 기존의 과학적 체육교육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이다. 체육을 크게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과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의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을 때(Williams, 1930), 전자는 과학적 체육교육론의 관점에서 지향하는 목표이며, 후자는 인문적 체육교육론의 관점에서 지향하는 목적지로 볼 수 있다. 신체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민주시민의 양성은 “신체를 통한 교육”의 관점에 더 부합하는 바, 인문적 체육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이 미래 교육의 지향점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인문적 체육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 인간상인 호울 퍼슨(whole person)의 경우, 분명 훌륭한 인간을 양성한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제한된 체육교육을 기회를 통해 체성, 지성, 덕성, 감성, 영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를 가르치는 체육교사에게도 상당한 소양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학생들을 전인으로 양성하는 어려움을 이해함과 동시에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비판적 체육교육은 하나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전인 지향적 체육교육이 ‘완전한 이상향’을 목표로 나아가야 할 체육교육의 방향이라면, 비판적 체육교육은 현실을 개선하고 사회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체육교육에서의 비판적 페다고지 실천을 통한 시민성 함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국내에서 현재 사회와

학교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논의를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낯설고 거칠게 느껴지는 개념인 비판적 페다고지를 체육교육에 적용하여 민주 시민성 함양을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나 (김동식 등, 2018; 장용규 등, 2016; 박선영 등, 2016), 예비체육교사 교육에서의 비판적 전문성 함양의 의미와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예비체육교사들이 학교체육의 목표와 교육적 측면을 고민하며 사회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하거나(정현우, 2015), 비판적 페다고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체육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최의창, 2004a).

이 연구에서는 체육교육의 비판적 교육 가치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교육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체육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비민주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대처 방안을 확인 하고자 한다. 또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하는 체육 수업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러한 형태의 체육수업을 구현하기 위해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구체화하며 향후 교사 교육의 방법에의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해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체육교육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상황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탐색해보고 학교 현장에서 비판적 페다고지를 실현하기 위해 체육교육에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알아본다. 또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비판적 교육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사회정의적 교육, 민주시민 교육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학교 체육 현장에서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원인과 체육교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비민주적 상황의 원인을 사회의 권력 구조와 연관지어 파악해보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 이론 중 하나인 비판적 페다고지를 실현하기 위해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교육 방안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문제

첫째, 중등체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교육 상황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체육에서 민주적인 체육수업과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비판적 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한 중등체육교사의 자질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 비판적 페다고지

비판적 페다고지는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소외되게 만드는 가치와 담론, 이데올로기 등을 드러내고, 이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해방적 자기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정현우, 2015). 비판적 교육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을 드러내고, 비가시적 지배의 매커니즘을 찾아내어 해방시키는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학교교육과 체육교육의 기본적 가정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체육교과 교육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Apple, 1979).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시적 관점에서는 학교 교육에서의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며,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속에서 기존에 자리잡은 담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이란 한 명의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고 미래 사회에서 인류와 세계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주시민 교육은 이러한 민주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학생들이 한 명의 사회 구성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민주시민성, 혹은 민주성의 개념은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역량을 토대로 이해하고 연구에 적용하였다.

○ 사회정의

사회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갈등의 문제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성차별, 능력주의로 인한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막는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성(gender)평등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의 개선, 그리고 인종, 민족, 종교에 따른 차별 완화 등과 같은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많은 사상가들은 다양한 사회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정성이라고(박효민, 2022) 주장하는 것을 통해 바라보면 사회정의의 지향점은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체육교육 현장에서 다소 낯선 개념으로 여겨지는 비판적 페다고지 실현 가능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현재 교육 현장에서 비판적 페다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체육교사들 역시 비판적 페다고지에 대한 직접적인 실천 의도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실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준거에서 체육교과의 역할과 지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 페다고지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비판적 페다고지의 실천 과정을 임의로 판단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개인과 지역, 그리고 연령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자의 시각과 판단을 통해 체육교사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연구 과정에 활용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준거로 활용하지 않는 활동 지역, 교육 경력과 같은 변인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는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면담과 설문 및 참여 관찰을 주된 자료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상황에 따라 비참여 관찰 및 참여 관찰의 기법도 함께 활용하지만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일괄적인 방식의 기법을 활용할 수 없기에 참여자별로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학교 체육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비판적 교육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상황이 발생하는 형태, 그리고 그 원인과 대응 방식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비판적 페다고지를 실현하는 체육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있다.

1. 비판적 페다고지와 민주시민교육

가. 사회정의와 교육

1) 갈등과 혐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삶의 양식이 공존을 지향하는 다양성 사회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은 날로 예민해져 가고 있다(박승억, 2019). COVID-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러시아 전쟁 발발과 같은 급진적인 갈등 사회로의 변화는 우리가 평소 느끼는 갈등과 차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감정이 일상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치열한 갈등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점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화된 갈등은 사회 속의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영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Ipsos(2021)에서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1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부문별 갈등 인식 지수 설문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정

치갈등, 남녀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종교갈등, 학력갈등 등 12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갈등 수치를 나타냈다. 대한민국이 갈등지수가 낮은 항목으로 나타난 항목은 인종, 이민자에 의한 갈등으로, 현재 우리의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영역들 뿐이었으며 그 외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노동계급, 사회계급, 지역갈등 역시 모두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 현상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염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대처 방안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대원칙이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에 이웃과 소통하고 연대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격리와 통제를 우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타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며 배척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정철희, 2021).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혐오 정서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시켰는데, 과거에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던 혐오 정서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병폐를 낳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혐오 정서는 이기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현된 개념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 이외의 대상을 매우 싫어하고 꺼리는 감정을 말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혐오는 단순한 하나의 정서적 감정의 영역을 넘어 사회의 소수자를 배제하게 되는 감성적 기제로 작용한다(강서희, 2020). 혐오 정서는 통상 갈등 관계의 형성 단계를 거친 후 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유 없는 무분별한 혐오 표현의 사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집단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달리 말해 타인이나 타 집단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생길 구체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갈등이 또 다른 혐오를 낳고, 다시 혐오 감정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혐오 현상이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사회적 갈등이 사회적 비용 유발의 단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을

표 2. 혐오 표현의 유형(김병연, 2022)

유형	내용
차별적 괴롭힘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 표시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내용의 표현행위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공개적으로 소수자(개인/집단)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행위
증오 선동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증오 고취 행위

정도로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박승억, 2022). <표 2>에서 나타나듯이 혐오 표현은 그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집단화 될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혐오 정서의 표현은 교육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교우관계에 예민한 사춘기 시절부터 사용하는 무분별한 혐오 표현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조장·심화 시키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박승억(2021)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의 이면에는 가치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치관의 대립이 혐오로 확장하게 되는 까닭은 가치관의 대립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착한 사람'이 존중받는 문화적 혁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서희(2020)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사교육을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혐오 정서 자체는 인간의 본능적 반응으로 볼 수 있기에, 이 정서가 외부로 표출되는 혐오 발화와 혐오 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혐오를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은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혐오 현상을 설명하는데 핵심적 부분이며, 학습자들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혐오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함을 주장했다.

연구자는 혐오정서에 대한 서사교육을 위해 구체적인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첫째, 일련의 서사를 혐오의 정서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야 하며, 둘째, 서사를 통해 사회적 정서로서 혐오의 특성을 이해하고, 셋째, 자신의 혐오 정서를 반성하고 검토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 불평등과 차별

앞 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혐오표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회를 균열시키는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갈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갈등이 발생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원적이기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그 원인을 단순화하여 표현하면 불평등이라는 일상적인 단어로 귀결시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적 자원의 취득을 위한 이해관계로 인한 충돌, 개인 간의 감정적 문제로 인한 다툼, 집단 간의 정치적 권력 다툼 모두 그 원인을 불평등으로 돌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회·경제적 손실이나 박탈, 혹은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집단의 이익 취득이 필연적으로 갈등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불가피하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더라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는 다투지 않으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 동등한 이득을 얻은 사람들 간에는 더욱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갈등의 원인은 손실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성의 문제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는 과거 어느 사회나 중요한 사회 문제였으며, 많은 사상가들이 사회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공정성의 가치 추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박효민, 2022) 많은 갈등이 불평등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왜 이러한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고 더욱 심화되는 것일까? 많은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능력주의에서 찾고 있다(박효민, 2022; 임정재 등, 2022; 박권일, 2020; 이현, 2021; 이상록, 2022).

박효민(2022)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조차 실제로는 기회와 과정이 공평하게 부여되지 못하며, 때로는 기회와 과정이 비교적 공정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된다(McNamee, 2018; 마코비츠, 2020)고 설명했다. 또한 기회균등과 과정의 공정함이 필연적으로 분배 공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능력주의의 불완전성 문제, 두 번째가 능력주의 원리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완벽한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함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향과 같은 것이기에 그러한 세상이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함을 설명했다.

이러한 능력주의와 불평등은 지배집단의 의도에 의해 유지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근모(2010)는 칼 마르크스, 막스베버, 게오르그 짐멜, 랄프 다렌도프의 갈등이론들의 특징을 설명하며,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통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도출해냈다. 그 중 첫 번째는 사회는 구성원들이 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 사회 문화적 명성과 같은 희소 자원을 보다 많이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장이며, 둘째, 사회의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장하도록 제도나 규칙을 정비, 제정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보다는 지배 집단의 강압에 의하여 사회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국가는 국민의 일반 의지를 대변하기 보다는 지배계급에 의하여 통제되고 조종되는 억압 기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의지가 아닌, 지배집단에 의해 유지되는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공정한' 결과의 수용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정성의 원칙이 능력주의라고 나타나고 있으며(한국리서치, 2018; 김미영, 2009), 이는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에 나타나는 불평등은 어떠한 형태

를 보일까? 우리나라와 같이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러야 하는 환경 속에서 능력주의는 이른 학령기부터 불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성적 지상주의는 평등의 가치보다 서열화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학습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사회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의 물질 환원주의적인 사고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방대한 정보로의 접근이 용이해진 현재 사회에서는 그러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포용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교육이 아닌,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3) 사회정의와 교육

사회에서의 평등을 통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정당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 '공정할 수 없게 성장한 나무'에서 누군가는 큰 노력 없이 사과를 얻는 동안 누군가는 사과를 얻을 시도 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불공정(Inequality)이며, 과일을 딸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높이의 사다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공정(Equality)'으로 볼 수 있다. '공평(Equity)'은 사과가 어디에 열리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나무에 손이 닿을 수만 있을 정도로 맞춰진 사다리를 준비해서 주는 것이라면, 사과가 어디든 잘 열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성장하는 나무'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Justice)'이다. 우리사회에서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능력주의라는 비뚤어진 나무를 바로 세움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달려있으며, 이는 교육에서의 불평등 감소까지도 직접적인 연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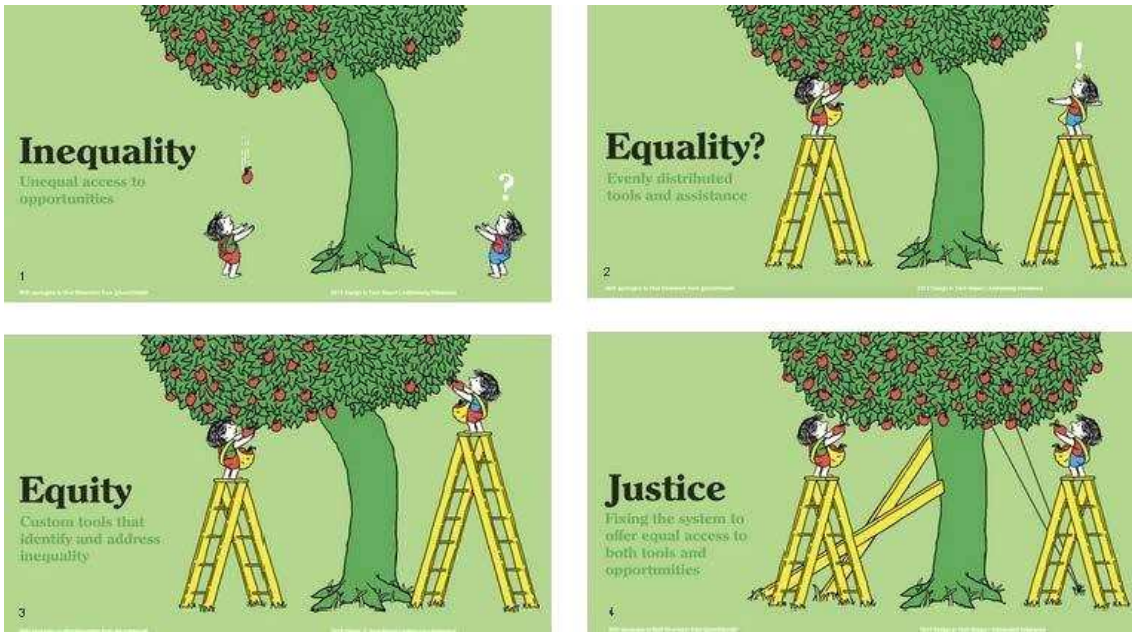


그림 1. Tony Ruth's Equity Series (2019)

나. 비판적 페다고지

1) 민주시민 교육

학교는 국가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 시민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이며 개개인이 시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습해볼 수 있는 공적인 장소이다(장수빈 등, 2018).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과와 관련된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며,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성의 필요에 대해 배우기도 하며,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한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비로소 한 명의 사회 구성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Silberman, 1971), 이를 시민

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의 민주시민성 교육은 이러한 복잡하고 다원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교육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수빈과 한동숙(2018)은 다양성-통일성 비판성-무비판성 분석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난 다양성-통일성, 비판적-무비판적 분석틀은 민주 시민 교육역량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분야의 연구물과 사회과 교과교육 분야의 연구물의 중첩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비판성과 다양성의 두 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시민교육 관련 개념 틀이다(Miller-Lane, J., Howard, T., & Halagao, P. , 2007). 비판성-무비판성의 연속 범위를 나타내는 x축은 현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기술하고 이해하는 무비판적인 접근에서부터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적 조건에서 현재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누가 서술했는지를 따져 묻는 비판적인 접근까지 교육과정의 의도성을 연속선상에 나타낸다. y축은 시민교육에서 국민으로서의 공통적 정체성을 더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회적 집단 간의 정치적 권리의 불평등 해결을 더 강조할 것인가를 구분한다(Parker,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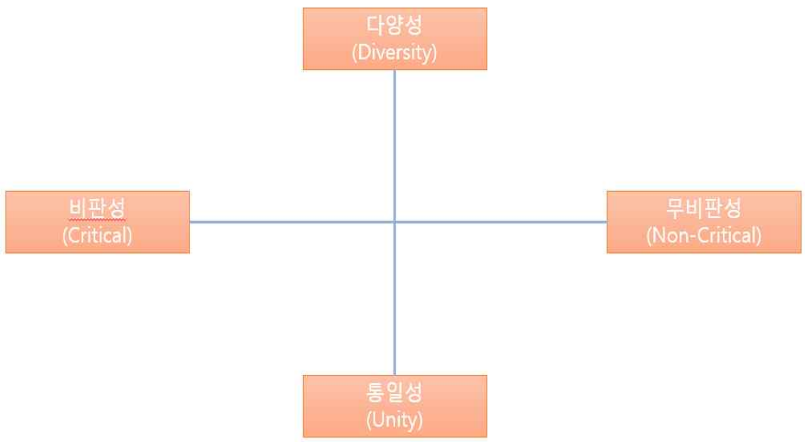


그림 2. 다양성-통일성, 비판성-무비판성 분석틀
(Miller-Lane, J., Howard, T., & Halagao, P. , 2007)

위에서 설명하는 비판성 다양성 분석 틀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시민 교육은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를 개선 시키고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시스템에 적응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형태의 민주시민 교육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지향하는 다원화된 사회의 민주 시민교육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다원화된 민주주의 시대에 요청되는 시민교육은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개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역량이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일차원적인 시민성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지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 또한 중요하게 여겨진다. 달리 말해 시민 교육은 민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치적 자질 또한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추정훈, 2002). 이러한 교육을 통해 비로소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학생들이 깨닫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인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대해 수용하는 것이 사회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길임을 이해해야 한다(OECD, 2018). 장수빈과 한동숙(2018)은 기존의 사회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종, 계층, 성별 등을 재해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했으며, 시민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갈등을 수반하는 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보다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은 다양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와 더불어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갈등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비판적 시각과 사고력 두루 갖추고 함양하는 것에 있다.

2) 비판적 페다고지

교육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가치 중립적이라 볼 수 없으며, 때로는 기존 사회 질서가 반영된 교육이 사회 구조에 내재하는 불공정성 유지에 기여하기도 한다(Apple, 1992; Kozol, 2005; 권오남 등, 2013). 교육이 반드시 사회를 평화롭고 평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은 오래된 오해 중 하나이다. 교육이 사회정의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통제적 헤게모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과정이 동반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비판적 페다고지는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이 동반되어야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비판적 페다고지는 다소 낯선 개념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통해 민주성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Tinning(2020)은 비판적 교육학의 뿌리를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학자들의 비판 이론과 저술로부터 나온 것이며(Giroux, 2009), 다른 하나는 파울로 프레이리(1972)의 이론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적 이론은 권력과 지식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억압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며 나타난 이론이다. 특히 이 이론은 나치 독일의 테러에 대한 프랑크푸르트 학파 학자들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프레이리의 라틴 아메리카 해방 운동에 정치적인 기원을 두고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 이론이다. 기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 비판적 페다고지 개념은 대량 학살이나 식민지 해방 문제와 같은 매우 극단적인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에, 당시와 달리 '표면적 안정'이 갖춰진 현대 사회에서는 비판적 페다고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비판적 페다고지에 대한 담론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서양을 중심으로 비판적 페다고지에 대해 다룬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교육 방식에 다가가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비민주적인 상황을 양산하여 갈등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없다면 비판에 대한 방향 역시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득세를 설명한다(정재원, 2019; 심광현, 2015; 김기운, 2020; 이은아 등, 2017; 박승억, 2022; 유창완 등, 2017; 박정준, 2013).

나병현(2003)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시장의 논리가 교육의 논리를 압도하여 교육을 왜곡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과 더불어, 책임감 있고 도덕적이며 합리적 인간으로서의 성장하게끔 하는 '간접적 통제 기술'에 있는데(박소진, 2009), 이러한 특징이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경쟁과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소민과 김영순(2015)은 개개인이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메커니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에 저항하고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할 수 있는 능력조차 갖출 수 없다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민이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지가 약화되며,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됨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시도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부의 교육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진행된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학교 교육 정책로 인해 학벌, 경제, 사회적 지위에 의한 양극화는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김소영, 2011).

Apple(2014)은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은 사회와 분리될 수 없으며 사

회의 중심적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사람들이 배우는 곳이며, 정체성이 형성되는 현장이며 특정 지식과 문화를 정당화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학교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와 교육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과정, 학교 체제, 교사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 정의라는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체육교육과 비판적 페다고지

가. 체육교육과 사회정의

1) 갈등

체육은 신체활동,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체활동으로 이루어진 '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과이다. 교사는 체육수업의 평등한 제공과 통합적 체육수업을 통해 평생 스포츠로의 입문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가치를 일깨운다(Bailey & Kirk, 2009).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체육교과의 특징으로 인해 학생들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함께 학습하게 된다. 스포츠는 신체활동의 증가, 스포츠맨십 함양, 스포츠 활동을 통한 타인과의 교류 증가와 사회성 발달이라는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도 가져다 주지만(원영신, 1993; 한태룡, 1998; 하지원, 1993) 반대로 다양한 갈등 상황을 마주하며 학습하게 하기도 한다. 특히 결과를 중요시하는 프로 스포츠의 경우 국가주의와 승리 제일주의로 인해 긴장과 갈등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이근모, 2010). 스포츠 선수들의 인기와 소득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프로스포츠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가 체육교육 현장까지도

헤게모니를 쥐게 됨으로써 운동능력의 차이가 체육수업 내에서도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필연적으로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팬으로서 스포츠 경기를 즐기던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과 승리를 과도하게 좇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체육수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 체육수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크게 학생-학생 간의 갈등과 학생-교사 간의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와 교사 사이의 갈등도 종종 발생하지만, 이는 교육의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의 정서적, 감정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논하지 않는다.

① 학생 간 갈등

체육 수업에서 학생 간 갈등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중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실시된 연구가 존재한다(배종희 등, 2012; 권민혁, 2006; 권민혁, 2003a; 윤정노 등, 2005). 학생은 또래 집단을 통하여 활동을 창조하며 타인에 대한 통제를 가하거나 따를 기회를 가지며, 대인관계를 습득하고 자아의식을 발달시키기에(권민혁, 2003b) 동료 간의 갈등 관계에 대한 대처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권민혁(2006)은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발생하는 또래 갈등의 쟁점을 파악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갈등을 종결하는지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갈등의 쟁점은 자원 소유, 게임 선택, 팀 구성, 역할 배정, 규칙 적용, 게임 능력 차, 수업 참여 태도로 구분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처 전략은 강압, 타협, 권위의존, 무시, 순응으로 나타났다.

윤정노와 안양옥(2005)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의 갈등의 쟁점은 권민혁(2006)의 연구와 유사하게 자원 소유, 팀 구성, 규칙 적용, 게임 능력의 차이 등으로 나타났으며, 갈등 해결 전략도 공격, 위협, 무시, 순응, 타협, 중재, 권위의존 등과 같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갈등 해결 전략이 신체

적 공격과 위협이었으며, 여학생들은 신체 공격보다는 언어 공격을 많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전략인 타협 역시 주요한 갈등 해결 전략으로 나타났다.

② 학생-교사 간 갈등

체육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은 종종 발생한다. 이 갈등은 일방적이지 않기에 때로는 학생의 교사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 때로는 교사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이영국, 서경원과 강형원(2022)는 체육전담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의 형태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체육전담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크게 교사 원인 갈등과 학생 원인 갈등으로 범주화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원인으로는 교사 원인 갈등의 경우 체육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문제 학생들의 행동을 보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발생했다. 반대로 학생 원인 갈등의 경우 학생이 체육 교과에 대한 편견이 드러날 때, 소극적 수업 태도를 보일 때, 동료를 괴롭힐 때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발생했다.

허성욱(2017)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사에 대해 교과 지도나 생활 지도에 있어 '권위 있는 교사'이면서도 동시에 학생들을 존중하며 수평적 관계를 맺는 '친구 같은 교사 이미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종 '비합리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교사',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교사'를 만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도전적으로 맞서는 학생들로 인해 교사와의 갈등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육교사의 경우 과거 전통적인 체육교사의 선입견에 의해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원활한 체육수업의 진행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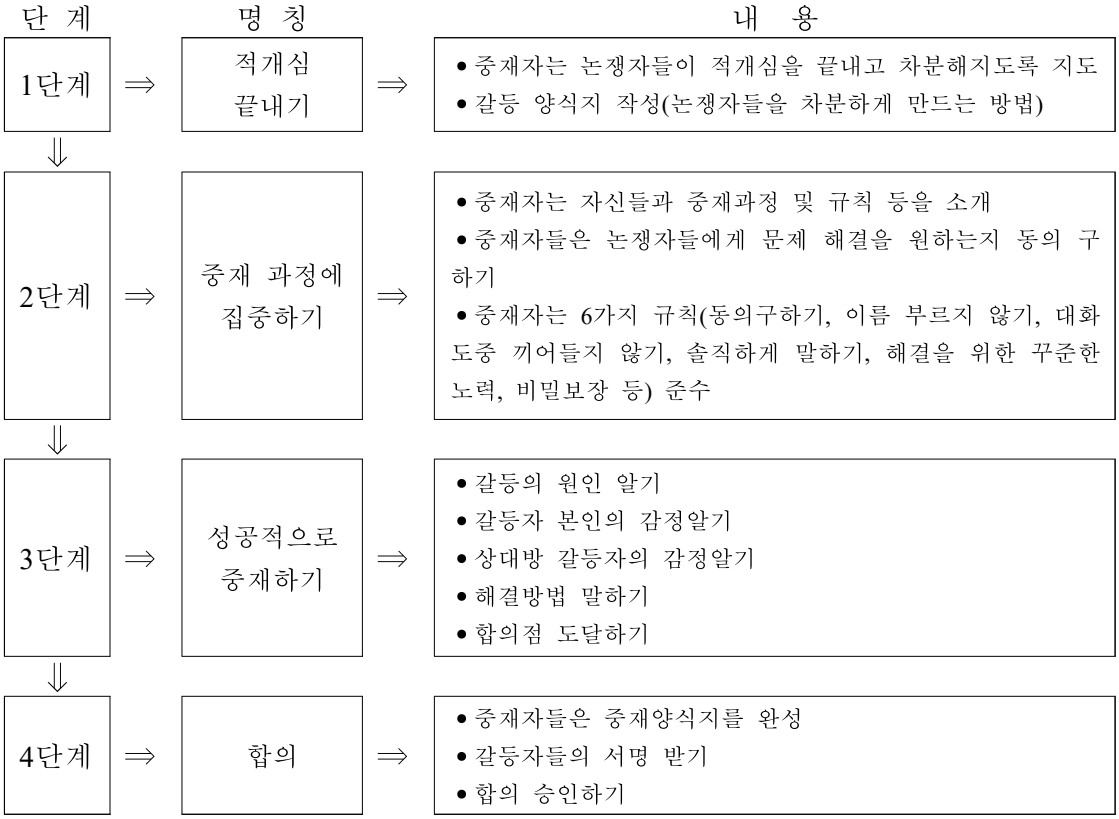


표 3. 갈등해결을 위한 TSP 모형(Johnson & Johnson, 2000)

③ 갈등 해결을 위한 수업모형

배종희와 이안수(2012)는 초등 체육수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과 표출방식을 이해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TSP(Teaching Students to be Peacemakers)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래 <표 3>에 나타나듯이 TSP 프로그램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Johnson & Johnson, 2000). 첫 번째 단계는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두 번째 단계는 타당한 갈등전략 선택하기, 세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하기, 네 번째 단계는 타인의 갈등 중재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TSP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프로그램 적용 이전에는 주로 날카로운 지적과 거친 반응, 소외, 폭력적인 언행 등과 같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형태의 의사소통이 반성적 자세, 양보와 이해 및 절충, 상호 무관심

스포츠교육모형의 운영 방식	
항목	내용
시즌길이	14~20차시
시즌조직	교사가 기본 구조 제공 스포츠위원회가 구체화
모둠정체성활동	모둠소개지, 신문 만들기 등
역할	시즌 1 : 주장/코치, 기록원, 심판 시즌 2 : 스포츠위원, 주장/코치, 기록원, 심판, 홍보원 시즌 3 : 스포츠위원, 주장/코치, 기록원, 심판, 기자 시즌 4 : 스포츠위원, 주장/코치, 심판, 기록원, 장비매니저, 기자
변형게임	기존 스포츠에서 난이도를 쉽게, 규칙을 단순하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시즌 중 여러 번 실시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기록지에 의한 평가, 교사의 관찰에 의한 평가, 모둠수업기록지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과정의 평가가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기도 함.
축제화	축제화된 수업이 이루어지며, 특히 결승전은 학부모를 초청하고 다과회를 준비하는 등의 행사로서 실시됨.

표 4. 장정민, 김진희(2013). 스포츠교육모형의 운영 방식

과 회피 등의 긍정적이거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체육수업에서의 갈등 해소를 지향하는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Ennis 등(1999)은 Sports for Peace 모델이 학습, 신뢰, 존중 및 가족의식에 대한 책임을 향상시킨다고 제안하며 이 모형을 소개했다. Sports for Peace 모형은 <표 4>에 나타난 Sidentop(1994)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스포츠 교육 커리큘럼을 각색한 모형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 폭력, 싸움, 욕설, 신체적 및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Ennis et al., 1997). 이 모형을 실

행하기 전, 교사들에게 청소년의 능력에 더 잘 맞도록 게임과 장비를 수정하고 학생의 성공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했으며, 갈등 협상을 위한 전략, 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경기 중 수행해야 하는 요구 사항, 학생들이 다양한 직위와 책임을 순환하도록 하는 규칙을 교과 과정 구조를 스포츠 시즌 형식에 추가하였다. 가장 차별화된 점은 일정 수준의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코치 및 팀원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협상과 타협을 촉진하고 가르치는 전략을 제공했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Sports for Peace 모형이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시즌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상호 작용과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과정은 팀원들에 대한 존경, 신뢰, 가족 의식으로 이어지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운동기능의 차이로 인한 차별 효과를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타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갈등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는다.

2) 불평등과 차별

① 성(gender)불평등

체육교육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다. 체육수업은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과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에 비해 젠더 불평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규일(2011)은 그 중요한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째로는 남성적 논리가 지배하는 스포츠 종목을 교육 내용의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신체성, 모성애, 섹슈얼리티와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고, 셋째, 남성 성역할 정도가 강한 체육교사가 높은 비율로 존재하기에 남성 친화적 수업 스타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복합적인 이유로 체육수업은 젠더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분석은 학교 체육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단순히 신체적 능력에 의한 차이가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최의창(1996)은 운동 참여와 운동 수행에서 보여지는 남녀 학생 간의 차이가 사회적·역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남자 아이는 아동기 이후의 어떤 '차별적 사회화(differential socialization)'로 인하여 여자 아이들 보다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가지며, 운동과 스포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가 유지되어 학교체육, 더 나아가 사회 체육 분야에서 까지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체육수업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평가 기준이 낮고 남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요구하면 자신들이 교사와 동료 학생으로부터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양성평등이 실천되는 수업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김윤희, 2007).

정호웅, 정현철, 그리고 김대진(2014)은 연구에서 체육수업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양성불평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사의 편향된 성적 고정관념,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남녀가 무조건 공평해야 한다는 남학생들의 그릇된 양성평등 의식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의 그릇된 성 고정관념은 학생이 앞으로 가져야 할 양성평등 의식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형태의 양성평등 실현 방안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운동 능력이 부족한 여학생들은 점차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고, 남학생들은 운동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된다면 결국 남녀 모두가 체육수업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도전적인 태도로 참여하여 동기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

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체육수업에서 상대적 약자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독려하며 신체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는 것에 목적을 둔 비판적 스포츠교육 접근인 Activists approach를 들 수 있다(Oliver & Kirk, 2015, 2017). Activists approach는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론이며,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신체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을 가치롭게 여기도록 교육하는 것에도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최의창, 2021). Lamb, Oliver와 Kirk(2018)은 이 모형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서 여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활동의 제공과 교과활동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이 학습 환경의 개발을 위한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효과와 더불어 수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고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느끼게 하여 수업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성별에 따른 체육교육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향후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나, 성 소수자들에 대한 스포츠 참여 불평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스포츠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명성과 전통을 가진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주최측인 미국 보스턴 육상연맹(BAA)에서 2023년 대회부터 여자, 남자가 아닌 논바이너리(Non-binary·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의 자격으로 22명이 출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스포츠에서 성별 자체에 대한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변화는 향후 성별로 인한 체육교육의 불평등한 참여 문제에 더욱 다양한 이슈를 던질 수 있다.

② 다문화-다인종 차별

우리나라에서 다인종-다문화의 문제는 불과 10여 년 사이에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에 0.7% 비율이던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2021년 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단일 민족 신화에 매몰되어 그동안 단일민족 및 순수혈통을 자랑으로 여겨왔던 우리 사회는 2007년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로부터 단일민족국가 이미지와 인종적 우월성 관념이 한국사회 내에 팽배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다문화에 대해 폐쇄적인 입장이었으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권민혁, 2009).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문화-다인종 이슈에 관해서 무관심하며 둔감한 상태였기에, 다른 문화나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성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우리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며, 간혹 국가의 부름에 의해 우리나라로 귀화한 스포츠 선수라도 외국에서 온 용병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이 특정 지역에서 자신들 만의 커뮤니티를 꾸려가는 상황이기에 아직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 백년 전부터 다문화-다인종 사회를 겪어온 국가들과 차별의 개념과 수준의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연구들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체육교육은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민혁(2009)는 체육이 세계 공용어로서 인종이나 종교, 계층, 연령, 성과 관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전통적으로 사회통합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설명했다. 인간의 본능이라할 수 있는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협동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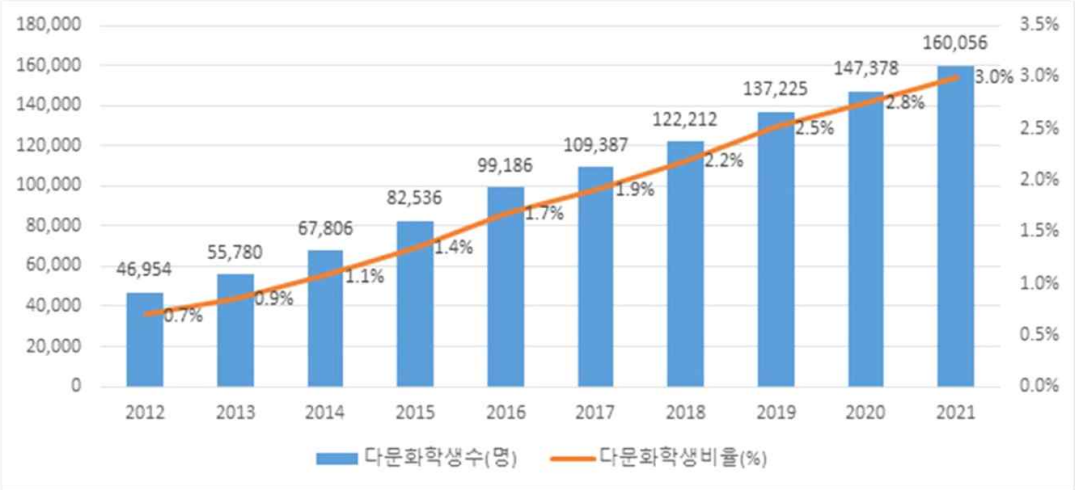


그림 3. 다문화 학생 현황(한국교육개발원)

승 등(2019)은 다문화 가정의 확산 등의 추세로 인해 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교사가 부족하기에 교사양성 과정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다문화에 적합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교사의 양성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외국의 스포츠 경기나 스포츠 이벤트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종차별 반대 행동들은 향후 우리도 겪게 될 다문화 갈등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다. 다문화 사회는 높은 확률로 갈등을 일으킬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통합적인 체육교육을 통해 문화 간의 통합과 평등을 먼저 배울 수 있다면 오히려 신체활동이 갈등을 줄여주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③ 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

신체적·정신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평등은 스포츠에서의 평등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김진훈 등, 2008). 김기운(2020)은 연구에서 스포츠가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경제적 자원의 배분, 권력, 사

회적 계급과 관련된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방법이자, 사회·경제적 서열을 재생산하며 특정 집단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coakley, 2013; Tomlinson, 2007)고 주장했다. 스포츠의 규칙, 체급별로 나눈 스포츠, 연령대별 나눈 스포츠 등은 평등에 원칙에는 벗어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스포츠계는 능력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2016 FIFPRO GLOBAL EMPLOYMENT REPORT'에 따르면, 72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단 2%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운, 2020).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단지 선수들의 뛰어난 플레이가 많은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며 체육수업에서 우수한 신체활동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스포츠를 통해 교육을 실행하는 체육교육 역시 이러한 신체활동 능력, 불평등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체육교육 모형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의창(2021)이 제안한 "하나로수업"(Hanaro Teaching) 모형은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모형은 인문적 체육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제안된 체육수업 모형이며, 신체활동과 더불어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는 통합적 지도를 지향하며 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스포츠를 내용으로 하거나 주제로 한 시, 소설, 영화, 노래, 그림, 조각, 역사, 철학 등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며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의 전통 속에 위치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균형 잡힌 청소년을 양성하는 "전인체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교육 모형이다. 이러한 수업 모형은 체육수업에서 반드시 뛰어난 신체활동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처럼 체육교육에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은 이미 외국의 연구들에서 더욱 다양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Lynch, Walton-Fisette, Jennifer. & Luguetti (2021)는 신체의 미적 기준에 의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종교적 차별, 계급 차별, 식민주의에 의한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체육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다.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축제를 통한 세계 통합과 평화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불평등의 해소에 있어서 체육교육이 가지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Arora & Wolbring(2022)은 스포츠, 운동학, 체육교육 및 신체활동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원주민, 성소수자, 트렌스젠더의 평등 및 다양성의 인정, 포용 문제를 어떻게 연계하여 다루고 있는지에 맞추어 문헌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EDI(Equity/Equality, Diversity, Inclusion)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한 결과 18개의 관련 연구가 존재했으나 대부분이 스포츠와 관련된 연구에서 언급되었으며, 운동학, 체육교육, 신체활동에 관해 다룬 연구에서는 소외 계층에 대한 언급이 매우 낮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조명과 관심을 받는 스포츠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자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체육교육 분야에서는 사회적 평등 이슈에 대해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나. 체육교육과 비판적 페다고지

1) 학교체육에서의 비판적 페다고지

학교에서의 체육교육은 주로 학생의 인성을 함양시키거나, 운동기능과 체력을 향상시키거나, 운동 참여를 통해 삶에 있어서 개인적 의미를 찾도록 돕는 등 주로 ‘개인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교과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온 반면 사회 재구성에 대한 목적의 교육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최의창, 1996). 학생들 역시 체육교과가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최의창,1992). 개인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한 사람의 개인적 발전은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이해되지 않고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들에 관한 이해는 반드시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 간에 맺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Mills, 1959). 체육교과 역시 민주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래야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체육교육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로는 그 교과를 구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교육과정에서 반영되는 기존의 이데올로기가 사회 비판적 교육으로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사회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부터 초래되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위기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이를 당연한 사회적 질서(social order)로 인식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화의 논리를 제시한다(Bauman, 2010; 2013). 이러한 논리의 상당부분은 체육교육까지 그대로 적용되어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 위기조차 정당화하는 기존의 교육체계에서 체육교육은 어떤 것을 가르치도록 강요하고 있을까? 최의창(1996)은 학교체육에서 다루어지는 지식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 번째가 과학적 기능주의, 두 번째가 성차별적 수업 관행, 세 번째가 '경쟁주의'와 '엘리트주의', 네 번째가 '능력주의'로 설명했으며, 운동 기능의 평가를 통한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진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식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체육교육이 기존의 질서와 관행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ain(1990)은 체육교과가 학교에서 중심교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교교육의 능력 제일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공헌하지 못하며, 오히려 '기능주의적 이데올로기(technocratic rationality)'의 경우 학교 체육의 여러 영역에서 강화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물론 최근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따라 체육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의 내용에 다소간의 변화가 나타났

다.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로 10년 이상 체육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인 인성의 함양 역시 '비판적' 사고 보다는 '순응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시민성 개념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조건들을 반복 숙달하는 전통적 시민교육 모델인 '시민성 전수 모델'에 머물러 있다고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Giroux, 1990; 장용규 등, 2015).

학교 현장에서 비판적 체육교육이 실천되지 않는 두 번째 원인은 체육교사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지식전달자이자 학생들의 통제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통한 사회변혁이라는 교육의 목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비판적 페다고지의 개념을 인지하더라도 체육수업에서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통해 사회개선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과도하게 급진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최의창, 2009; 정현우, 2015). 비판적 페다고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Tinning(2002)은 비판적 페다고지를 실천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고, 비판적 페다고지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유토피아적인 집단적 해방을 제거한 'modest pedagogy'라는 명칭의 온건적 비판적 페다고지의 개념을 내놓아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정현우(2015)는 이 이론을 '절충적 교육학'이라고 칭하며 사회 비판적 안목과 더불어 인문적 능력을 지닌 체육교사 양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판적 페다고지의 급진성에 대한 거부 이외에도 체육교사의 비판적 페다고지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부족 등도 비판적 페다고지의 실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 비판적 페다고지와 체육수업

해외의 연구에서는 비판적 페다고지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체육교육 모형들이 소개되었다. 대표적으로 Dylan Scanlon, Kellie Bak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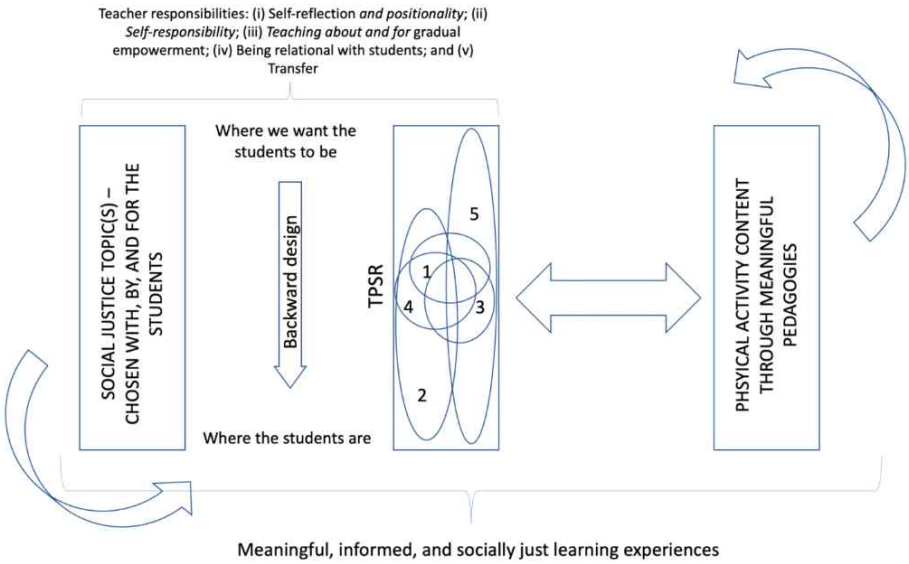


그림 4. Dylan Scanlon, Kellie Baker & Deborah Tannehill(2022) 사회정의를 위한 TPSR 모형

Deborah Tannehill(2022)이 소개한 '사회정의를 위한 TPSR모형(Developing a socially-just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체육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모형은 예비교사 교육과 학교 체육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정의에 대해, 사회정의를 통해,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사회 정의를 위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교사 및 교사 교육자들은 사회정의 콘텐츠와 교수법을 체육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Hellison(1985)이 고안한 TPSR 이론을 재구성하여 실제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TPSR 모형'이 교육자들(교사 교육자,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에게 가능성과 잠재력을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정의를 위한 TPSR 모형'의 구조를 제시한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가장 왼쪽의 사각형에서 사회정의와 관련된 수업 주제를 선택하는데, 그 주제는 교사와의 논의를 학습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이 '사회정의를 위한 TPSR'에서는 기존의 TPSR 모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책임감 단계의 위계를 없애

표 5 Hellison(2011)의 TPSR 모형과 사회정의를 위한 TPSR 모형의 비교

단계	TPSR 모형	사회정의를 위한 TPSR 모형
주제의 선정	교사가 주제를 제시	교사와의 논의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과제 중심으로 주제 선정
책임감 수준의 구분	0단계 : 무책임 1단계 :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 2단계 : 참여와 노력 3단계 : 자기 방향 설정 4단계 : 돌봄과 배려 5단계 : 전이 ○ 학생의 책임 단계 수준에 맞추어 과제 제시 ○ 학생은 낮은 수준의 책임 단계 과제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음	○ 책임 단계는 존재하지만 학생에게 단계를 부여하지 않으며, 장소별로 과제 제시 ○ 학생들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책임감 단계의 과제를 경험 ○ 책임 단계의 부여로 인한 권력 발생을 예방하며, 지도와 학습의 복잡성을 고려
체육 교사의 책임	○ 무엇이 가치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 ○ 교사 자기 책임 (self-responsibility) ○ 점진적 권한부여	○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회정의를 가르치기 위해 사회적 편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성찰 ○ 교사 자기 책임 + 대응 (self-responsibility + response) ○ 점진적 권한 부여를 위한 가르침

도록 했는데, 이를 대신하여 책임감 단계를 구역별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책임감 단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학생들에게 책임감 단계에서의 위계를 부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가시적/비가시적인 권력을 쥐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와 학습 속의 복잡성을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이러한 변형을 통해 비로소 의미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으며, 사회정의를 위한 체육교육 모형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여러

교과들도 사회정의를 지향하기 위해 비판적 페다고지를 적용한 모형을 교과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남영림, 2015; 박주식 등, 2007; 권오남 등, 2013; 추정훈 등, 2002). 하지만 체육교과는 여전히 비판적 페다고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정의 콘텐츠와 교수법을 체육 교육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실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비판적 체육교사의 자질

가. 체육교사의 전문성

최의창(2004b)은 체육교사교육의 대표적인 접근이론으로 1960년대에 주를 이루었던 기능적 접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주된 이론으로 자리 잡은 반성적 접근과 비판적 접근,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후기근대적 접근과 인문적 접근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체육교육에서의 비판적 접근은 1980년 후반부터 Gore(1990), Kirk(1986, 2006)와 Tinning(1991, 2002)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어며, 이는 현재 체육교육 실천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체육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측면을 부각시켰다(정현우, 2015). 그러나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육교사가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니와 비판적 페다고지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그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육교육 현장에서 비판적 페다고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 필요하겠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주체가 체육교사임을 생각했을 때, 체육교사에게도 새로운 전문성들이 요구될 것이다. 그렇다면 비판적 페다고지를 실현하기 위해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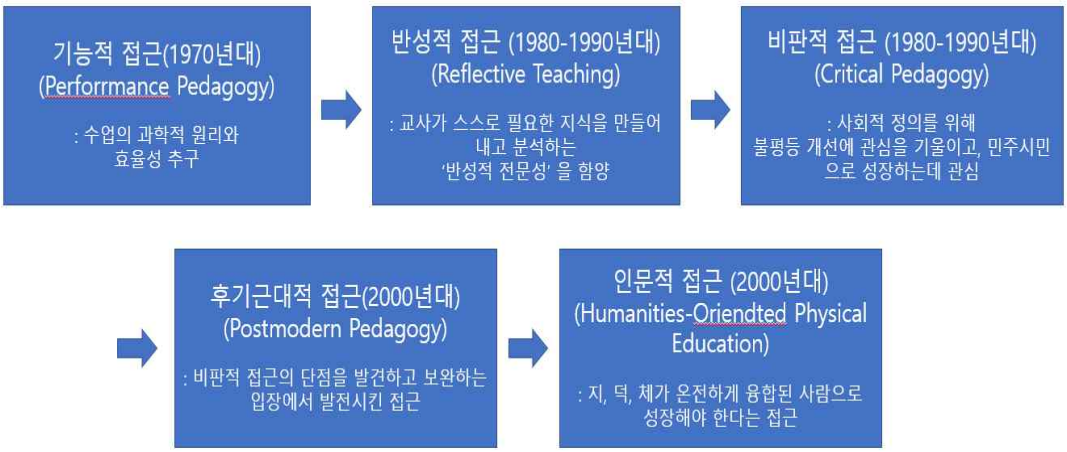


그림 5. 체육교사교육의 접근이론 변화. 최의창(2004b)

정현우(2015)는 비판적 전문성을 지닌 체육교사에 대해 지적인 실천가로서 자신이 하는 일에 탐구적인 자세로 수업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검토하며, 비판하는 능력과 역량을 지닌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는데, 남성 중심적 헤게모니를 벗어나 학교체육에서의 성차별적 구조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며 스포츠과학 중심의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재개념화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체육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안목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했다(Gore, 1990, 1993).

최의창(2004a)은 체육교사가 체육수업과 학교체육의 장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을 파헤치고 이러한 지배의 재생산적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체육교사가 소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교사는 학생들을 행복하고 훌륭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교육활동과 수업활동을 개선시키는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우(2015)는 예비체육교사 전문성에 있어 비판적 접근에 대한 개념의 명료화를 위해 사회적 민감성, 비판적 반성, 비판적사고, 실천성을 비판적 전문성의 핵심요소로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판적 전문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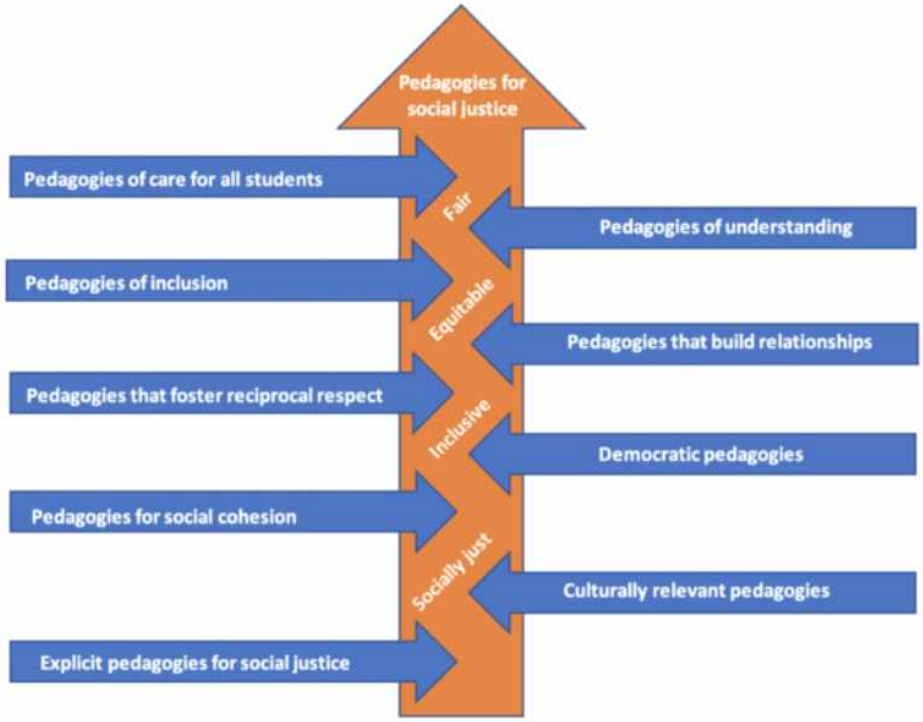


그림 6. Nine pedagogies for social justice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이크로티칭, 토론중심의 수업, 비판적 읽기자료와 비판적 글쓰기, 다양한 교재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탐구중심 예비체육교사교육을 제안했다.

정소민과 김영순(2015)는 교사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 외에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교사 행동과 학교교육이 지닌 정치·문화적 측면, 교직에 대한 비판적 반성,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Giroux, H., 1988)고 주장했으며, 이는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지식의 생산에 참여하는 지성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Gerdin Goran 등(2021)은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학에 참여하는 체육교사들의 교육 관행을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총 9가지 교육

법이 설명되었는데 이러한 교육법들을 통해서 체육교사가 지녀야할 전문적 자질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9가지 교육법은 돌봄의 교육법(pedagogies of care), 이해의 교육법(pedagogies of understanding), 포용의 교육법(pedagogies of inclusion), 관계 수립의 교육법(pedagogies that build relationships), 상호 존중 지향 교육법(pedagogies that foster reciprocal respect), 민주적 교육법(democratic pedagogies), 사회적 결속을 위한 교육법(pedagogies for social cohesion), 문화 연계 교육법(Culturally relevant pedagogies), 사회정의를 위한 명시적 교육법(explicit pedagogies for social justice)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다소 온건한 표현을 통해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교육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만, 이 급진적이며 사회의 불평등을 다루려고 하는 것 보다 선행되는 것으로 결론 내는 것은 좋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급진적인 방식만으로 사회정의 추구하는 것 또한 불평등을 입증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정의를 위해 돌봄과 이해와 협력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행동 자체가 다름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교육은 강경함과 온건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순환적인 개선 방안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

나. 체육교사의 인성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문적인 지식의 차원부터 개인의 인성적 측면까지 매우 광범위한 자질들이 요구되지만, 여러 연구들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교사의 인성적인 측면이다(최순정, 2020). 교사는 외형적인 모습부터 학생을 대하는 태도, 교과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것 모두에 교사의 인성적 자질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인성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인성적 자질의 요구는 전통적인 교수 뿐만 아니라 비판적 페다고지에서 지향하는 민주시민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언급된다. 박승억(2021)은 연구에서 그동안의 시민 교육이 대체로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에 대한 지성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옳은 행동을 할지를 고민하는 인성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그런 인성의 지향점이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착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보편적 인권이 짓밟히는 것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연 설명하며,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생각해왔던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여 설명했다. 현재의 학교에서 지향하는 인성교육이 신자유주의 논리에 오염되어 있으며,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또한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기에(정현우, 박용남, 이기대, 2015),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비판적 페다고지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소양이 될 수 있다. 결국 체육교사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인성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기본 역량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성함양과 맞물려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실시되었다(이지은, 2006; 이대형, 2012; 김선희 등, 2007; 정현우, 2010; 최의창, 2011). 이 연구들은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자질 중 인성적인 측면이 교사의 근본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했다.

이처럼 체육교사는 학교체육이 사회정의로 생각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해야 하며, 학교에서 체육의 역할에 대해 더 통찰력있고 현실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할 필요가 있다. 체육교사는 무엇보다도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성별, 능력, 인종, 문화에 의한 차별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학교 체육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명시하고 다룰 수 있는 시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체육교사가 비판적 페다고지를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기 위한 전문성과 인성을 파악하여 이를 갖추기 위한 교사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가. 연구 패러다임 및 논리

질적연구는 특정 집단이나 인구 집단을 연구할 때, 혹은 쉽게 측정될 수 없는 변수들을 확인하거나 침묵 속에 있는 목소리들을 들으려 할 때 필요하다(Creswell, 2013). 본 연구는 비판적 페다고지라는,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교육적 패러다임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기에, 수업의 진행 과정 속에 존재하는 사회 문제 개선 의식을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및 비판이론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구성주의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내는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많이 던져야 한다. 현재 체육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상황의 특징과 그에 대한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시각을 신뢰한다는 점,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연구를 실행한다. 비판이론(critical theory)관점은 인간에게 주어진 인종, 계급, 젠더와 같은 제약들을 초월하도록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둔다(Fay, 1987). 비판 연구자들이 탐구하는 중심 주제에는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와 삶의 해석을 통한 사회제도의 변혁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구상 등이 포함된다(Fay, 1987; Morrow & Brown, 1994).

질적연구는 크게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사례 연구라는 다섯 가지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Cresswell, 2013). 본 연구는 학교 체육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비판적 페다고지를 실현하는 체육교사의 자질을 탐구하는 것에 있기에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사례연구 방법은 단지 자료수집을 위한 전술이나 연구 설계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의 연구 전략이다(Stoecker, 1991). 특히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이며, 특히 현상과 정황 사이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와 체육교육 간의 관계의 긴밀한 연결관계도 함께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연구의 절차

연구는 중등학교 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민주적 상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비판적 페다고지를 통해 민주 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에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연구 절차는 크게 이론적 계획, 연구 설계, 연구 진행, 결과 정리의 단계로 진행하고자 하며, 자세한 절차는 <표 6>과 같다.

첫째, 이론적 탐구 단계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실행되었다. 다소 포괄적인 개념인 사회정의와 비판적 페다고지에 대해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자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연구 주제의 맥락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본 연구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자 2022년 1학기 체육교수이론특강을 수강하며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비판적 페다고지와 사회정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설계 단계는 2022년 9월과 10월에 진행되었다. 비판적 페다고지, 사회정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며 국내와 해외에서 의 연구 동향과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연구의 목적과 문제를 구체화 하였다. 유목적적 표집법과 눈덩이 굴리기 방식을 통해 지역, 성별,

<표 6> 연구 수행 절차

연구단계 \ 연구일정		2022						2023					
		7	8	9	10	11	12	1	2	3	4	5	6
이론적 탐구	문헌의 이론적 고찰												
	주제설정												
	선행 연구 분석												
연구 설계	목적과 문제 구체화												
	연구 참여자 선정												
	질문개발												
연구 진행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정리	심층적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연령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체육교사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사전 개방형 설문과 심층면담, 참여 관찰 등의 방식을 통해 향후 연구를 진행한다. 면담에 필요한 질문은 지도교수와 동료 연구자로부터 검토의 과정을 거친 후 선정한다.

셋째, 연구 진행 단계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넷째, 결과 정리 단계에서는 연구진행 단계가 끝난 이후부터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학교 체육현장에서 비판적 페다고지를 통한 민주 시민교육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에 있다. 이에 체육수업을 통해 사회정의를 교육하고 불평등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체육교사를 유목적적 추출 방법 및 눈덩이 굴리기 방법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① 학교급에 따른 선정

비판적 페다고지와 민주시민 교육은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단계를 넘어 사회정의를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교육이다. 체육과 교육과정 상에서는 교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단계 모두 민주시민 교육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고등학교급 교사의 비율을 높게 정하였다.

② 교육경력 5년 이상

소위 신규교사로 불리는 초임교사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게 되는 교직경력 5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후에는 성장기 교사로 불리게 된다(김갑성, 2014). 초임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 대한 적응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수업을 통해 사회정의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관점을 내면화하지 못하며, 결국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치게 되거나(서경혜, 2005), 다른 교사의 수업을 모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경혜(2005)는 또한 지금까지의 비판이론은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의 다양성과 교육의 맥락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예비교사들이 비판적 관점을 내면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결국 초임교사가 되어 비판적 페다고지를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원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비판적 관점을 충분히 내면화 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교사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순	성명	성별	나이	학교급	교육경력	지역
1	임평등	남	50대	고등학교	22년	경기
2	박행복	남	40대	중학교	22년	경기
3	한우리	남	40대	중학교	22년	경기
4	홍사랑	남	40대	고등학교	14년	충남
5	김민주	남	40대	고등학교	13년	경기
6	권시민	남	30대	고등학교	12년	서울
7	황존중	남	30대	고등학교	11년	경기
8	이인성	남	30대	고등학교	10년	경기
9	배정의	남	30대	고등학교	10년	경기
10	유포용	여	30대	중학교	8년	서울
11	이돌봄	여	30대	고등학교	8년	경기
12	이해결	남	30대	중학교	7년	서울
13	김이해	여	30대	고등학교	6년	서울
14	김공감	여	20대	중학교	5년	강원

표 7. 연구 참여 교사 정보

③ 체육교과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교사

공립학교의 경우 모든 교사들에게 배정되는 수업에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수업 시수를 배정하고 있다. 학교 운영 과정에서 특정 교과의 수업시수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 해당 교과의 교사 수급을 조절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완충 기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상의 체육교과의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것이 체육교사 개인의 업무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고등학교 체육교육계에서는 최근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체육교

과 수업시수 감축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체육교사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신체활동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대학 입시 위주의 현행 교육 제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체육수업 시수의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중요한 사회구성원 집단인 학생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체육교사들은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신체활동을 감소하고자 하는 교육계의 개악에 반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소속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체육교사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④ 양성평등 수업을 실천하고 운영하는 체육교사

체육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기에 많은 교사들이 수업을 통한 인성 함양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정의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체육교육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사회 문제 속에서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양성평등의 문제이며, 여성 체육교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 문제를 주제로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체육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적 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는 영역이기에,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육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Yin(2008)은 자료 수집의 방법을 문서정보, 기록정보, 인터뷰, 직접관찰, 참여관찰, 물리적 인공물의 6가지로 분류하며, 이 중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Creswell(2015)도 사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례 자체 뿐만 아니라 사례의 배경에 대한 맥락적 자료를 찾아야 하며, 다양한 정보원들로부터 폭넓은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전 온라

인 개방형 설문, 심층 면담, 비참여 관찰, 현지 문서 분석의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과 일상 생활에서 나타는 체육교사의 생각과 행동을 확인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사전 온라인 개방형 설문

사전 온라인을 활용한 개방형 설문 방식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연구참여자와 연구자의 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수집 방법이다. 참여자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연구자가 제시하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심층 면담 이전에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층 면담에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의식적으로 연결 짓지 않는 주제인 체육교육과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연결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에 자료수집에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전 온라인 개방형 설문의 내용은 <표 8>와 같다.

표 8. 사전 온라인 개방형 설문 내용

질문 내용
○ 교직 경력 및 교직 생활 관련 정보 (교직경력, 학교급, 담당업무 등) ○ 평소 체육계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 ○ 체육 수업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불평등, 갈등 상황 ○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학생 간, 혹은 교사-학생 간 갈등 대처 방식 ○ 체육 수업에 존재하는 불평등 상황에 대한 개선 방식 ○ 체육교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방식 ○ 민주시민 교육에 필요한 체육교사의 자질

나.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연구자와 면담자의 협력적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특히 이 방식은 직접 현장의 관찰이 어려운 상황, 혹은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관념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효과적인 연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천, 2016). 연구자는 사전에 질문을 준비하여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며, 연구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 방식을 유동적으로 바꾸어 가면서 연구 자료를 수집한다. 이러한 방식의 면담 방식을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이라고 하는데, 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구조화된 면담보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면담의 과정에서 융통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면담 가이드를 통해 면담이 연구 문제와 관련성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면담의 주요 주제와 질문 내용은 <표 9>와 같다.

다. 비참여 관찰

관찰 방식은 심층 면담과 더불어 질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양식, 의식, 감정, 신념을 확인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자료수집 방법은 다른 자료수집 방법과 달리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행동까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 비참여 관찰은 직접 관찰 대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관찰 대상의 행동에 간섭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형태의 관찰이다.

라. 현지문서

질적 연구을 실행함에 있어서 공간적, 시간적 한계는 자료수집에 있어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의 삶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에 근거한 활동의 결과물을 담고 있는 현지문서의 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수업 활동 중, 혹은 일

상 생활 속에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문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 현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표 9. 교사 심층면담 질문 내용

주제	질문 내용
수업에서 마주하는 비민주적 상황과 대응방식	○ 체육교육에서 비민주적인 모습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 체육교육에서 갈등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 체육수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 교사-학생 간의 위계로 인해 체육수업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체육수업에 스며들어 있는 불평등과 갈등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 체육수업에 스며들어 있는 차별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 체육수업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활용하는가? ○ 체육수업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활용하는가?
사회정의와 체육교육	○ 체육수업시간에 사회정의, 민주성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 수업 중간에 사회의 부조리(불평등, 혐오 등)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 사회정의, 민주성 교육와 관련된 체육교육 수업을 실천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 체육수업에 스며들어있는 비민주적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이러한 비민주적인 모습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 비판적 교육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가? 혹시 알고 있다

사회정의와 체육교육	면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는지? ○ 비판적 체육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체육 수업에서 사회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수업 주제로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평소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 사회정의와 관련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 사회정의 수업을 실시함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스포츠 경기에서의 갈등과 체육수업에서의 갈등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민주시민 교육은 어떠한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가? ○ 체육교육에서 민주성 함양을 위한 수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비판적 체육교육과 체육교사의 자질	○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시할 때,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비판적 페다고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반드시 비판적 사고능력 이외에 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 ○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체육교사에게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 ○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 ○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수업이 지속되어야 하고, 향후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체육교과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자료 분석 및 해석

질적연구에서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방식이 존재한다. Yin(2008)은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기법을 패턴매칭, 설명하기, 시계열 분석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고, Strauss(1987)는 근거이론에 기반한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순서로 진행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Wolcott(1994)이 자료 분석 방법으로 제시한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에 따라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은 연구자가 자료 수집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글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적 렌즈를 통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옮기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보고해야 하며, 상반된 결과라도 함께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Creswell, 2015). 그래야만 비로소 질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의 과정을 연구에 담아낼 수 있다(조용환, 2011).

두 번째 단계인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관찰하고 기술한 것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연구 목적, 연구 문제에 맞게 조직함으로써 논리적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며 의미를 범주화하는 코딩 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자료의 해석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범주화한 주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를 통한 연구의 결과물이 단순히 연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물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수행 과정이 타당하고 신뢰로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Tracy(2010)은 진실성과 신뢰성을 갖춘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Cresswell(2013)이 제시한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삼각 검증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가. 구성원 간 검토

구성원 간 검토는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내린 임의적 결론을 연구 참여자 중 일부로부터 견해를 듣고 이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잠정적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며 호의적으로 평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를 판단할 수 있다.

나. 동료 간 협의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교육연구실(SPiL) 실원 및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석·박사 과정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자의 편견이 반영되어 자료 해석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신빙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 삼각검증법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통합하는 방법이다(김영천, 2006). 삼각검증법은 다양한 자료와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Mathison, 1988). 본 연구에서는 사전 온라인 개방형 설문, 심층 면담, 현지문서의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6. 연구의 윤리

연구를 실행할 때에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 실행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22년 10월 8일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CITI교육(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Program)의 세부 프로그램 중 Social & Behavioral Research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연구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앞서 소속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IRB)의 승인 절차를 거쳤다(IRB No. 2302/0033-012).

연구 실행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 존중을 위해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가자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 단계에서 연구자가 유도 질문을 통해 연구자가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학교체육에서의 비민주적 상황과 대응

‘민주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가치가 유동적이며 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가진 개념으로 여겨진다(김동식, 장용규, 2018). 때로는 개개인의 관점에 의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민주성 판단이 다르게 이루어지기도 하기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민주성에 대한 판단의 모호함은 체육 교육 현장에서도 발생한다. 과거에는 교사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신체적 경쟁 활동이 자유주의적 민주시민성에 부합하는 형태의 체육수업으로 여겨졌었지만, 현재에는 개개인의 운동 기능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학생들 간의 갈등과 소외 현상을 예방하고 ‘보편적 민주성’을 실천하는 체육수업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보편적 민주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현장 소통 포럼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3차)’과 ‘소외되는 학생 없는 국가교육과정(4차)’을 중심 주제로 하여 깊이 있게 논의되기도 했다(교육부, 2021).

정소민 등(2015)이 주장한 바 대로 점차 심화되는 불평등, 불안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들이 위협받는 현실을 학교체육 현장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수업의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는 체육교사는 수업에서 나타나는 갈등, 소외와 같은 현상을 가볍게 바라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민감성을 체육교사의 중요한 역량과 덕목으로 고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교육 목적’의 하나로 명시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체육에서의 기존 관습을 벗어나 다양한 주제와 사회적 이슈를 수업에서 다루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체육교과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 그리고 능력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인해 체육 수업에서는 비민주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적절한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체

육수업은 배움과 배려가 결여되고 소외과 갈등이 자리를 차지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에 체육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체육교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 비민주적인 상황들

학교체육의 비민주적인 모습은 크게 체육교육의 전통적인 이미지로 인해 교과가 소외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체육 수업 상황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다. 김준성, 한만석, 류태호(2014)는 체육의 부정적 담론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폐쇄적 문화, 폭력적 문화, 도덕성 결여, 여성성 훼손 등의 사회·문화적 담론과 자본논리 등과 관련된 경제적 담론, 그리고 흥미결여, 인식결핍, 위상추락 등과 관련된 교육적 담론의 3가지 형태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음을 정리했다(장용규, 김동식, 2016). 이러한 분석은 체육에서의 부정적·비민주적 상황이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체육교육 분야 내부적인 문제에 기인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체육교육에서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제시해 보았을 때,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담론에 의해 교과의 역할과 지위가 제한되는 형태를 보이며, 수업 안에서는 학생 간, 혹은 학생-교사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드러나는 형태로 나타난다.

1) 전통적 교과 이미지로 인한 소외

가) 정체된 체육교사 이미지

① 통제자로서의 체육교사

체육수업 내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상황은 체육교육 문화 속에 존재하는 비민주적인 모습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우

리나라 체육교육 분야는 과거 군사훈련과 엘리트 스포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에도 과거의 체육교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체육교육계에 존재하는 비민주적인 모습은 과거 체육교육에 존재했던 계층문화와 폐쇄적인 문화가 아직도 남아 희미하게 나타났다.

> 기존에 이런 학교 체**육 교사 문화가 굉장히 닫힌 구조를 많이 봤고, 좀.. 너무 상명하달식나, 그리고 선배들의 너무 권위적인**..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런 것 같아요. 꽤 많이. 그래서 그런 보수적이고 꽉 막힌 그런 **일반 교사하고는 다른 체육 교사 만의 약간 닫힌 문화**가 있어요. 계층 문화가 있고.
>
>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최근에는 체육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체육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강압적인 형태의 통제 능력은 여전히 체육교사의 중요한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제자로서 체육교사의 이미지는 학생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무능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었고, 이러한 생각은 체육교사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 제가 그런 것들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줄을 딱 딱딱딱 서고 하는 게 중요한 건가? 준비 운동을 하는 건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모습이 남들한테는 '내가 좀 무능한 교사로 보여질 수도 있으려나' 해서 어쩔 때는 강압적**으로 해보고도 싶었다가..
>
>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② 독단적인 결정자

여전히 많은 체육교사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업에 반영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업의 종목이나 컨텐츠를 선택할 때에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도 했다. 수업의 종목이나 컨텐츠를 선정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학생들 간의 사전 경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행 능력 차이를 최소화하고 민주성을 띈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성향과 선호를 고려하여 수업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체육교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만 근거하여 종목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체육교사가 '독단적 결정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며, 수업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의 다양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교사인 내가 그래도 조금은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내가 좀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좀 이렇게 많이 선호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수업 활동 콘텐츠 선택에 대한 비민주적인 상황**이지 않았나..
>
>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이처럼 체육교사들이 가지게 되는 전통적인 관념에 의해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 비민주적인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상황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체육교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수업 안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 역시 부족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 사실 선생님이 **편한 거는 그냥 자기가 정해서 통보하고 시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아이들도 학생들이 자기네들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아져야 자기들도 타인을 존중하고 이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런 걸 배울 수 없다고..**
>
> (교사 유포용, 심층면담)

나) 전통적 기능 중심 체육수업

김윤영과 박종률(2021)은 체육수업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부족하여도 다른 능력을 통해 개개인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체육교과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능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영역를 확장하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체육교육은 여전히 기능 중심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형태를 보

인다. 체육교육이 반드시 스포츠를 모방하고 추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체적 우월성을 겨루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편견이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기능 중심적인 체육수업의 운영 방식은 스포츠에서의 기능적 우월성을 동경하여 필연적으로 승리를 추구하게 되며, 학습 과정에서의 내적 성취감 보다는 '승리'라는 외적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

> 운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 대해 더 권한이 쏠리거나 또 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차별받거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런 **승리 제일주의 풍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승리 제일주의 풍토는 체육 수업 상황에서도 이제 만연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축구 대회를 한다, 그럼 **축구 잘하는 애들은 이제 막 다른 친구들의 우상이 되고 축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참여 자체도 못하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겪으면서 더 심해지기도 하고..
>
>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승리 제일주의는 체육대회나 스포츠클럽과 같은 활동에서 결과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소외를 느끼게 만들었다.

> 수행평가든 아니면 그냥 스포츠클럽 대회 축제든 그런 어떤 **경기 결과에 따른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참여의 비율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거기 안에서 소외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
>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체육수업에서 승리를 지향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체육교과가 가진 풍부한 가능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단조로운 결과 지향적인 체육수업은 수업에서 학습할 수 있는 가치를 다양화 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다.

다) 체육교과의 낮은 지위

결과중심주의와 승리 제일주의 단순성과 전통적인 체육교사의 '비합리적인' 이미지는 체육 교육 자체에 대한 낮은 평가를 가져오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결과적으로는 교과의 지위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체육수업에서 교과가 가지고 있는 낮은 지위에 의한 비민주적인 모습은 학교 체육수업을 통해 충분한 신체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시행되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그 의도와 달리 입시 교과목 위주로 선택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은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체육교과는 교과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낮은 교과 지위로 인해 학교 내에서 편성 교과로 선호 받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체육교과를 선택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비민주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교과 선택 신청을 받았어. 다 했는데, 진로 선택 체육 과목을 68명이 신청했어요. 68명이 신청했는데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묵살을했어요. 열어주지 말자. 진로 선택 과목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애들 중에 68명이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
>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고교 학점제의 방향성 자체를, 그리고 근본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기존 선생님들 특히 국영수 선생님들 탐구 선생님들이 그냥 가는 대로 하자, 왜 자꾸 새로운 걸 열어서 기존 틀을 흔드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등하지 않다. 이건 민주적이지 못하다, (중략) **학생의 선택권이 열렸는데 그거를 국영수탐으로만 몰고 가는 이 분위기는 근본 취지하고도 너무 다르다.** 어떻게 보면 체육 음악 미술을 학생들에게 선호도에 맞게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가 고교학점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생각해요.
>
>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교과 지위의 높고 낮음은 상대적인 문제이며, 특정 교과가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학생에 대한 교육 실행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이 교과의 지위로 인해 정당한 교과 선택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평등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체육수업에서의 능력주의

체육은 스포츠라는 도구를 통해서 학생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교과이다. 스포츠는 경쟁과 유희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신체활동이기에 체육수업에도 경쟁의 형태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경쟁적 활동은 능력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위계를 발생시키며 이는 상대적 약자에게 갈등과 불평등을 초래하며 소외를 경험하게 만든다. 장경환(2019)은 체육교육에서 경쟁은 스포츠가 지닌 본질적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매개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갈등과 소외를 초래하는 '양날의 검'으로 비유했다. 이러한 스포츠의 특성으로 인해 체육수업에서 운동기능의 차이로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과 소외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운동 기능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과 소외의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는 소양과 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체육수업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거두게 되며, 심한 경우 스포츠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가) 기능 차이에 의한 갈등과 불평등

① 낮은 운동 기능으로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

'보편적 참여'가 수업의 중요한 민주적 가치로 여겨지는 최근 체육교육의 추세에서 기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소외와 같은 현상 역시 비민주적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운동 기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소외의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비민주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 협동, 집단 간 경쟁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거를 자꾸 활용 하고 있는데, **능력에 따른 불평등과 갈등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 수업 중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특히 운동 기능의 차이가 개인의 이해관계와 얽힌 평가로 이어지거나 집단의 이익이 걸린 중요한 경쟁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경우에는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소외를 느끼게 되고, 때로는 상호 간에 조롱을 하거나 직·간접적인 비난을 가하는 등의 갈등 상황의 형태로 확대되기도 했다.

예전에 ○○고에 있을 때는 학교에 과학 중점 반이 있었으니까, 과중반 애들한테 **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 과중반 애들을 무시하고 이런.. 축구할 때 무시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왜냐면 걔네가 못하거든. 내가 봐도 못하긴 하거든.(웃음)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이처럼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단지 감정적 갈등의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업 시간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도 발견되었다.

팀 내에서 똑같이 미션 해가지고 공을 이렇게 몇 개 하기 이걸 미션을 하는데 얘만 가면 항상 실패를 해.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주는, 그 알듯 모를 듯한 시선,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② 평가에 대한 어려움으로 소외되는 학생

그렇다면 체육교사가 스포츠 고유의 특성인 '경쟁'이라는 요소만 수업에서 배제하여 설계할 수 있다면 앞서 설명한 운동 기능의 불평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수업에서 경쟁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적인 체육수업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점을 100점으로 봤을 때, 대부분 중간이상, 한 70점대를 기준으로 놓고 평가 기준으로 잡거나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데 **그 밑에 애들은 사실상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교사 박행복, 심층면담)

체육수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평가'는 운동 기능에 의한 불평등과 소외가 발생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소외의 감정은 타인으로부터 물리적·감정적으로 격리되는 상황에서도 느끼지만, 절대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효능감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수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연습 했음에도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정적 감정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체육수업에 대한 참여 동기를 잃게 만들기도 한다.

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기회에의 문제를 떠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고..** 또한 물론 교사한테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 사이에서의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체육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잃게 한다는 점에서 수업 자체, 어떻게 보면 체육에 대한 학생들의 그런 사고 자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흔히 얘기하는 좀 **강한 학생은 계속해서 조금 더 체육 수업에 재미를 느끼고 더 더 오히려 더 높은 성취**를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계속 더더욱 의견을 이제 안 내려고 하고, 그냥 이런 걸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모습만 보여서 제가 수업을 이런 수업을 설계할 때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의 어떤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랑 의사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바탕으로 좀 이제 좀 이제 자율적인 신체 활동이 되도록 목표를 한 건데, **오히려 하는 사람만 더 하고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더더욱 위축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이처럼 체육수업에서 기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불평등은 개인에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단계를 넘어 체육수업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발언권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김진필 등(2016)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평가의 경우 소외 학생들이 좌절을 느끼게 하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수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가 학생이 체육수업과 스포츠에 대한 참여와 흥미를 잃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허창혁, 2002; 김윤희, 2007).

이처럼 체육 수업이 '활동 참여' 중심이 아닌 경쟁과 평가 중심으로 운영될 때 운동 기능 차이로 인해 갈등과 불평등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전히 많은 체육수업이 경쟁과 평가를 중심에 놓고 운영되는 모습을 보였다.

나) 능력주의에 의한 위계

① 스포츠 거울효과

운동 기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소외는 수업 안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상황에 관한 예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스포츠라는 '매개 도구'의 특성으로 인해 체육수업에서 학생들 간의 위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쉽고 자연스럽게 목격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스포츠'가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체육수업에 활용되는 도구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학생들이 가진 운동 기능의 차이를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능력(퍼포먼스)의 차이와 동일한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운동 기능이 뛰어난 학생이 수업에서 더 많은 권한과 더 높은 서열을 가지게 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경기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 아예 그냥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이제 **약간은 빈정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애들끼리는. 못하는 친구들 이게 패스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있고**. 경기 상황이라면. (중략)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지. 원래 몸이 잘 안 따라주는(웃음) 친구인데.. 친구에게 뭐라 하는 데, 너 때문에 이걸 작품을 뭘 해야 되는데 어떤 일부 학생이 이제 잘 안 되니까 그 친구가 같이 연습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
>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하여튼 운동을 좀 못하는 아이들은 **의사 결정에 대한 발언권이 좀 낮다**라는 거, 그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② 또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위계

체육시간에 발생하는 달갑지 않은 주(운동능력)와 종(위계)의 관계는 때에 따라서 그 입장마저 전도되어 나타나 최악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체육수업에서 활용되는 운동 능력과는 무관하게 또래 집단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진 학생들이 체육수업의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일반 교실에서 하는 수업에 비해서 좀 신체적인 게 아무래도 많이 개입이 되는 교과이다 보니까 진짜 뭐 하다못해 운동을 잘하는 애들이 뭔가 주도 권을 잡고 수업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 한다거나 그러면, 그나마 체육교사로서는 좀 다행인데.. 그냥 **그 또래 집단 내에서 약간 서열이 높은 애들이 그런 상황들을 주도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원초적으로 힘이나 여학생들은 그 안에 사회적인 서열, 약간 뭐 그런.. 힘이 꼭 세서가 아니라 말발이 세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중략) 남자애들은 그냥 운동을 잘하거나 아니면 진짜 힘이 세거나 약간 그런 애들이 어떤 수업의 규칙이라든가 이거를 초월해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마구 관철시키는 게 좀 비민주적인 게 아닌가.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체육수업에서 존재하는 위계가 당연하게 인식될 때, 학생들은 그들 사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수업에서는 요구받지 않는 '그들만의 권력'을 수업으로 끌고 오려는 모습도 보였다.

3) 성별에 의한 불평등과 갈등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의 중학교 기준 남·녀 혼성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약 80%에 이른다(3258개 교 중 2585개 교). 이는

2002학년도 기준으로 67%(2809개 교 중 1880개 교)만이 남·녀 혼성으로 운영되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교육통계연보, 2022 ; 교육통계연부, 2002).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남녀 평등사상을 이해하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성장·촉진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혼성학교의 확대 의도(강학주, 1994; Dunbar & O'Sullivan, 1986)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함께 동반하게 된다. 서로 다른 성별의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기도 하는데, 태생적 차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으로 누적되어온 고정관념은 상대적 불평등문제를 인식하게 만든다. 여기에 사전 운동 경험과 체육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까지 더해져 체육수업에서는 성별의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 전통적 성 관념

수업 속에 남아있는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차별은 수업 곳곳에서 신체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차별에 의한 배움의 기회 박탈이나 신체활동 공간의 사용 제약과 같은 피해는 주로 여학생들이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로는 남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향유하지 못하고 구기종목과 같은 경쟁 활동의 참여에 매몰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① 잘못된 성관념에 의한 불평등

체육 활동에서 나타나는 성 관념에 의한 불평등은 체육 교사의 고전적 성 관념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과거 남성 우월주의, 여성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학습한 기성세대는 체육 수업 참여의 불평등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고전적 성 관념은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한계를 규정하는 형태로 발현된다.

> 저는 배구 수업을 할 때 관행적으로 이루었던 배구 수업에서 **여학생들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을 갖고 가르치는 내용 자체를 축소했던 걸 많이 듣고 봤던 것 같아요.** 여

학생들에게 스파이크를 안 가르친다든지 농구에서 점프 슛이나 레이업을, 또 경기를 충분히 경험시키지 않고 농구나 배구 수업 할 때 '여학생들이 어떻게 스파이크를 해~' 이런, 어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냥 내뱉는 말들.. 그러면서 평가 자체도 수업 내용 자체도 배구인데도 그냥 언더 오버로 무조건하고. 더 발전하면 서브까지. 그렇게 굉장히 심플하게만 시키는 거죠.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에 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여학생의 도전정신을 훼손하고 운동능력 발달을 저해하는 형태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②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리

체육수업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활동을 구분함으로써 다양한 신체활동에 대한 참여를 가로막는 문제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형태가 흔히 체육수업 운영의 단순성을 냉소적으로 논할 때 얘기하는 '남학생은 축구, 여학생은 피구'이다. 2007 체육과 교육과정부터는 2022 교육과정까지는 체육교과가 종목 중심에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 변하면서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여가활동, 안전의 5가지 영역을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학생은 경쟁활동, 여학생은 표현활동'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여자애들은 피구 **단편적으로 보면 여자애들은 피구하고 남자애들은 이거 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댄스 잘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아서 여학생들은 표현활동을 하고 남학생들은 구기활동 위주로 하고..

(교사 박행복, 심층면담)

③ 체육 활동 공간에서 밀려나는 여학생

체육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 외 체육활동에서도 성 관념에 의한 불평등 문제가 드러난다. 학교 일과 중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여학생들이 있지만, 신체활동 공간을 남학생들이 선점하는 전통적 관습으로 인해 원하는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늘

그래왔듯이' 학교에서 신체활동 공간을 선점하는 것은 대체로 남학생들이다.

> **운동장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이미 결정권은 남학생들끼리 1학년이 사용하니 3학년이 사용하니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고 다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 여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저희도 사용하고 싶은데 남학생들이 이미 다 해놔서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
>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최근에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여학생들의 교과 시간 외 신체활동 참여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가 시간을 활용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남학생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신체활동 공간을 점유할 수 없는 것이 남학생들에 비해 운동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며, 신체활동 참여 욕구가 남학생들의 그것보다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비가시적' 이유로 인해 신체활동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다.

나) 성별 간 운동 기능 차이

배미해(2000)는 체육교사들이 혼성학급에 대한 경험이 미비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전 준비 교육도 부족함으로 인해 혼성학급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인한 불평등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차이에서 시작된다. 초등학교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격과 체력 차이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앞 항목 에서 설명한 전통적 성 관념에 의한 불평등 역시도 그 기저에는 물리적·신체적 차이에서 시작된 문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성별의 '다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성별의 '우열'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체육 교육에서는 성별의 다름에 의한 신체활동 능력 발생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표 10]에서 나타나듯이 PAPS(학생건강체력 평가)에서도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상과는 다르게 최근 체육수업에서 성별에 따른 운동 기능 차이에

오래달리기-걷기 평가기준[남자]*

(단위:)

학년	아주 낮음 (5등급)	낮음 (4등급)	보통 (3등급)	높음 (2등급)	아주 높음 (1등급)
초5	480~640	410~479	325~409	282~324	268~281
초6	450~587	380~449	315~379	251~314	243~250
중1	700~791	600~699	503~599	426~502	400~425
중2	680~774	584~679	488~583	417~487	380~416
중3	660~761	568~659	473~567	408~472	370~407
고1	640~755	552~639	458~551	399~457	370~398
고2	620~721	536~619	443~535	390~442	370~389
고3	600~701	520~599	428~519	381~427	362~380

*초등학생은 1000m, 여자 중·고등학생 1200m, 남자 중·고등학생 1600m

오래달리기-걷기 평가기준[여자]*

(단위: 초)

학년	아주 낮음 (5등급)	낮음 (4등급)	보통 (3등급)	높음 (2등급)	아주 높음 (1등급)
초5	502~640	442~501	360~441	300~359	268~299
초6	480~587	430~479	354~429	300~353	243~299
중1	609~661	518~608	443~517	380~442	355~379
중2	609~661	518~608	443~517	380~442	355~379
중3	609~661	518~608	443~517	380~442	355~379
고1	609~661	518~608	443~517	380~442	365~379
고2	609~661	518~608	443~517	380~442	365~379
고3	609~661	518~608	443~517	380~442	365~379

표 10. PAPS(학생건강 체력평가) 기준표

의한 심리적 불평등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남학생들이 신체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다. 남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여학생들에 비해 운동능력이 뛰어나다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여학생들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몇몇 남학생의 경우 심각한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 근데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걸 따로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자애들 중에 운동을 못하는 애들은 진짜 최악의 상황? 뭐 그러니까 완전 오히려 그**냥 운동 못하는 여자보다도 운동 못하는 남자 애들은 거의 남자 취급도 못 받고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
>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다) 역차별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정호웅 등, 2014). 단어 자체의 의미로 바라보았을 때 두 성별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서 모든 기준을 동등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남녀 간의 태생적, 유전적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성별 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그것을 과도하다고 느끼거나, 조정이 존재하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반대 급부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을 설정할 때 여학생들에 비해 기능이 뛰어남에도 더 낮은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남학생들이 이를 역차별로 인식하여 반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기능 차이가 좀 있다보니까,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쳐도 나중에 이제 평가 기준 같은 걸 만들면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신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차이를 두고 평가 기준을 짜면 그거에 대한 이제 불평을 남학생들이 남학생들은 기준이 어렵고 자기들은 어렵고 여학생은 쉽게 하는 것 같으니까..**
>
> (교사 한우리 교사, 심층면담)

평가의 문제 이외에도 남학생들이 역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학생들의 보편적 참여를 지향하는 교사들은 규칙 변형 등의 방식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혼성 체육수업을 운영하고자 하지만, 스포츠가 가진 격렬한 신체활동과 경쟁성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남학생들의 경우 그러한 조정을 달갑게 느끼지 않았다. 남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져온 혼성 수업의 운영을 위한 '강요된 배려'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때로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 근데 남자애들 중에 되게 불만을..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오자마자 체육할 때부터 약간 또 불만을 표출하는 애들이 있어요. **크게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걔네들도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 예전부터. 여학생들이랑 체육 활동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잘 없다고.** (중략) 초등학교 중학교를 얘네가 계속 거치면서 체육 선생님들이 강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 거를 거치면서 고등학교까지 올라와서 이제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걔네가 불

만을 표출하더라고..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체육 수업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갈등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직접적인 갈등 문제의 발생보다는 혼성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체육교사의 의도와 학생들의 요구 사항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체육교사는 전통적인 성 관념으로 신체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지만, 그것에 대해 부조리를 느끼는 또 다른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불평등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성별 간의 체격과 체력의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능력의 차이,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관점 차이,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이슈들로 인해 수업 내에서의 불평등의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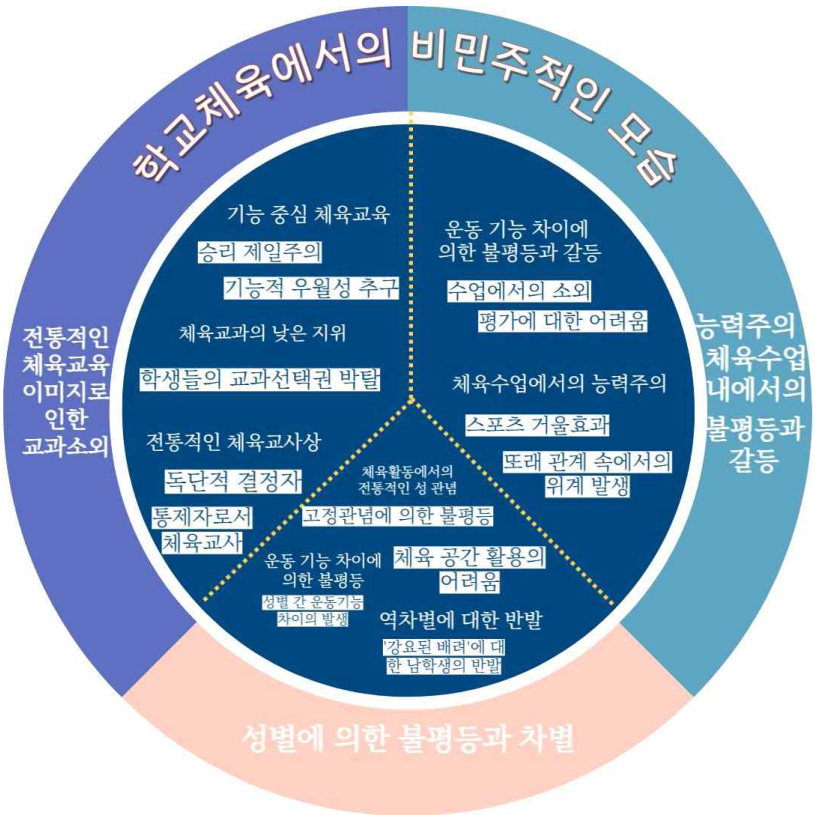


그림 7. 학교체육에서의 비민주적인 모습

나. 비민주적 상황에 대한 대응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민주성 함양을 지향하는 체육교사는 체육수업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민주성 함양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이슈를 수업 주제로 활용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기 위해 노력한다.

앞 절에서 설명한 체육교육 현장에서의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체육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체육교사는 수업 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규칙을 변형 등의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둠편성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감정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개적인 모둠편성을 지양하기도 했다. 또한 운동 기능의 차이로 발생하는 위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의 비중을 낮추거나 수업 주제, 평가 주제 등을 다양화 하였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교육함으로써 기존 사회 관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수업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1) 수업에서의 민주적 상황 조성

가) 소외 학생 없는 체육수업

체육수업에서의 신체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학급 동료들과 더불어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으며(김병준, 성창훈, 1996; 권민정, 2012; 박정준, 2012; 오승현, 2018), 기존에 또래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좋은 체육수업은 상처 회복에 좋은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윤영, 박종률, 2021).

이러한 체육수업의 긍정적 효과는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면밀히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은 체육수업은 새로운 소외를 양산하는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운동능력 중심주의와 자유로운 경쟁을 방관하는 체육수업은 새로운 형태의 소외와 같은 비민주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촉매가 된다. 체육수업이 소외의 발생을 예방하고 상처 회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김윤영 등, 2021). 소외 학생이 없는 체육수업, 그리고 소외 학생을 치유하는 체육수업 모두 체육교사의 주도면밀함과 계획성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① 팀편성 과정에서의 고민

체육교사들이 수업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감정적 소외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 중 하나는 팀편성 과정에 있다. 스포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수업의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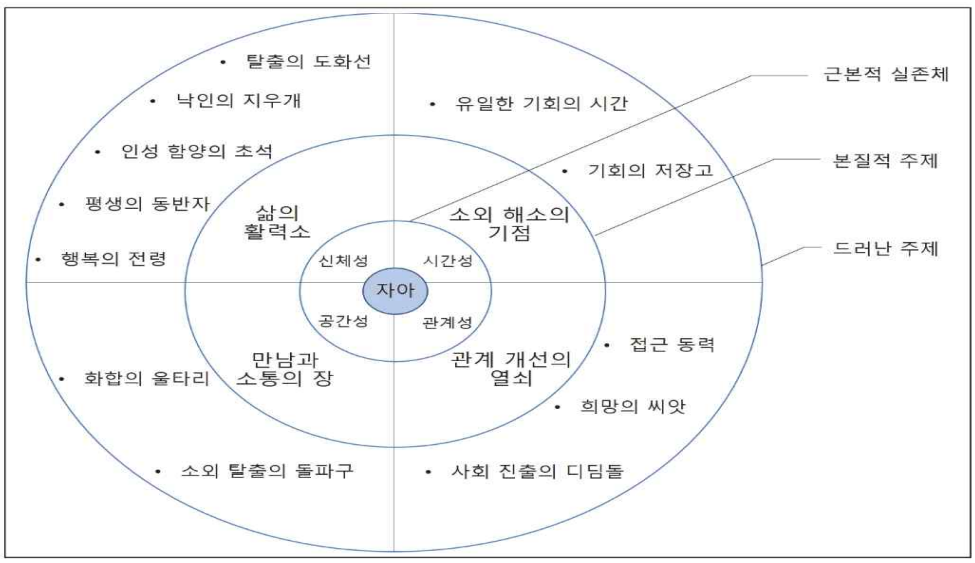


그림 8. 또래관계 소외 학생들이 경험한 체육수업 의미의 본질 구조.
(김윤영 등, 2021)

부분은 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체육수업에서의 팀편성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공평함'과 '학생 개인의 희망 반영'의 가치이다. 공평함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은 수업의 운영과 평가 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기존의 또래관계를 유지하여 수업 내 활동 공동체로 이어가고자 희망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육교사가 개입 통해 적절한 중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수업에서 비민주적 상황의 발생시키게 된다.

> 팀 짤 때도 **어떤 친구가 분명히 뽑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생길 건데.. 학교에서는 그게 되게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
>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 수업 내에서 팀 짤 때 그냥 **애들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막 친한 애들끼리 짜고 약간 실력이 편중되게 잘 때 있잖아**.
>
>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이처럼 적절한 개입이 없이 팀을 편성하다보면 마지막까지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은 대체로 운동기능이 떨어지거나 학급에서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소외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교사는 팀 편성 과정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그 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공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팀 뽑는 친구들 한 5명 나오면 뽑는 과정은 무조건 비밀로 하고, 발표할 때도 이름 다 섞어서 몇 번째 뽑혔는지 모르게 섞어서 이렇게 공개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안 받도록.**
>
>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 팀 편성하는 다양한 요령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민주적으로 팀 밸런스를 좀 잘 맞춰가지고 짤려고 하지..** 그.. 목소리 크고 운동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걔네들 먼저 나누고. 일단은 운동 좀 못하는 애들도 상처받지 않게.. 그러니까 걔네가 전체가 모인 상황에서 팀을 짜는 게 아니고.. 따로 이제 조금 운동 잘하는 애들이 저~~기 벤치. 나랑 저기 멀리 가가지고 멀리 가서 짜서 오고

연습 게임 연습 경기 팀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고,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팀을 짤 때는 모둠장만 뽑고 걔네를 조용히 불러내서 명렬을 보여주면서 순서대로 정하고, 마지막에 제가 불러주고, 모둠을. 정해진 모둠을 불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남겨지는 걸 막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교사 유포용, 심층면담)

이러한 노력은 과거 체육교사가 단순히 '공평함'의 가치만을 추구하여 수업을 운영했던 것에 비해 그 이면에 존재해 왔던 학생 개개인의 감정적 소외 예방을 중요한 가치로 고려함으로써 비민주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역할의 부여

김윤희(2009)는 체육수업의 소외 발생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의 낮은 운동 기능 수준으로 인한 소외 발생이 중요한 소외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운동 기능이 낮음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모둠활동 속에서의 역할 부여를 통해 학생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체육교사들도 수업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과제를 다양화 시키며 학생들이 각자 가진 운동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자기 신체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걸 가져다가 역할들을 나눠주는 편인 것 같아. 팀 스킬 챌린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야구를 했을 때는 여기서는 던지는 친구, 여기서는 플레이트 굴리는 친구, 여기서는 타격하는 친구, 여기서는 펑고쳐서 받아서 받는 친구, 마지막에는 가위바위보 하는 친구. 뭐 이렇게 정해서, 진짜 기능 안 되면 가위바위을 한는 걸로 해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운동 능력이 낮더라도 이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제일 잘하는 거 한 개를 딱 잡아서 할 수 있으니까.**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체육수업이 운동 기능을 활용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지만, 운동 기술을 세분화 하는 방식으로만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우현(2011)은 체육 수업에서의 소외학생들은 대체로 신체 활동 능력이 떨어질 뿐이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개별화된 능력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가진 적성 및 소질, 능력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한다면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이제 수업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배분해준다거나** 예를 들어 모둠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정말 운동을 잘해서 운동 능력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한다거나 또 어떤 학생은 또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런 뭔가 이론적으로 해결을 잘한다거나 이게 **각자가 다 역할이나 이런 적성 같은 것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따로 부여해서 수행하도록 하니까 조금 해결되더라고요**.
>
>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 모둠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골고루 경험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모**둠장, 이런 학생들을 좀 종목에 따라서? 또는 활동에 따라서, 전에는 이 학생이 했다면 이번 활동은 좀 다른 학생이 하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좀 따를 수 있도록 좀 제가 의도적으로 좀 개입하는 형태로 수업 계획을 수업 계획 단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
>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이처럼 체육수업 내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여러 수업모형에서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수업모형들의 목표는 학생의 개별화된 역량의 발휘보다는 원활한 수업 운영과 다양한 역할의 경험을 위한 학생 참여에 있었다. 이에 반해 최의창(2001)이 제안한 하나로수업모형은 신체활동을 통한 체육수업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는데 목표를 둔 수업모형으로 볼 수 있다. 하나로 수업모형은 본래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이며, 신체와 마음과 영혼이 균형잡힌 개인을 양성하는 “전인체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교육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인양성’이라는 모형이 가진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신체활동 이외의 개별화된 역량의 발휘를 통해 수업으로의 충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나) 수업에서의 기능 차이 완화

① 종목 선택에 있어서의 신중함

스포츠를 활용하는 체육수업의 특성상 운동 기능 차이의 발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특히 수업의 기본이 되는 종목 선택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의 상황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체육교사가 평소 해왔던 종목을 선정하여 수업에 활용할 경우 운동 기능으로 인한 차이가 줄어들기 힘들며, 선행 경험이나 체격 등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 체육 시간에 교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본 가정의 아이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 교사의 어떤 설명에도 잘 반응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은 전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하면서 좀 수업에서 소외되는 거를 조금 느낀 것 같아요.
>
>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때문에 체육교사는 종목 선택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목 선택만으로 수업에서 발생하는 기능의 차이를 현저하게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선행 경험의 차이가 적은 종목을 선택함으로써 그 차이를 완화할 수 있다. 때문에 체육교사는 학생들의 선행 경험을 확인해 보거나 많은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한 뉴스포츠 종목을 선정함으로써 기능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 **체육 수업 때 배웠던 뉴 스포츠를 조금 선호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축구나 농구 이런 거 하면 격차가 너무 크니까. 수업 때 했던 뉴 스포츠는 그나마 걔네들이랑 격차가 조금 적게 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균형을 종목에 대한 균형도 맞춰..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확실히 뉴스포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네 과중반이나 이런 애들이 잘하더라고. 전통 스포츠는 확실히 전통 스포츠는 과중반 아닌 애들이 입상 확률이 높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뭔가 했던 그런 종목들은 과중 애들이 수업 시간에도 걔네가 열심히 하거든.
>
>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그래서 이게 교사가 종목 선택의 자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교사가 학교 학생들 특성이나 좀 전체적인 어떤 가정적인 배경도 정말 좀 알고서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② 규칙 변형의 활용

체육수업에서 규칙을 변경하여 기능수준 차이를 완화하고 경기 상황에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스포츠는 엄격한 규칙(rule)을 정하고 준수해야 하는 활동인데, 규칙을 변형하거나 상호간의 존중을 지향하는 약속을 정함으로써 체육수업이 과도하게 경쟁지향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함가 동시에 학생들의 기능 차이를 완화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규칙 변형들 중에서 가장 간접적인 형태의 규칙 변형에는 기능적인 차이를 완화하고자 학생들이 상호간에 이해하며 배려하도록 권유하는 '권유형 규칙'이 존재했다.

애들한테 그러면 못하는 애들이랑 잘하는 애들이랑 경기를 붙으면 이미 뭐 결과가 뻔히 그려져 있고 의욕이 안 되잖아요. 조금 밸런스를 맞춰서 한번 해볼까? 애들한테 야 너네도 그 조장을 불러서 너네도 못하는 너무 못하는 애랑 이 팀 에이스가 그 같은 세트에 붙었을 때 재미없지 않냐~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 다 어떤 흥미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냐.. 그럼 너희가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하면, 같이 서로 구성을 해라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동의를 한다면.

(체육교사 배정의, 심층면담)

체육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형태의 변형 규칙은 경기 중 보편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학생들의 협력을 지향하거나, 기능 이외의 다른 요소가 개입하도록 하는 형태를 보였다. 최근에는 상호 협력, 운과 같은 요소가 경기에 개입되도록 하여 과도한 기능 중심 경쟁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형태의 '경쟁 완화형 규칙'으로의 변형이 선호되었다.

유튜브에 보니까 상대편이 '득점이'와 '도움이'를 선택을 해서 득점이는 플러스 2점, 그리고 도음이는 골은 못 넣고 어시스트 위주로 해가지고 못하는 학생이 적극

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이 혼자 독주하지 않고 오히려 협동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했었고요, 규칙 변형에.

(체육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종목을 선정해도 이제 섞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규칙을 좀 바꾸거나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 규칙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능 차이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운?으로 이렇게 경기에 승패가 결정되기도 하는 그런 요소를 작용하게끔, 그렇게 짤려고 하지.

(체육교사 한우리, 심층면담)

가장 강한 강제성을 띄는 규칙의 형태는 갈등과 소외를 유발하는 부정적 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형태의 '훈계성 규칙'이 존재했다. 이러한 규칙은 기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활용되었다.

게임할 때 늘 **비매너 행동은 경고 후 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른 팀한테든 자기 팀한테든 그런 모습 보이면 경고 주고 진짜. 한 2분 퇴장 시키고 그런 몇 번 하면 애들이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체육교사 유포용, 심층면담)

과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기능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규칙 변형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한 방식이 오히려 여학생들의 참여동기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여학생의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성 관념을 초래할 수 있기에 최근에는 조금 더 다원적인 목적을 가진 규칙변형들이 시행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규칙 변형들은 경쟁지향적인 분위기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상호 협력과 이해를 권장하는 민주성 함양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다) 비경쟁적 체육수업 설계

① 협동 지향적 체육수업 운영

대부분이 기성세대에 속하는 체육교사들은 과거 경쟁 지향적인 체육수업을 경험해 왔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체육교사와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경쟁적인 활동 과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체육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쟁 상황이 반드시 '중심적' 가치로 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 이전에 상호간에 협력이 존재해야만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교육적으로 훨씬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팀 편성을 통해 수업을 운영할 경우 모둠 간 경쟁 이전에 모둠 내 협동이 더욱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협동 지향적인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체육교사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협동을 수업의 우선적 가치로 설정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 종목의 경우에도 체육교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운영될 수 있다.

>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승리 제일주의 풍토가 생기는데 이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협력하고 어떤 이기는 게 아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으로 이제 환경을 조성하니까 불평등이나 갈등 차별이 조금 줄어들고..**
>
>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같이 팀끼리 뭔가 이렇게 이걸 달성하기 위하는 이런 형태의 수행 평가를 많이 하니까** 그럴 때 리더 있는 친구들한테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하고.
>
>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이러한 협력적 수업 분위기는 교사가 의도를 드러내고 명확한 과제나 지시를 하는 형태보다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협력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언어적이며 간접적인 형태로 협력의 가치를 교육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체육교사의 그러한 수업 운영 방식에 따라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 역시 그러한

수업 활동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돕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반에 이제 키도 크고 했던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좀 특수반 같은 아이였어.(중략) 막 제대로 앞구르기도 못하는 애를, 그 잘**하는 애들이 걔를 뜀틀에서 앞구르기를 한 번 하는 걸 경험하게 해주려고 양쪽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같이 달려서 발구름판 밟고 구르기를 하는 거야. 걔네들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주변에서 다른 애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되게 자기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걔도 되게 만족스러워했고. 그랬더니 이제 그 반 남학생 체육부장이랑 몇 명의 남학생이 나와서 손 잡고 달리자 그래서 같이 막 달려가고 구름판 밟고 이렇게 딱 굴려줬는데. 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걸 보니까 다른 여학생들도 그 여학생 중에서 기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을 도와주더라고**
>
> (교사 한우리, 심층면담)

이러한 협동 지향적 체육수업은 교사의 언어·비언어적 방식의 교육방식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협동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재화 하게 되고, 경쟁적인 수업 이상으로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음을 공감할 수 있었다.

② 비경쟁적 수업을 위한 사전 교육

비경쟁적 체육수업을 지향하는 체육교사는 수업 중 과도한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민주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체육수업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비경쟁적 수업을 위한 사전교육은 주로 일제식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제식 수업은 학생들의 능동성 함양에 있어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수업 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치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예방해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 사전에 교육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사전 교육들을 '야, 너희들 사람마다 신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언어적인 문제를 해서 폭력적인 언어를 하거나, '아이 진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

게 되면 안 좋다, 그래서 **항상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는 형태의 이런 언어적 지시들을 자꾸 해줘야 된다' 라는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친구 수준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팀하고 차면 재미가 없어. 일방적으로 차면. 비슷해야지 너희 주변에 친구들이 기능이 올라와야 너도 더 게임할 때 재미있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의 기능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그런 거에 있어도 이게 그냥 축구 말고 축구는 종목 말고 근데 이건 도구고 그걸 통해서 니가 어떤 다른 거를 배울 수 있다.**

(교사 한우리, 심층면담)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학업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운동 잘하는 학생이랑 체육 잘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다..** 운동 잘하는 학생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서 혼자서도 잘하는 학생이지만, 체육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못하면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도움 되고자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그리고 **체육 잘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이 생기면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학생이 체육을 잘하는 학생이다.**

(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2) 관습을 넘어서는 수업의 실천

가) 수업 내용의 다양화

① 기능 중심 체육수업의 탈피

앞서 체육수업의 비민주적 상황에서도 설명했듯이 운동 기능 중심으로 구성된 체육수업은 비민주적인 수업이 운영되도록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민주적 체육수업을 지향하는 체육교사들은 기존의 관습을 깨는 방식으로 기능 위주의 체육수업을 벗어나 이면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업 형태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애들은 이렇게 막 엄청 뛰어놀고, 땀나고 게임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외에는 체육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다 보면 저희가 그 모든 영역을 다 가르치려면 분명히 애들이 체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학기 초에 너희가 생각하는 게 체육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교사 유포용, 심층면담)

때로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주제를 확장시키는 방식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스포츠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서 발표를 진행하는 주제 발표 수업을 실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학생들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스포츠 이슈나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스포츠 주제 발표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스포츠에 있는 주변적인 그런 지식들을 좀 쌓는 것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업하지 않고 이러니까. 근데 또 **애들한테서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은 많지만, 다른 쪽에 있는 지식층을 확장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 근데 또 내가 제시해 주는 거는 너무 나한테 되게 한계가 있고 내가 또 그걸 다 찾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좀 다양한 지식들을 접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한테 찾아오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찾아왔던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주제들을 좀 많이 찾아와서 나도 좀 많이 배웠던 경험이었어.
>
>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이러한 수업 방식을 통해 체육교사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스포츠 관련 이슈가 한정적이라는 것을 반성적으로 돌아봄과 동시에 학생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림 9 . 주제발표 수업 자료 (김민주 교사. 현지문서)

② 스테이션을 활용하는 수업

체육 수업은 다른 교과에 비해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학생들의 관리 감독이 어려우며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 때문에 체육교사의 통제와 관리는 중요한 역할으로 여겨지며,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체육 수업으로 인식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활동을 체험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는 공간을 분할하여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인적으로는 하나로 수업을하는 것도 '실기 말고도 다른 걸로 성취 기준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수업을 반 전체로만 운영을 했던 시기에서 지금은 개인으로도 하고 모둠으로도 하고 짝으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 **기준을 좀 이렇게 넓혀놓는 거랑 그룹을 다양하게 하는 방식 그다음에 터나 스테이션처럼 그런 활동 영역을 다양하게 하는 방식이 이런 거를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
> (교사 박행복, 심층면담)

> 이제 **터, 스테이션, 이런 식의 활동 영역을 좀 다양하게 하면, 활동 영역 하나로만 할 때보다는 훨씬 애들이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아지니까, 차별이나 이런 갈등의 갭을 좀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거 하나를 목표로 제시해가지고 애들이 못 따라오면 되게 답답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저거라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자체도 어떤 그런.. 스스로의 갈등이나 애들이랑 갈등 상황들이 줄어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
> (교사 박행복, 심층면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육교사는 기존의 체육수업이 가지고 있던 신체 활동 참여 중심 수업을 벗어나 주제를 다양화 시킬 수 있었다. 체육수업의 주제 확장에 대한 시도는 체육교과가 단순히 스포츠 참여를 통해 운동 기능을 겨루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어 기존 체육교육 자체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능 중심 체육수업의 탈피가 그

자체만으로 학생들의 민주성 함양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나, 체육수업에서 사회 비판적 이슈를 다루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 학습자 중심 수업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는 학생의 성장에 있다. 교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흡수하여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라면, 그러한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교과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권력에서 순종하는 집단을 통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장용규, 김동식, 2016).

학생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수업의 중심에 두는 수업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교육은 학생들의 운동 수행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인지적, 정의적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체육의 가치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체육교사는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와 '과정'의 중요성이 전도되어 체육 교사의 수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도 한다.

체육교육에서 교육이 가진 본질적인 목적과 교육 방식이 어긋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은 평가에서도 존재한다. 평가는 학생의 성장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재 실행되는 많은 평가는 학생들의 한계를 규정하고 위계를 생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객전도 현상을 막기 위해서 체육교사는 학생이 체육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임을 인지하고, 수업의 결정 단계에서 학생들을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한다.

① 평가방식의 변화

체육교사들은 평가를 설계할 때 학생들의 운동 기능을 측정하거나 수업 참여도를 수량화하여 평가에 반영하며 때로는 여러 차례의 경기를 실시해 그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역량을 가지게 되었고 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 중심 평가는 학생들이 평가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게 만들며, 노력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학생은 감정적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평가가 비민주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는 것임을 인지하여 평가의 비중을 낮추거나 학생의 향상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평가를 계획하는 교사도 있었다.

>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경기 자체는 아예 없애거나 또는 엄청 낮은 비중으로 실시를 하고,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계획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
>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평가를 설계하는 것은 체육교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평가의 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반영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창의성을 갖춘 수행 평가를 설계하는 것을 평가 요소로 선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평가가 가진 본질적 의미를 이해함과 동시에 기존의 수행평가가 추구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도 했다.

> 아주, 예전에 한번 그런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 지역에 있을 때 이제 전진순 선생님하고 이제 몇 개 수업 이렇게 공유를 하다가 아이들이 만드는 수행평가, 뭐 이렇게 **수행평가 만들어서 실제로 그 수행평가를 수행평가하는 이런 수업 설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약간 도전적인 수업이었죠.**
>
>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② 종목 선택에서의 의견 수렴

체육수업에서 운영하는 컨텐츠와 종목은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선정된다. 종목의 선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학교의 장비 현황과 시설, 그리고 체육교사의 종목 선호도가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호도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기에 주로 체육교사들 사이에서 종목이 선정된다. 이러한 방식의 종목 선택의 학생들의 선행 경험이나 운동 수준의 차이를 전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등과 소외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민주적 체육수업을 지향하는 체육교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목선택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 어.. 이런 종목 선택을 할 때 일단은 수업 콘텐츠를 선택할 때 학생들을 참여시킨 적이 있었어요. 사실. 학생들이 학기 말에 어떤 종목을 하고 싶나? 이제 어차피 평가 계획은 학기마다 이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학생들이 좀 원하는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설문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
> (체육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민주성 함양을 지향하는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운영하는 주체인 체육교사 스스로가 권위적인 모습을 벗어던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체육교사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지는 평가와 수업 종목 선택과정에서 독단적인 결정 대신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은 민주적인 체육수업에 접근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민주적'이라는 것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다) 양성평등 실천교육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슈는 최근 사회적으로 성별 간 갈등의 심화로 인해 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체격과 운동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여학생들을 대상

으로 평가 기준을 낮춘다거나 의무적 참여 규칙을 제시하는 등의 형태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자 했다. 남학생들 역시 이러한 차이를 통합적 체육수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했으며, '배려'의 방식으로 여겨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양성평등 실천 방식은 여성을 나약한 존재로 인정하게 만들었으며 도전적 과제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에게 필요 이상의 '배려'를 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을 느끼는 남학생들의 반발도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체육교사들은 양성평등 체육수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다양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교사는 개인의 결정에 의해 여학생들에게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대신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간의 다름을 이해하도록 하여 수업에서 차등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여학생에게 과거 성별 간의 불평등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스포츠에서의 사회적 사건들을 언급하며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형태로 양성평등 수업을 실천하고자 했다.

① 성별 간의 차별 완화

우선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격과 운동 기능 차이가 덜 나타나는 종목을 선택하여 양성 평등 수업의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형태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세부적인 규칙 변형을 적용하는 근본적 이유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 가장 남녀 차이가 덜 날 수 있는 게 네트형이 그나마 기능 차이랑 몸싸움이 없어요. 좀 덜 날 수 있다고 보는데, 배구 수업을 할 때, 이제 충분히 여자애들이 실력이 늘면 가능하거든요. 남녀가 섞여도 배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얘네는 아직 배구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운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여학생들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좀 많이 주는 거죠**. 바운드를 허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주면서 여자애들이 적응이 되고 나면 이제 여자애들 바운드를 없애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규칙을 반영했다가 제거하는 식으로. 그거를 남학생들한테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했던 것 같아요.**
>
> (교사 배정의, 심층면담)

그래서 혼성 경기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똑같이 이건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규칙 변형하고, 그 때 안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알려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몸싸움을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남학생도 다치지 않고 여학생도 다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그랬더니 이게 역차별, 이런 거를 안 당한다고 애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매년 애들한테 피드백을 따로 받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애들이 '선생님 역차별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체육 수업 장면에서 규칙의 변형 자체가 양성 평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면 오히려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상호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양성평등 실천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간의 직접적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스포츠클럽 이벤트 등의 상황에서는 차별 관행을 극복하고자 동일한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양성평등을 실천하였다. 특히 스포츠클럽이나 체육대회에서는 남녀가 동등한 상황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서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급 단위 토너먼트나 조별 리그전을 만들어 그때도 **똑같이 전반전 남학생 하면 후반전은 똑같은 시간 여학생**.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학생에 대한 잘못된 어떤 관념들을 깨보려고 노력했고 체육 학교체육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존의 안 좋은 관행들을 좀 극복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여학생이 절대 남학생의 어떤 부속품이 아니라 어떤 배경이 아니라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여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궁극적으로는 양성 평등 수업을 통해서 성별 간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아닌, 성별에 의한 제약 없이 체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임을 교육하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못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경험하면서 느꼈던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어차피 주어진 시간을 즐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그래도 잘 해왔고, 해보니까 더 재밌었고 커서도 더 도움이 됐고. **그거를 단지 평등하게,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무기력한 애들한테도 그냥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거고, 그러면서 약간 인식도 변하면 좋죠. 애들이 그 여자답게 틀에 갇혀서 못하는 잃어버리는 사실 부분들이 많잖아요.**

(교사 이돌봄, 심층면담)

② 컨텐츠를 활용한 양성평등 수업 실천

양성평등 컨텐츠를 활용하는 체육 수업에서는 도서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수업이 운영되었다. 최근에는 SNS 영상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에 접근할 수 있다. 체육교사들은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여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탐색하였다.

혼성 수업 하면서 여자들도 항상 나는 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 여학생 체육 여학생 여자 스포츠 이런 책들을 좀 봤거든. 책들을 봤는데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여학생들의 스포츠를 독려할 만한 사례..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 그런 어떤 **성차별을 극복했던 사례를 내가 책을 통해서 접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고 이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했지.**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여자인데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흔히 **여자가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상이나 아니면 뭐 주로 영상으로 많이 했고 책도 소개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 스스로 그걸 의식해서 어떤 활동을 피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고..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이처럼 신체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서로 차별 없이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교육하였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자료의 활용은 과거 심각했던 성별 간 불평등 상황을 조명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었다. 사회에서 여성들이 신체활동 참여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왔음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의 불평등을 조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림 10. 보스턴 마라톤에서의 캐서린 스위처
(권시민 교사 수업활용 자료. 현지문서)

마라톤 경기가 남자 마라톤만 있고 여자들은 예전에 마라톤 경기 이런 거 달리기 이런 거를 참여할 수가 없었잖아,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여자들도 조금 이제 적극성을 뛰어야 된다. 스포츠 경기에 자꾸 참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바뀐다.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 마라톤 경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마라톤을 하면은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라는 어떤 그런 미신?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어떤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자들을 스포츠에 참가를 되게 많이 소외시켜왔는데 그런 거, 이제 보스톤 마라톤 이제 완주한 여자 있잖아,(잠시 확인 후) 이거였구나, 캐서린 스위처. 캐서린 스위처. **보스톤 마라톤을 이 여자가 처음 완주한 건 아닌데 그때 여자 금지됐는데 완주를 했어.**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또 이 여자가 완주를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 이게 1967년이네. 이 여자가 1967년에 보스톤 마라톤. 근데 이 여자가 언제 또 뛰었냐면 이 여자 때문에, 1972년부터 여성도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1984년에 여자 마라톤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어. **이 여자가 이제 뛸 때 경기 위원장이 이 여자 뛰고 있는데 나가라고 뛰어 들어와. 여자가 어디 지금 마라톤 뛰고 있냐고, 끌어내려고 하거든.** 막 이런 이런 사진들이 있어. 이런 사진들이 있어. 이거 보여?(사진 보여주며) 끌어내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했어.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예를 들면 테니스 선수들 남자 테니스와 여자 테니스의 상금이 다르다 이게 정당한지 그거에 대한 찬반의 입장도 다 나오고 막 엄청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던데 이제 **그런 장면 속에서 스포츠 국한해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약간 지식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장으로 쓸 수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이처럼 양성 평등 교육은 단순히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권력관계의 불평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한 모습을 조명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경우 사회 속에서의 비민주적인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에 성별에 관계 없이 사회 속에서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이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라)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체육수업

사회구성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지식의 실체가 우리가 속한 사회의 테두리와 공동체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강종구, 2009). 이는 지식이 개인이 가진 생각과 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구성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사회 속에서 개인의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을 존재하게 하는 사회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구성주의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속에서 상대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표면화하고 문제를 공론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곳곳에서 실천한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며 유명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스포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쟁 규탄, 성소수자 지지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육 수업 역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이슈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으며,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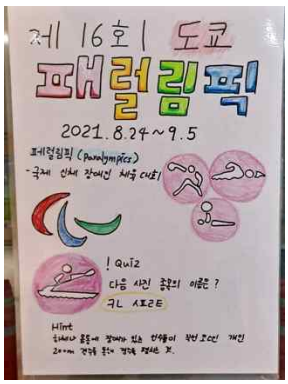
이처럼 체육수업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다루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다루는 것을 비판적 체육교육이라고 칭한다. 이와 관련된 주제 무척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앞선 절에서 설명한 남녀의 평등 수업부터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이해, 다문화 이해, 성 소수자에 대한 이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은 사회 통념에 의해 주제의 활용

에 제약을 받기도 하는데, 사회에서 절대적 선(善)에 가까운 이슈는 교육과정에서 다루 것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만. 찬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는 수업에서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다. 때문에 체육교사들은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장애인과 같이 사회 안에서 절대적 약자로 여겨지는 대상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었다.

① 패럴림픽을 활용한 장애인 체육수업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장애인 관련 수업 주제는 정식 올림픽과 함께 치뤄지는 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패럴림픽이었다.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큰 이벤트이며 여러 종목이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패럴림픽 대회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경기들이 일반 스포츠 경기 못지 않게 교육적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림 11. 패럴림픽 활용 수업자료 및 포스터



(김공감 교사, 현지 문서)

저는 주로 장애인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중략)그래서 장애인 스포츠 어떤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에서 감동적인 모습들, 우리가 그들이 장애인이지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배우고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영상들, 그 다음에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부터 패럴림픽이 굉장히 틀이 잡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여한 것들, (중략) **그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스포츠가 어떤 의미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장애인 올림픽 종목 같은 좀 소개하고 영상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패럴림픽은 일단 평가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과제를 주거든요. **마지막 과제는 패럴림픽 홍보 영상이나 패럴림픽 글귀 쓰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애들이 포스터 이런 걸 만들어서 학교에 붙이는 것까지가 최종이고요

(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패럴림픽의 소개를 통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상황 속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하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스포츠가 가진 가치들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며, 이미지나 포스터를 만드는 수업도 병행하였다.

② 장애인 스포츠 종목 체험 수업

장애인 스포츠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느낀 교사들은 수업 속에서 장애인 스포츠 종목을 실제로 체험해보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수업은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표면적 이해를 넘어, 스포츠 종목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봄으로써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 통합 체육 관점에서 **보치아 수업을, 정식 수업은 아니었지만 체험 활동 체험 수준으로 특수 선생님하고 같이 통합 학급에 있는 친구들하고 보치아 수업을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도 이제 그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좀 바뀌고 규칙이 좀 이렇게 보완되고 이 종목들도 생겨났다라는 것도 이제 좀 하고

그림 12. 홍사랑 교사의 골볼 수업 실천 사례

직접 경험하면서 이렇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한번 통합 보치아 수업을 통해서 한번 해봤고요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저희 지역에서도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로 보치아를 했어요. 작년에.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몇몇 전체 학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업을 같이 좀 실천을 해보자,**라고 했던 몇몇 학교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전체 운영 팀장이라서 그걸 들어서 그 친구들이 같이 시합을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하자, 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시범적으로 지역 스포츠클럽 축제로 대회를 열어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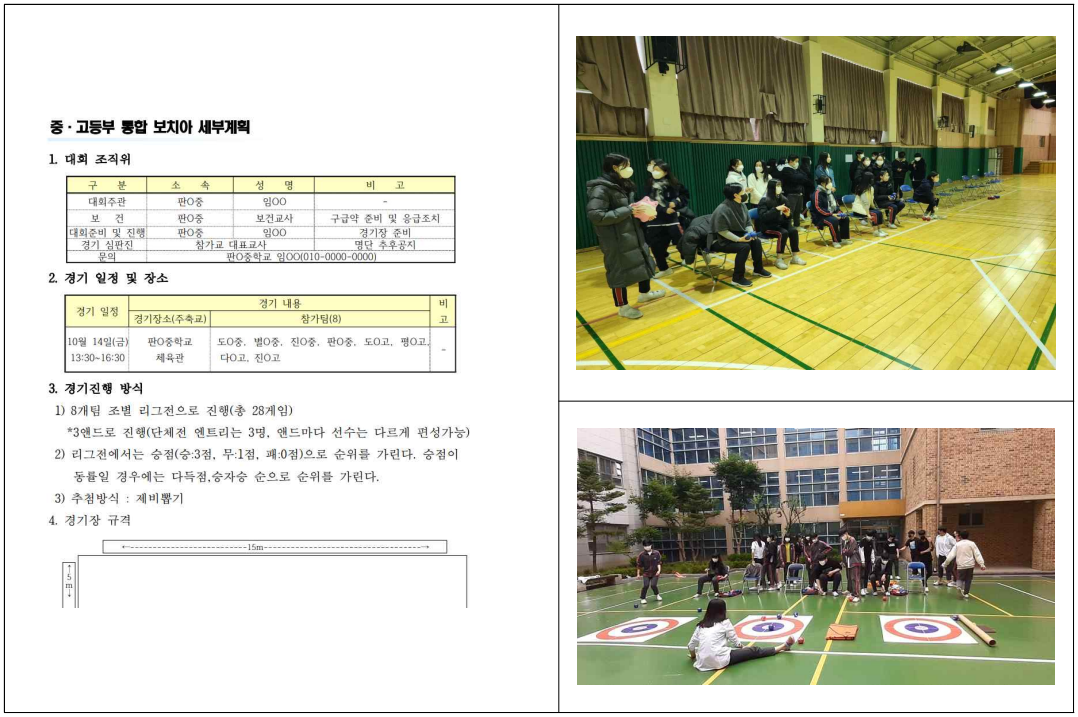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③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고민하는 수업

패럴림픽에 대한 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는 계기를 만든 후에는 그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이나 인식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 교육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수업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 방법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인식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인 관점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였다.

근데 그게 비단 올림픽으로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학생들한테 안내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는 어땠나,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패럴림픽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에 학생들이 제일 인상 깊었던 수업 내용 중에도 뽑고 하더라고요 패럴림픽을. 그래서 이제 매년 1학년 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하고 있거든요.

(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중·고등부 통합 보치아 세부계획

1. 대회 조직위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대회주관	판O중	임OO	-
보 건	판O중	보건교사	구급약 준비 및 응급조치
대회준비 및 진행	판O중	임OO	경기장 준비
경기 심판진	참가교 대표교사		명단 추후공지
문의	판O중학교 임OO(010-0000-0000)		

2. 경기 일정 및 장소

경기 일정	경기 내용		비고
	경기장소(주축교)	참가팀(8)	
10월 14일(금) 13:30~16:30	판O중학교 체육관	도O중, 별O중, 진O중, 판O중, 도O고, 평O고, 다O고, 진O고	-

3. 경기진행 방식

1) 8개팀 조별 리그전으로 진행(총 28게임)

*3앤드로 진행(단체전 엔트리는 3명, 앤드마다 선수는 다르게 편성가능)

2) 리그전에서는 승점(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순위를 가린다. 승점이 동률일 경우에는 다득점,승자승 순으로 순위를 가린다.

3) 추첨방식 : 제비뽑기

4. 경기장 규격

(체육교사 황존중, 현지문서)

그림 13. 보치아 종목의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및 체육수업 활용

아이들이 실제 눈 가리고 활동한 소감을 가지고 레포트, 내고 눈가리고 체험하는 동영상 제출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내용을 쓴 거 보면 아까 이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제 나도 쉽게 좌절하지 말고 끈기와 꾸준히 **꾸준한 노력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기보다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교사 홍사랑, 심층면담)

보치아 대회를 개최를 해주고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도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도 있었고 그 아이들한테 나중에 이제 소감 비슷하게 간단하게 구글 설문으로 받았는데 본인들도 느끼는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기존의 체육수업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체육교과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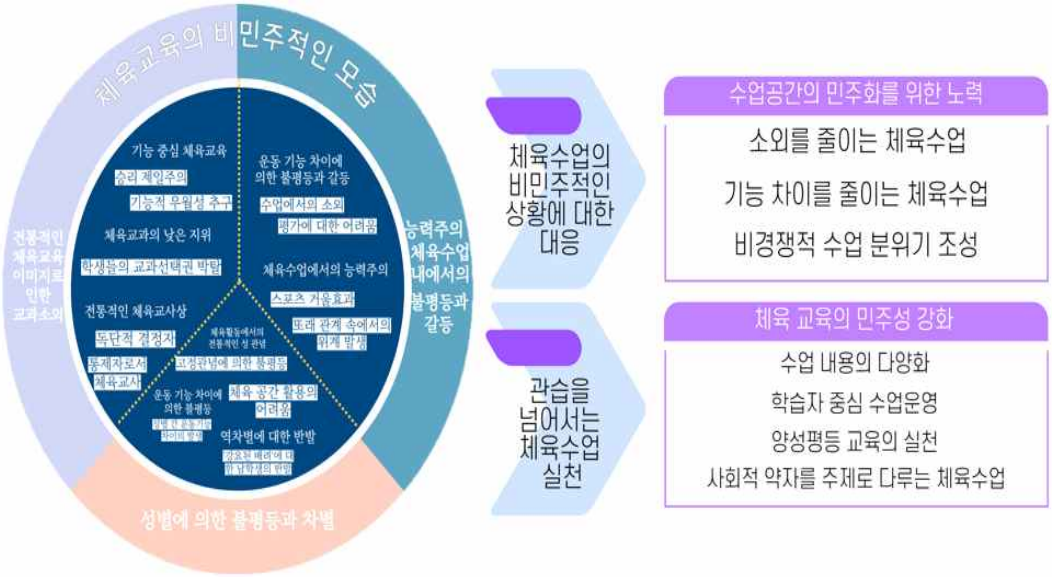


그림 14 체육교육의 비민주적인 상황과 대한 대처방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체육교육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어지는 것에는 다소 간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체육교육의 변화에 있어서 체육교사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나, 기존의 사회적 인식, 교과에 대한 편견 등이 여전히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2. 민주적 체육수업과 비판적 체육교육 실천 저해요인

체육교육에서의 비민주적 상황에서는 학교 체육 수업이라는 학급 단위의 그룹 활동에서 발견되는 차별과 권력의 불균형, 그리고 체육 교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로 인해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체육교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체육교사에게 기능 함양을 지향하는 기능적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면 현재의 체육교사는 체육 수업에서의 비민주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학생들 개개인의 민주성 함양을 교육하는 역할도

함께 부여받고 있다. Apple과 Beane(2007)은 민주주의가 인종주의, 집중된 권력과 같은 사회의 불평등한 상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양식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비민주적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체육교사가 민주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받아들여 수업에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체육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민주성 함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육에서 비민주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민주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체육수업의 실천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학생요인

1) 불평등 발생 원인

학생들에게는 서로 다른 성향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개인들의 성장 과정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차이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신체 활동과 같이 수행의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에서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지만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줄이고 평등함을 지향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체육교육은 스포츠에 기반을 두고 우월성을 겨루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에 체육교사는 이러한 수업 형태의 개선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다루었던 체육수업에서의 비민주적 상황에 대한 대응은 우월성을 겨루는 형태의 체육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학생들 사이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기에, 불평등이 존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동반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체육 수업 운영 방식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인도 분명 존재하지만, 차이의 존재를 인지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체육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가) 선행 경험의 차이

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행 경험의 차이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의 선호 정도에 의한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가정의 경제적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는 가정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좀 높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경험한 스포츠나 신체 활동 종류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득 수준이 좋은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경험한 어떤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학생들은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해서..**
>
>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 **선행 경험 차이 때문에 그게 그것 때문에 실력 차가 좀 생기고 그 실력 차가 안 나더라도 경험했냐 안 했냐만으로도 차이가 생겨서,** 수업 시작할 때 보면 난 체육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수업해보면 농구 좋아하는 축구 좋아하는 애,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농구 좋아하는 애들 중에도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있을 때 수업 내용 고민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는 평가 척도 안을 어떻게 짤까 자체가 고민 돼요
>
> (교사 박행복, 심층면담)

체육 교사가 학생들의 선행 경험이나 선호도의 차이에 의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존재함을 인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후에 수업 운영의 계획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선행 경험의 차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 관점에서 고려해 보면 학생 간의 운동 기능 차이를 가벼운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 권력관계

학생들은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속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아직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곳곳에서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체육 수업에서도 그러한 위력을 보여주고 싶어하기도 한다.

> **체육 외적인 어떤 기존에 형성돼 있던 아이들 간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런 위계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꼭 운동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얘가 좀 학급에서 보통 이제 학급끼리 수업을 같이 하니까 학급 안에서 **얘가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떤 수업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런 흔히 말하는 목소리가 큰 학생, 또는 이제 기가 센 학생, 이런 아이들이 좀 더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
>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 그 **또래 집단 내에서 약간 서열이 높은 애들이 그..런 상황들을 주도**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원초적으로 힘이나 여학생들은 그 안에 사회적인 서열, 약간 뭐 그런.. 힘이 꼭 세서가 아니라 말발이 세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
>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앞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경험 등의 요인으로 발생되는 운동기능 차이도 체육수업에서 위계를 형성하며, 이는 또 다른 권력 관계를 만들기도 했다.

> 외부에서 좀 개인적으로 내가 배운 종목이 수업 때, 어? 1학년에 우연치 않게 ○○고 1학년 수업 때 나왔다, **그러면 나는 이미 그거를 상당수 배우고 왔기 때문에 안 배운 친구들 운동 못하는 친구들과 격차는 이미 크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 수업 안에서 걔가 이제 좀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
> (교사 배정의, 심층면담)

체육수업에서 기능의 차이가 단지 운동 기능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권력관계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은 체육교사가 수업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체육수업은 결국 또 다른 비민주적인 상황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체육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은 개인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서로 간의 차이와 불평등을 겪게 된다. 학생들의 특성과 배경에 존재하는 다원적인 요인들은 학생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는 학생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되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부정적인 형태로 발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

2) 불평등 완화의 장해요인

가) 소극적인 자세

체육 교사는 체육수업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체육수업의 궁극적인 참여 주체이자 성장의 대상은 학생이다. 교사가 기존의 경쟁 중심 수업을 대신해 보편적 참여를 이끄는 체육수업을 설계하더라도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수업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기 어려워진다. 민주성을 함양하는 체육수업을 지향하는 체육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참여와 더불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그러한 변화를 부담스럽게 느껴 기존의 참여 방식을 고수하기도 한다.

> **여학생들의 그런 이미지도 체육 시간에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쟤네는 어차피 남자보다 못하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은 저렇게 뛰어놀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공기나 해야지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고 그런 이미지가 평소에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
> (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 아이들도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못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교사가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해서 그 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중략) 실제로 보면 그런 학생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적극 반영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좀 뭐랄까 소극적이다?**
>
>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체육 수업 상황에서 불평등과 소외를 경험하는 학생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장애인, 다문화 학생들이 더욱 불평등하고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받기 위해 부단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감정적 예민함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시기는 보통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부족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 중심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타인에 대한 경계와 배척의 감정이 더욱 심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향은 체육수업에서 더욱 심해지기도 한다.

학생들의 이런 예민한 감정 상태는 경쟁 지향적인 체육수업에서 더욱 잘 드러나게 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을 중요하지 않은 가치로 여기게 된다.

>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한참 사춘기 때,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아까 얘기했던 가정에서 그렇게, 또 메스컴이나 이런 데서 그런 영향도 미쳤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이런 시기적으로도 **타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자기 중심 사고를 할 때가 지금 이런 사춘기 때잖아?** 그런 게 또 유독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
> (교사 한우리, 심층면담)

학생들의 예민한 감정상태는 비단 학생들 상호간의 갈등과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다.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고자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여 수업 주제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체육교사가 좌절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 여기 이런 임금 차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보지 말고 여자 선수로서의 어려움 점들? 그런 걸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영상을 틀었음에도 **난리가 나서 앞으로는 김연경을 보지 않겠다고, 김연경이 나오면 TV를 꺼버리겠다는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학생들이**.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뒤로는 제가 그런 주제를 자주 다루지는 않게 되었어요
>
> (교사 이돌봄, 심층면담)

나. 교사 요인

1) 민주적 체육수업에 대한 낮은 필요성

가) 체육수업의 고착화

체육 교사들은 수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그 목표 설정의 방향은 교사마다 다르다.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도 하며, 체력 향상을 목표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체육교사도 있다. 최근에는 체육교육에 소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수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체육수업은 경쟁 지향적이며 소수의 학생들이 '영웅'이 되며, 승자가 많은 것을 독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체육교사 중에서도 체육수업 시간 안에서는 운동 기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적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많은 통제를 가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다.

수업에서 하는 활동 자체들을 운동 잘하는 애들이 막 활개치지 못하는 구조로 많이 해보려고도 했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막 그냥 뭐 싸움 잘해가지고 나대는 애들 말고, 그냥 운동을 잘해서 체육 시간이 더 돋보이고.. 이렇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운동하는 애들도 있어서 그런 애들은 또 이 수업 시간에서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평소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활동 참여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효능감을 높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교과가 가질 수 없는 체육수업만의 장점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체육수업에서 차별적인 상황이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학생들 사이에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위계가 형성되는 것을 체육교사가 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평가 계획을 수립에 있어서 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소외를 경험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것 역시 비슷한 형태의 차별로 볼 수 있다. 평가는 학생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단계를 설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향상도를 평가하는 등의 적절한 방식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애들 중에도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있을 때 수업 내용 고민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는 평가 척도 안을 어떻게 짤까 자체가 고민이돼요. **이게 어찌 됐건 우리가 기준을 딱 잡아야 되는데.. 만점을 100점으로 봤을 때, 대부분 중간이상, 한 70점대를 기준으로 놓고 평가 기준으로 잡거나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데** 그 밑에 애들은 사실상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교사 박행복, 심층면담)

체육 교사는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로써, 일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위계 발생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업 운영과 평가 계획 수립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기존의 수업 운영 방식을 고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상황에 있어도 좀 **그 상황에서 뭐가 잘못된 걸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이상한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날카롭게 짚어내는 성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민주적인 체육수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체육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리한 시각과 비판적 능력을 갖추며, 그러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기

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불평등으로 인한 소외 상황은 체육교사가 빈번하게 겪게 되지만 수업에서 장애인, 다문화 학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특별한 상황에서 마주하게 된다. 체육교사들은 그러한 문제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저희도 지금 많이 다문화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다문화인 사람들을 특정 지역이 아니면은 저도 거의 접해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
>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라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해 있을 경우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사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교육 주제를 선정 했을 때 교사의 교육적 의도가 해당 학생에게는 다른 의도로 비춰져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우려했으며, 한편으로는 일반 학생들에게 또 다른 색안경을 씌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 저는 항상 **체육 수업 중에 괜히 그 얘기를 이야기를 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그런 색 안경을 씌우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반에도 제가 가르치는 반에도 중국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인 학생도 본인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거를 드러내기 부담스러워하고 사실 그런 애도 당연히 당연히 중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당연히 이해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같이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되지만, **그 학생마저도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 그거를 굳이 이끌어내서 우리 체육 수업 때도 그런 거 하지 말**

자,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부담이 조금 교사들이 있지 않나.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내가 수업의 이런 주제로 활용을 했을 때, 주제에 적용을 했을 때 혹여라도 그 친구에게 잘못 좀 전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좀 불편하게 좀 드러내는 또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2)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 전문성 부족

가) 비판적 체육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체육교육 분야에 비판적 체육교육 개념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현재 체육 실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체육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론의 등장 시기는 상당히 오래 되었지만 체육교육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체육교사들에게 비판적 접근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이 갖는 급진적이고, 사회 개혁적인 성격에 의해 현실적인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최의창, 2009) 국내에 이 개념에 대한 소개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도 기존에 비판적 페다고지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사회 부조리라는 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되게 거대한 것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실체가 뭔지 잘 몰라요. 체육 선생님들은 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일단은 특별한 이유는,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체육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비판적 체육 교육 자체가 익숙하지 않지.**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적용이 지금까지 안 되었던 이유는 **사실 이런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고** 사실 체육 교육 자체도 많이 변화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되게 구세대적인 체육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저조차도 이런 주제에 대한 명확한 저만의 어떤 확실한 뚜렷한 가치관이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도 섣불리 다루기가 힘든 것 같아요.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비판적 페다고지가 갖는 급진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 개념과 관련된 교사 연수 또한 여전히 부족하다. 많은 체육교사들은 체육 수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소외 현상을 단순히 수업 운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수업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고민하였다. 학생들 사이의 소외와 불평등,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이슈들과 연관 지어 고민해보는 비판적 교육과의 접목 과정은 여전히 불필요한 과정으로 여겨졌다. 체육교육이 기능 함양 이외에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페다고지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며, 이를 체육수업에서 다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체육교사들은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을 위해서 무엇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 만큼이나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러한 교수 능력의 함양을 돕는 제도적 뒷받침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비판적 체육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힐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비판적 주제 선정의 어려움

비판적 페다고지는 권력 관계에 의해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중심 주제로 두기 때문에 그 대상이 광범위하다. 범위를 좁혔을 경우 체육수업에서 낮은 운동 기능으로 인해 소외되는 학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일상적으로 어렵지 않게 마주하는 장애인이나 다문화, 다인종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대한 문제도 교육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찬반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성 소수자 역시 비판적 체육교육의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주제들 중에서 체육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체육교사들은 사회적 통념에 의해 찬반 논란이 있는 이슈들을 수업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 **사회 문제에서 찬반 논란을 많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은 다루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찬반 논란을 다루는 건 좀 가지고 오기 힘들었고, 그렇지 않은데 **누구나 다 이거에는 동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만 좀 가져 와가지고 뭐, 소개를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져오지 못하겠더라고. 그건 좀 부담스럽잖아
>
>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이거를 얘기했을 때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
> (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또한 사회적으로 급진적인 이슈로 여겨지는 주제를 수업에서 활용할 경우 체육교사 본인이 학생이나 동료 교사로부터 불필요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우려되어 주제 범위를 절대적 선(善)에 가까운 주제로 한정해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 예를 들어 성소수자 교육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 소수자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개인의 권리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 얘기를 뭔가 제가 학생들한테 하면 학생들이 나를 성소주자로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큰 거죠.**
>
>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그렇다면 비판적 체육교육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제를 다양화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를 꼽았다. 다소 급진적인 견해를 주장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의견과 관

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수업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다수가 지향하는 것을 옳은 방향으로규정하고 따르는 문화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은 '잘못된 의견'으로 인식하여 논의 대상으로 조차 고려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실 세계에서 점점 가시화 되어 다가오고 있는 다양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외면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수적인 사회적 시선은 학생들에게도 이미 교육되어 있으며 다양성을 지향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학생들도 교육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눈치를 살펴야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두려움이죠. 애들의 그런 눈치.** 애들이 요즘에 다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이런 거 왜 해요? 이러는거
>
> (교사 배정의, 심층면담)

건강한 인간의 삶을 지향하고자 체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체육교사의 교육적 철학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인간의 질병과 직접 연관된 환경오염, 그리고 자본의 양극화에 의한 심각한 위기에 관한 일반 대중들의 문화적 운동에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체육교사들이 건강 중심 학교체육만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최의창, 1996)이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주제를 다양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비판적 체육수업 실행의 어려움

비판적 체육교육은 운동 기능을 함양하는 기존의 체육수업과 달리 사회적 맥락에서 학교체육의 역할을 탐구하고 교육을 실천하는 각자의 삶에 대한 이해도 동반되어야 한다(박정준, 최의창, 2010). 정현우(2015)는 예비체육교사교육을 통한 비판적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탐구중심 예비체육교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적 본

질과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으로는 마이크로티칭, 토론중심의 수업, 비판적 읽기 자료와 비판적 글쓰기, 다양한 교재의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현직 교사들은 이러한 방식의 교사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체육교사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교육 받지 못한 방식의 체육수업을 수업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난해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사실 가장 어려운 거는, 내가 그렇게 안 해봤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내가 그런 경험을, 그런 수업을 안 받았고, 일제식 경험 수업을, 그리고 훈련만 받아오고 이랬으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
> (교사 배정의, 심층면담)

비판적 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토론은 서로 간의 상반된 견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수업 방식이다. 비판적 교육은 반드시 '옳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판단 근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동반되기에, 서로 다른 의견이 양립하게 될 수도 있다. 정현우(2015)는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비판적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토론 중심의 수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한 수업을 주로 받아 온 체육수업에서 토론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매우 생소한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체육수업에서 사회 비판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다.

> 나도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고에서 토론을 막 하는 거야 **근데 토론하는 방식을 내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 너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랑 내가 머릿 속에 있는 거랑 다를 수도 있지만 나는 머릿속으로는 이 문제를 던지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
>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체육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설계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며, 설계의 과정에는 체육교사가 경험한 체육수업과 교육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스며들어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체육교사들은 다양성 보다는 획일성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교육 환경에서 체육수업을 받고 성장했으며, 교사 교육 단계에서도 비판적 수업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이 같은 환경에서 체육수업을 경험한 교사들이 운영하는 체육수업 역시도 비판적 교육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체육 수업 안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소외와 같은 비민주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민감성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수업의 질은 교사가 가진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기에 민주적인 체육수업 운영과 사회 속 약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의 민주적 역량을 함양함과 동시에 그것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성 계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환경 요인

1) 체육 교과에 가해지는 제약

가) 체육교과에 대한 편협한 인식

체육교과가 어떠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과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시대에 따라 그 답변도 크게 달라진다. 그 변화는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발췌된 내용은 1992년 6차 교육과정에 설명된 체육교과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다.

> 체육은 잠재된 신체적 능력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운동 욕구를 실현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신체 활동에 관한 교과이다. 따라서 체육은 신체 활동을 통하여 운동능력을 개발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체육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교과이다.(교육부, 1992)

이는 최근 발표된 2022 개정교육과정 문서에서 나타난 체육교과의 성격과 큰 차이를 보인다.

> 체육과는 신체활동의 학습을 통해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과이다.(교육부, 2022)

지난 30년 간 체육교과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교육적 목적은 큰 변화를 겪어왔다. 6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듯 과거의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운동능력을 개발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면, 현재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의 학습을 통해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자질을 기르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추어 체육교과 그 성격이 변화해 왔으며, 많은 체육교사들도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체육 수업은 도구일 뿐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한테 다른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데 그게 결국 이 삶을 살아가는 잣대나 그게 생활의 기술이지 않을까** 삶의 기술 그런 것들을 체육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냐.
>
> (교사 한우리, 심층면담)

인식의 변화를 위한 내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교과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체육교과는 여전히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며, 그 이외에 얻게 되는 가치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나마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인 창의·인성 함양에 있어서 체육교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어 다소간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체육교과만이 활용하는 신체활동이라는 요소로 인해 그 이외의 활동에 대해 보이지 않는 제약을 받고 있다.

체육교과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이미지는 체육교사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통해 비판적인 체육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체육교과는 신체활동만 가르치면 되는 교과이며,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교과의 역할'을 벗어나는 월권이라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거를 이제 체육교과에서 직접 다룬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전체적인 교사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나, **학교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좀 '이게 너무간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예전에 한참 인성 교육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수업시간에 어떤 애들한테 '수업 오늘 이거 요거 요거 할거야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를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교원 능력 평가 이렇게 하잖아. 그 서술형에다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 '체육 수업은 도덕 수업이 아니에요'라고 썼더라고**.

(교사 한우리, 심층면담)

그래서 조금 나름 다양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만연돼 있는 문화는 '운동이나 잘 가리켜' 약간 그런 것 같아.** 팝스 열심히 해서 아이들 측정 정확하게 하고, 나이스에 잘 올려놓고 학교 스포츠 클럽 이렇게 해서 애들 운동하게 시켜, 이런 것 같아요.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나) 신체활동 시간의 부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에 따르면 중학교 3년 동안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시수는 총 3,366시간이고, 그 중 신체 활동과 관련 교과로 배정된 시수는 체육교과(군) 272시간, 스포츠클럽 102시간이다. 1주일 동안의 학교 수업을 약 30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3시간 정도가 배정되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3년 간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총 192학점이고 그 중 체육교과군의 필수 이수학점은 10학점으로 학생들에게는 1주일에 2시간 보다도 적은 신체활동 시간이 주어진다(교육부, 2022).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 이수 학점에 체육교과군의 교과를 배정하여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선택적으로 늘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체육교과를 선택과목에 배정하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학교 정과수업 시간 이외에도 자율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선호에 따라 참여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며, 만약 참여하게 되더라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학생들은 정해진 학교 체육수업 시간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신체활동을 누리고자 하며, 이러한

모습은 참여형 신체활동 이외의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 요즘 애들은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왜 이런 거 왜 해요. 나가서 운동하기도 바쁜데 이런 거 왜 해요.'**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잠재우고 정말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 있죠
>
> (교사 배정의, 심층면담)

> 아이들의 시선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시선 눈치를 보는 거는 아이들은 **어찌 됐든 계속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 시간에 몸을 움직이지 않는 다른 활동, 이해하는 활동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눈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 (교사 배정의, 심층면담)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부족의 문제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신체활동 부족 현상이 학생들의 노력에 의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기도 했다.

> 제가 우리나라 우리 청소년들의 체육 수업 실습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주당 2시간 만족하냐, 물론 갈려요. 당연히 생각 갈리고 하지만 그럴 때 sedentary life style, 좌식 생활이 갖고 있는 어떤 건강의 위협 너희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좋지 않다.**
>
>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2)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한 제약

가) 보수적인 문화

보수적인 사회 문화는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받아들이고 융화되는 것

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서구 사회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의견을 나누는 것에 개방적인 것과 달리, 비교적 보수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양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체육 교사들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외국에 비해서는 좀 보수적이지 않나 싶어요.** 좀 유교주의적인 그런 면도 아직까지도 많고..
>
>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유교 문화, 조금 보수적인 문화들이 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대놓고 조금 표현하기가.. 요즘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나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조금 안 되었던 것 같은데**?
>
>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황을 실제로 겪고 있는 지역은 극소수이며,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착각 **단일 민족이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아무래도 우리도 막 동남아 사람들이나 중국인들 이런 거 보면 약간 비하하는 문화가 있잖아. 비하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
>
>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타 문화에 대한 배척은 새로운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문제임에도, 보수적인 사회 문화는 체육수업에서 사회 비판적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된다.

>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뭔가 다른 거를 별로 용인하지 않는,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중략) 저희도 지금 많이 다문화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

는데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다문화인 사람들을 특정 지역이 아니면은 저도 거의 접해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별로 다름에 별로 포용적이지 않은 사회인 것 같아요.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나) 갈등과 혐오 사회

특정 이슈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보수적이며 타 문화를 배척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이다. 보수적인 문화는 단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며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갈등상황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내'가 가진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가진 특성과 다른 것을 혐오하여 배척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직접적인 갈등 상황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 일부 여성 체육교사들은 성별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수업할 경우 성별 간의 갈등 촉매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별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여기 이런 임금 차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보지 말고 여자 선수로서의 어려움 점들? 그런 걸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영상을 틀었음에도 난리가 나서 앞으로는 김연경을 보지 않겠다고, 김연경이 나오면 TV를 꺼버리겠다는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에요**, 학생들이. (중략)언급을 이제는 할 수 없는 여자 선생님으로서는 그런 걸 언급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교사 이돌봄, 심층면담)

이러한 경험은 여성 체육교사들은 성별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에 더욱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에 활용한 주제를 문제 삼아 공개적으로 항의를 경우도 있었다. 관련 주제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거나,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새롭게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좀 다뤄 보고싶은 생각은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망설이게 되는 부분은 이제 성소수자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교사의 어떤 좋은 의도대로 아이들과 학부모**

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느껴져서.. 왜냐하면 민원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저희 학교가 민원이 되게 많은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진짜 섣불리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괜히 안 가르치게 되고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권한 보장?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학교에 민원 전화를 받고 하는 경우를 봐서요.**

(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체육교사가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 마저 이해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다양성을 지향하는 수업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체육교사는 새로운 이슈를 향한 도전적인 마음 보다는, 학부모와 학생과의 갈등을 회피하는 마음을 더 우선적으로 갖게 되었다.

3.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의 자질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구분하는 다양한 접근들 중 하나인 비판적 접근은 사회정의를 위해 사회 불평등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며, 학생들이 민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Kirk, 1986; Tinning, 1991). Kirk(2010)는 체육교육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운동기능과 경쟁 중심의 수업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교육이 비판적 안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실천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판적 체육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성도 필요하며, 체육교과가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파악하여 수업 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하윤수(2007)는 기존에 존재했던 시민성의 개념을 비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민주시민성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양면적 과제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을 체육교과에 대입해보면, 체육교사는 기존의 체육수업에서 생각하는 시민성의 개념(교사의 지도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 공정한 경쟁, 능력주의에 대한 수긍)을 비판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새로운 민주시민성(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민감성, 탈 자기중심,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체육 교육의 재개념화된 목표를 수업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에게도 새로운 자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수업 안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지양하며 스포츠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능력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교사 개인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 대신에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과 생각을 존중하고 선(善)에 가까운 것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포용할 수 있도록 수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새로운 역량이자 소양이 될 수 있다.

가. 민주적 체육수업을 실행하는 체육교사

비판적 페다고지의 실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가치들 중 교실 공간의 민주화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장용규, 김동식, 2016). 체육교사는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기 앞서 수업공간에서의 민주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평등한 체육수업을 실행할 수 있는 체육교사의 자질은 비판적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체육교사의 기본 자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체육교사가 수업의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며,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을 관리·감독하며 피드백을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수업의 내용을 잘 습득했는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역량이 체육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체육교사 전

문성에 대한 인식은 교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최의창(2010)은 체육교사 전문성에 대하여 체육을 잘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것이며, 기법적 자질과 심법적 자질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기법적 자질이란 체육교과의 내용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심법적 자질이란 학생의 심성적인 측면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자질을 균형적으로 함양하는 것은 운동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춤과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최의창(2014)은 교수방법의 심법적 차원에 관련된 마음의 영역을 지성, 감성, 덕성, 영성의 4가지로 압축했는데, 이 중에 감성은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정서 지능과 유사한 개념이며, 덕성은 부드러운 덕성 요소(배려, 존중)로부터 견고한 덕성 요소(정의, 용기)에 걸쳐진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평등한 체육수업을 실행하는 체육교사는 기법적 자질 뿐만 아니라 심법적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감성과 덕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체육교사는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문서를 토대로 수업을 구성하는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이기도 하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있다. 체육교사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구체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이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1) 평등을 지향하는 체육수업 운영자

가) 학생들의 감정 이해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소외의 문제는 대체로 미묘한 감정 다툼과 같은 사소한 상황으로부터 시작된다. 체육 수업에서의 갈등과 소외의 문제 역시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감정적 문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체육 수업 밖에서 발생한 갈등이 수업 시간으

로 번져 오는 경우도 많다.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에서 모든 감정적 문제들을 읽어내는 것을 힘들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수업 진행에 고려를 하는 것 만으로도 비민주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좀 **체육 수업 시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좀 다양한 아이들 간의 관계나 그런 상호작용 이런 거에 조금 더 교사가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수업 상황 내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하게 될 텐데,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이고 이런 모습이 수업 상황 내에서도 얼마든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 곳에서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수업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없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 특성 한 명 한 명이랑, 이 아이들의 관계를 수업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
>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체육 교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상호작용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때로는 동료 교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호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심한 노력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체육수업에 다가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사들 간에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담임 교사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는 전 학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동료 체육교사나, 아니면 지금 같이 수업을 하는 동료 체육 교사들에게 **이 아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또 다른 수업이나 교실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교사들끼리 소통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
>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학생들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기에 체육교사만의 자질으로 생각하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교과에 비해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체육수업의 특성으로 인해 그만큼 감정적 문제도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체육 수업 안에

서 갈등과 소외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의 감정을 살피는 세심함은 체육교사의 중요한 자질으로 볼 수 있다.

나) 공감과 이해

공감과 이해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여겨진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미래사회에서 공감 능력은 곧 인간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도 공감 능력을 핵심적인 교육 역량으로 나타내고 있다.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언어·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들 상호 간에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체육교과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에, 교사와 학생들이 경험하는 이해와 공감이 갖는 의미를 수업에 녹여내는 것이야 말로 미래 체육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점이다(최정호, 2018). 이러한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는 본인 스스로도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수업 안에서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함양하는 체육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공감 능력은 평등을 지향하는 체육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불평등과 차별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그 문제의 깊이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 학생들 간의 불평등, 차별과 같은 문제는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보다는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공감을 통해 권력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최정호, 2018), 부족한 참여도로 인해 소외되는 학생들의 아픔을 이해하여 수업에 더불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감 능력 공감 역량? 공감 능력이나 공감 역량 같은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사도 학생도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감하고 수용하고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사실 교사도 내가 이렇게 가르쳤을 때 가르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다른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더라도 그런 것까지도 그런 학생들의 마음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하는 역량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불평등 차별 이런 게 결국은 나랑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못하는 애가 있으면은 쟤는 왜 저렇게 못하게 됐는지를 안다면, 그래도 그렇게 가혹하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체육교사도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소외된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을 대변까지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게끔 체육 수업에 참여시킨다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 비단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안에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용기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교사들은 수업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수업을 설계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각자의 역할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고충을 경험하는 것이 좋은 공감 교육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방식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었다.

역할 나누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되는게.. 그러니까.. **공감? 공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공감이 되질 않는 의사소통은 가식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감이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 같아**. (중략) 역량을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 다른 역량이랑도 연결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런 공감력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 것 같고,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교사 박행복, 심층면담)

타인에 대한 공감 교육이 반드시 체육 수업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체육교과만이 가진 풍부한 상호작용, 그리고 실제 삶과의 연계성은 공감 교육 실천에 있어서 다른 교과에 비해 체육교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체육 수업을 하면서 모두가 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부분을 고민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한 팀으로, 그리고 한 결과를 같이 내면서 존중하고 화합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쟤는 나랑 다르지만 똑같은 한 존재이고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배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아무래도 교과 자체가 특성상 좀 **다양한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해주잖아요. 사회의 축소판처럼 진짜 갈등도 있고, 의사소통도 있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교과적인 **지식도 전달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삶과 관련된 가치를 전달할 때는 정말 체육 수업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체육수업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축소판'인 체육 수업을 운영하는 체육교사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르고자 교육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질은 평등한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체육교사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과정 실행자로서의 자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도입 부분에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성의 방향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다. 이 항목에 포함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에는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래로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는데 '인격의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있다. 이처럼 교육 목적에 나타낸 내용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우리 교육의 오랜 핵심 가치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민주성 함양을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며, 교사들 역시 자신의 교과 수업에 민주성과 관련된 내용을 녹여내는 방법에 대해 추상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체육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개념화 하여 수업에 반영하는 핵심 주체로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교사들이 민주성의 함양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 문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교육 목적'과 '교육 이념'은 같은 문서 하위 항목에 나타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통해 구체화 된다. 이 중 핵심 역량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함양해야 하는 역량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표 11> 에 나타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문서가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체육교사는 학생들의 민주성 함양을 위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그러한 역량을 우선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표 11 . 2022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교사들한테도 요구되고 일반 어른, 성인한테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역량을 잡았을 거에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보자면 모든 교사가 우수한 교사가 되려면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다 갖춘 선생님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교사 박행복, 심층면담)

교육과정에 나타난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은 개인의 발전을 넘어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 역량이다. 이러한 역량들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체육교사에게 있어서도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평등한 체육수업을 만들어 데 있어서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이야기하는 관련된 역량들을 따지자면은, 공동체 역량이랑 그리고 협업적 소통 의사소통 역량인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려면 교사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거지.**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다만 이러한 역량들은 교사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다. 체육교사들의 단기간의 노력보다는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나 연구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함으로써 역량을 함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어렵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교사가 어떻게 해야되냐 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만 계속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사도 실제로 동호회 활동도 좀 하고, 일상적인 생활들을, 그 나라의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려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사 박행복, 심층면담)

나.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전문성

기존의 체육교육접근 이론은 대체로 학생 개인적 발달만을 강조함으로써 권력 집단이 현존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최의창, 1992). 교육 활동을 실천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기존의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을 답습하고 수행하게 된다. 최근 체육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인성교육 담론 역시 신자유주의 논리에 오염되어 있다고 보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정현우, 박용남, 이기대, 2015). 반면 비판적 체육교육은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을 기반으로 학교 체육교육에서의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민주 사회 실현을 지향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 그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희망한다.

비판적 페다고지가 가진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비판적 사고와 실천의 연계에 있다. 비판적 페다고지의 핵심 개념은 비판적 의식과 실천의 연계를 뜻하는 프락시스(praxis)로 규정하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분석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정소민 등, 2015). 비판적 사고와 개인적 사유를 통해 개인적 이론을 형성한 후, 의도성을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정택과 장용규(2017)은 도덕적 앎(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덕윤리라고 주장했는데. 덕윤리는 ‘법칙적 윤리’ 개념이 아닌 도덕적 행위의 ‘내면적 동기화’를 통한 실천을 강조한다. 결국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사회에서 제시하는 것 보다는 개인의 사고를 통해 내면화된 윤리 기준에 의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상적인 실천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비판적 체육교육은 기존의 사회 체제가 가진 문제를 개인의 윤리적 준거에 의해 판단하며, 이를 내재화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현우(2015)는 비판적 전문성을 위한 예비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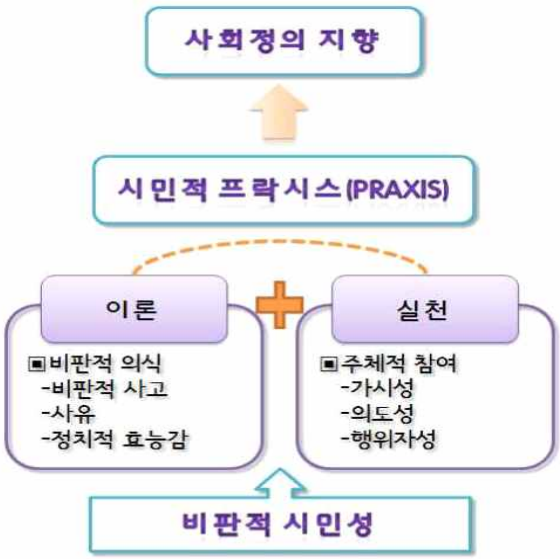


그림 15. 시민적 프락시스 개념. (정소민 등, 2015)

교사의 4가지 역량으로 비판적 반성, 사회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 실천성을 비판적을 꼽았다. 이 중 비판적 반성, 사회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의 세 가지 역량을 통해 기존 사회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적 윤리의식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실천으로 연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체육교사는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이처럼 비판적 체육교육이 기존의 체육교육방법 접근들과 구분되는 큰 특징 두 가지는 사회에서의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교육한다는 점, 그리고 이론과 사회적 실천이 결합되는 접근이라는 점이며, 비판적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또한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들이 올바른 비판 의식을 갖추고 이를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전문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비판적 체육교육의 관심

가) 사회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

학생들이 사회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들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 체제 유지의 목적이 짙은 과거의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들은 교수 내용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기에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과정이다. 때문에 체육교사가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학습을 통해 철학과 지식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육교사는 학생들이 자주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판단하는 교육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

> 교사들이 너무 체육 수업 체육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 더 넓게, 이 **체육이라는 것도 학교 교육의 하나이고 학교 교육은 정말 건강한 민주시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교사들은 좀 더 브로드하게, 넓게. 어떤 정치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읽고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든 어떤 뉴스를 통해서든 어떤 많은 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들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떤 균형된 의식, 글로벌한 시각,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를 키우는 과정에서도..체육교육학과라고 해서 맨날 체육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할 것 같아요.
>
>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 체육 교사 자체가 좀 민주적인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런 비민주적인 상황들을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좀 이렇게 느끼면서, 막 둔감하게 이건 괜찮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수업 중에서도 분명히 비민주적인데 이건 민주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체육 교사가 먼저 민주적인 그런 사고?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거..**
>
>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 교사는 나름대로 어떤 철학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어떤 역사와 사회 어떤 정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좀 두터운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냥 운동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거죠.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수업에 관한 것들만 하고 연수도 수업에 관한 것들만 듣는데, **좀 더 사회나 도덕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서, 다양하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학생들도 좀 따라오겠다. 좀 더 멋있는 교사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육교사는 우리 주변에서 잠재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향후 비판적 체육교육과의 연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어떤 문제를 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결국 비판적 사고 능력일 것 같긴 한데..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보고, (중략)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당연한 거를 진짜 그런지 계속 의심해보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외에 다른 입장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려는 노력을 해야될거고..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지금 교사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 교육 과정을 체육 수업을 하려면 하고자 한다면 **내 삶이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 그러려면 사회생활에 관심도 좀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뉴스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알려고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그냥 체육 실기 어떤 스포츠 안에서만 뭔가를 찾으려면은 찾는다고 하면 비판적 교육과정을 아이들이랑 수업하는데 너무 부분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박행복, 심층면담)

나) 개방성

비판적 체육교육은 기존 체육교육 분야에서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주제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자주 사용하지 않던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체육교사들은 새롭고 낯선 주제를 접하게 될 때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며, 교육의 주제로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 비판적 교육을 실천하는 사례를 접하며 이러한 개방성은 비판적 체육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 활동의 방법을 체육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교과에서 스포츠를 주제로 토의 토론하시는 분들도 그런 주제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체육만 놓고 보자면 이제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지금 융합 수업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도 체육과 선생님들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교과 선생님이랑 토론도 좀 하고, 토론이 부담스러우면 가서 듣기라도 좀 하고**(웃음)

(교사 박행복, 심층면담)

일단 **교사 스스로가 좀 먼저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아이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얘는 이렇구나라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랑, 그다음에 **한 명 한 명 존중해 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사 유포용, 심층면담)

비판적 교육은 기존의 체육교육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체육교사들에게 있어서 낯설고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체육교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육교육의 모습을 고수하기 보다는 새로운 이슈를 받아들이며 교육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할 것이다.

2) 비판적 체육교육의 의미 내재화

가) 학습과 반성적 성찰

정현우(2015)는 연구에서 비판적 전문성을 반성적 전문성의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비판적 교육의 반성적 전문성의 수준을 세 단계로 구분한 Van Manen(1977)의 반성 수준 개념을 인용하여 비판적 교육이 기술적 수준, 해석적 수준을 넘어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비판적 수준까지 이르게 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체육교사가 반성적 전문성을 비판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게 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판적 체육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례가 많이 없을 거잖아, 아직까진. (중략) 왜냐면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상황이 외국에서는 많이 발생을 지금 했고, 걔네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해 주고 **외국의 사례를 소개 해주고 체육 교사들이 그거를 조금 사례를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대응하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 정서에 맞게 수정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지.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반성적 성찰은 새로운 학습의 결과를 내면화 시키는 과정이다. 사회적 이슈들은 대체로 '나', 혹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은 일들이 많기에, 그러한 문제들을 '나'와 '우리'의 문제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감 과정을 통해 내재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하는 '사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가 좀 이런 주제들이 스포츠와 좀 맞닿아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관심 갖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또 스스로 공부도 하고 좀 많이 그리고 스스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교사 스스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끌어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비판적 사고는 바쁠 때 안 나와요.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책 읽으면서 갑자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라요. 여유가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시간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사회 문제도 바라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사 홍사랑, 심층면담)

나) 비판적 체육교육의 가치 이해

① 비판적 체육교육의 목표의 이해

체육교사가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체육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내재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육수업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조명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일회성 수업에 그치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체육교사는 비판적 체육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평등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라는 목표(장용규 등, 2016)를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체육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체육교과를 통해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며,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 후에도 차별 없이 상호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다. 체육교사들은 체육수업에서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공존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공존이지 공존. 같이 살아야 돼요. 인생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더불어 살고 이제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이 **스포츠도 같이 스포츠를 누려야 되잖아. 스포츠가 하나의 복지잖아요. 스포츠가 이제는 복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차별 없이 그런 거를 누려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거를, 이 좋은 거를 같이 누릴 수 있게** 어느 성별이나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이런 좋은 스포츠를 뭔가 독점하거나 하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를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 같이 스포츠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웃음)
>
>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 그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이 사회를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고, 나와 동일한 똑같은 인격체로서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 가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멋있고 놀라운 모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이 배워야 된다 일방적으로 내가 뭘 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만의 그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얻을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우리가 본받을 게 있다.**
>
>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② 체육교육의 사회 비판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

체육교사는 비판적 교육의 가치의 목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비판적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서 체육교과가 가지고 있는 사회 비판적 가능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체육교과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 자질이 필요하다.

비판적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체육교과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체육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제의 활용에 있다. 엘리트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 영역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상황은 사회에서 권력관계와 능력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여러 가지로 사회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게 새로운 이런 이슈들도 스포츠 현장에 이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팀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배우게 하려고 노력하듯이 이런 **새로운 어떤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체육 교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 (교사 이해결, 심층면담)

> 스쿨트렌드에서 ○○형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들었던 건데 **우리는 진짜 가만히 있어도 콘텐츠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짚어보고 읽어주고 아이들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수업 콘텐츠들이 자꾸 생겨날 수 있는 교과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적합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또한 체육교과에서 경험하는 공동체 활동과 의사소통 방식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 돌아보면 **체육 만큼, 체육 수업만큼 아이들이 실제 민주주의를 경험시킬 수 있는 과목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하거든요.**
>
> (교사 임평등, 심층면담)

> 다른 교과에 비하면 수학을 왜 못해 이런 거보다 체육은 못하는 게 더 드러나니까 좀 더 설명해 주기 이해시키기 좋다 이해시키기 쉽다는거요. 결국에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 이런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교육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보다는 체육교과가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
> (교사 배정의, 심층면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다는거? 그러니까 수학 같은 과목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체로 하는거고, 우리는 애초에 단체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단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게 결국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민주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대충 머리로 배우는 거고, **체육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사 김이해, 심층면담)

3)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

가) 적극성

비판적 체육교육에 대한 실천은 기존의 교육체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는 실천의 과정까지 필요하다. 채육교사는 비판적 체육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내재화하는 과정 이후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 의식 이런 것도 좀 심어주고 문제로 **비판적으로 문제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성? 이런 거를 민감성이랑 같이 키워줘야죠.**

(교사 권시민, 심층면담)

체육 교사들이 갖춰야 될 역량은.. 크게는 본인이 실천하는 교육이 아니면 작게는 **한 번의 수업이 가르치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학생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거나 또 오히려 성장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무섭거든요. 수업이 그 한 명의 **학생을 변화시키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학생이 만날 다양한 사람들까지 저는 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교사 김공감, 심층면담)

적극성에는 비단 개인이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타인,

혹은 다른 집단과 협업과 연대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적극성도 필요하다.

> 혼자 실행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같은 다른 체육교사가 동료 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에 체육교사라든지, 내가 두려움이 있고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걸 진짜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영향? 동료 체육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선뜻 우리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누가 같이 하자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잖아요**. 해보자 해보자,라는 용기가 그러면 이제 그런 대인관계 능력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인관계 역량이 잘 있을 때 조금은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더 커지지 않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
> (교사 배정의, 심층면담)

> 학교의 현장의 얘기들 목소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면,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약간 체육교사가 갖춰야 하는 자질이겠죠
>
>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나) 중립성

중립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 혹은 문화의 특성에 따라 보수적-진보적 수준이 다르게 고려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지나치게 진보적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체육교사가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Lynch 등(2021)이 체육교육에서의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교육학에 관련된 연구에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주제를 9가지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 9가지 주제를 우리 나라의 환경 속에서 이미 체육 수업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주제, 활용하고 싶지만 언급하기 곤란한 주제, 그리고 아직 우리의 인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를 구분하여 봄으로써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2> 에 나타난 주제들은 책에서 나타난 사회정의 지향 체육교육의 선정 주제이며, 광범위한 분야

그림 16.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정의 주제의 실천 구분

에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사회정의 지향 체육교육 주제를 사회적 필요성과 거부감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있다. 좌측에 있는 주제의 경우 체육교사 관련 주제를 가지고 교육할 필요성을 느끼며, 학생들의 반발 등에 대한 부담 없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며, 우측으로 갈수록 수업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진보적'인 주제로 나타났다. 건강과 비만(Healthism and fatism), 장애인 차별(Ableism and elitism), 인종차별(Racism) 문제의 경우 체육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을 느꼈으며, 실제로 수업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제였다. 성 불평등 문제(Genderism and sexism)의 경우 학생들에게 관련 주제로 수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수업에서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성별 간 갈등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여성 체육교사의 경우 주제로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 이슈(Heterosexism)과 계급주의(Classism), 그리고 종교 문제(Religionism)와 관련된 주제의 경우 차별과 불평등 문제가 자주 드러나기에 다루어질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사회에서의 부정적 시선과 반발에 의해 체육교사들이 언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계급주의(Linguicism)와 식민지(Colonialism)이슈의 경우, 단일 언어를 사용국이며 침략에 의한 '원주민'과 '이주자'에 대한 구분이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제로 다루어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체육교사는 체육 수업에서 특정 주제를 활용할 때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업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제를 선정하여 수업에 활용할 때에는 과도하게 한 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형태의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 비판적 체육교육은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판단은 학생들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특정한 개인의 가치관을 담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비판적 체육교육의 본질적인 의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

> 교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변화를 좀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10이라는 능력을 하게 하고 싶으면 사실 10을 주장하지 않고 15해라 20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 비판 같은 거를 15 20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나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있지 않을까..
>
> (교사 이인성, 심층면담)

사회정의 지향 체육교육의 활용 주제	번역 및 요약 설명	
Healthism and fatism	건강과 비만	건강함의 이상적 기준 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Ableism and elitism	장애인 차별	장애인 차별 문제
Genderism and sexism	성 불평등 문제	성별의 계급화
Heterosexism	동성애 이슈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적 시선 문제
Racism	인종차별	인종 간의 불평등 문제
Classism	계급주의	경제적, 사회적 계층 간 불평등 문제
Linguicism	언어 계급주의	언어 사용 집단 간의 불평등 문제
Religionism	종교문제	종교에 의한 차별과 편견 문제
Colonialism	식민지 문제	원주민의 식민지 역사에 의한 소외

표 12. 사회 정의 지향 체육교육의 활용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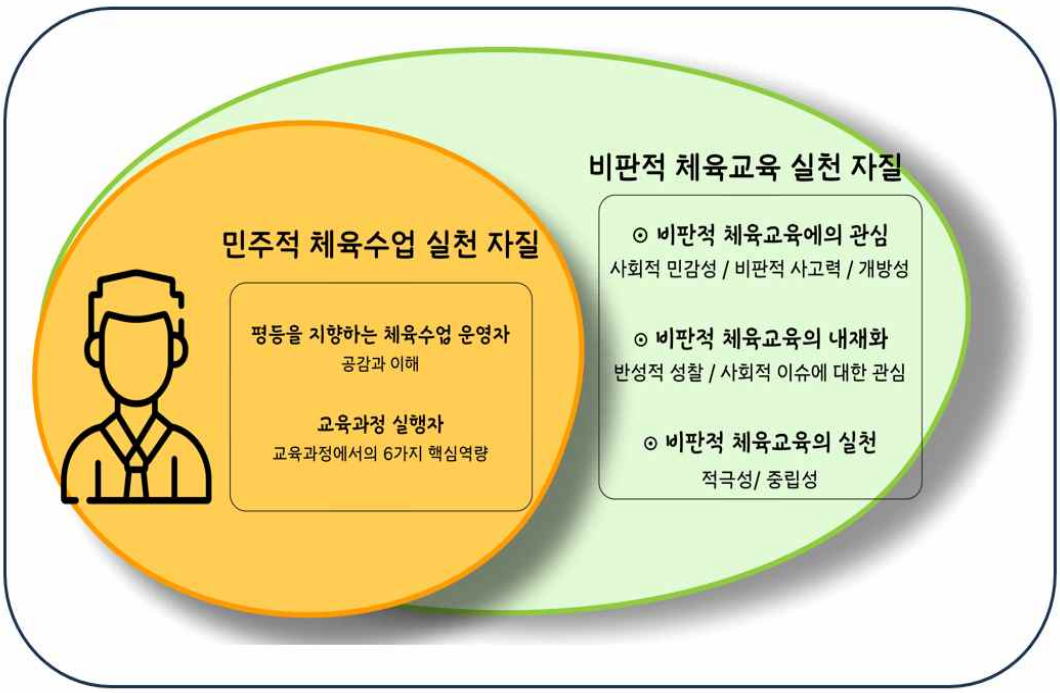


그림 17. 민주적 체육수업과 비판적 체육교육 실천 자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도까지만 끌어주고 생각해보게 하는 문제 의식을 아이들도 가지게 해보는 정도의 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체육 수업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안 생기지 않을까.. 교사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해버리면 요새 애들 다 다들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실천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 같아요.

(교사 김민주, 심층면담)

다.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 인성

민주적인 체육수업의 운영과 비판적 체육교육 실천에는 민감성, 날카로운 문제의식, 비판적 사고와 논리 등 이성적인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필요한 교육이기에 따듯함과 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Gerdin Goran 등(2021)은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학의 교육 관행을 정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실천 방식을 돌봄의 교육법

(pedagogies of care), 이해의 교육법(pedagogies of understanding), 포용의 교육법(pedagogies of inclusion), 관계 수립의 교육법(pedagogies that build relationships), 상호 존중 지향 교육법(pedagogies that foster reciprocal respect)등으로 꼽았다. 이는 사회 정의를 지향함에 있어서 예리함과 적극성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교육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교육을 실천해야만 그러한 모습을 배우는 학생들도 미래에 타인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체육 선생님들이 좀 더 그런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더 친근한 마음을? 더 유대감 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계속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교과가 가진 관계 지향적인, 그 다음에 좀 함께하는 더불어 하는 그런 성향들, 좀 적극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친구들을 좀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 넣어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
> (교사 황존중, 심층면담)

> 선생님이 수업시간 안에서 어떤 언어로,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비춰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 선생님의 그 교과 선생님의 제일로 중요한 덕목이고 자질**인 것 같아.
>
> (교사 한우리, 심층면담)

체육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기대받은 이후로부터 체육교사들에게 훌륭한 인성이 중요한 자질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체육교사의 수업 전문성 만큼이나 인성함양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유경민, 2015; 이기대, 2017; 정현수, 2019; 최규훈, 2017;).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은 한 개인이 훌륭한 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요소였다면, 비판적 체육교육은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공감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에 대한 훌륭한 인성은 더욱 필수적인 자질이 될 것이다.

4.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등 학교체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체육교사의 대처방안을 탐색함과 동시에,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의 자질을 확인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비민주적 상황의 원인과 대응

학교 체육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폭력, 갈등, 소외와 같은 세부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관심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이규일, 2011; 조성식 등, 2014; 정호웅 등, 2014; 김진필, 2016; 김윤영, 박종률, 2021; 김윤희, 2021; 박효빈, 2022; Martos-Garcia et al; 2023).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민주성 함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광의적으로 바라본 '민주성'의 개념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체육교육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한 대증적인 대응 방식들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를 대신하여 많은 연구들은 부정적 상황을 다룸에 있어서 체육교과에서 주로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인 인성교육의 개념으로 대체하여 논의해왔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인성교육은 하달식으로 전달되는 규범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사회 문제의 해법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오염되어 있다(김동식 등,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육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을 대신하여 체육수업 현장에서의 비민주적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찾아봄으로써 체육교육을 통한 민주성을 함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민주적인 경험 통한 지속적인 노력들은 학교 공간, 그리고 체육수업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김동식 등, 2018).

본 연구를 통해 학교체육에서는 체육교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로 인해 불평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사들은 체육수업 현장에서 체육교과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수업에서의 능력주의와 성별 차이에 의한 불평등은 체육수업에서 나타나는 소외와 불평등,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체육교사들은 체육수업에서의 비민주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민주성 함양을 고민하였다. 체육교육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 요인과 교사 요인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선행 경험의 차이와 학생들 간의 권력관계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자세로 불평등과 소외가 고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체육교사들은 기존의 체육수업 환경에 익숙해져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었으며, 동시에 수업에서의 기능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관습을 넘어서는 체육수업의 실천을 위해 수업 내용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나 양성 평등과 같은 주제를 수업에 녹여내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체육 수업의 운영 과정에서는 체육교사 자신 보다는 학생을 중심에 두는 학습자 중심 수업 전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

최근 체육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이 중요한 이슈였지만, 시대의 변화로 인해 그러한 교육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김방출 등(2019)이 제안하는 연구에서도 인성 교육의 방향으로 시민성 접근을 함께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체육교과의 교육적 가치의 발현이 인성교육과 시민성 교육 두 영역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기를 제안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주적인 체육수업의 실현은 기존에 행해지는 체육수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은 분명 학생들의 민주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업 이외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영역에 교육의 효과가 전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을 민주성을 함양하고 그것이 학생에게 하나의 성향으로 자리 잡아 영속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비판적 페다고지의 현장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타 교과에서는 비판적 페다고지의 실천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연구들이 다수 실시 되었으며(강대현, 2007; 권오남 등, 2013; 추정훈, 2002; 최성이 등, 2022), 구체적인 실천 수업 사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남영림, 2015). 체육 교과 역시 미래 교육의 변화 지향점을 비판적 교육에서 찾는 연구들이 있었지만, 수업의 중요한 운영 주체인 체육교사가 가져야하는 자질에 대한 언급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정현우(2015)는 체육교과에서의 비판적 가치에 주목하고 예비체육교사 교육 단계에서의 비판적 전문성 함양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실제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현황과 적용 방안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과가 비판적 페다고지가 가진 본질적 가치인 평등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 속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과 갈등의 이슈를 활용하여 수업을 실천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동시에 이와 관련된 주제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과거에는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양성평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같은 내용을 활용하여 사회 속에서 만연해 있는 약자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주제들이 향후 더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많은 교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 방식으로 여겨져야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체육교사들이 낯선 교육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자질에는 비판적 사고력, 사회적 민감성, 그리고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같은 전문성도 요구되었지만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역량, 개방성 같은 타인과의 교류 능력,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 역량도 함께 요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정준 등(2017)이 미래 학교체육이 주변세계를 감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문적 접근을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며, Lynch 등(2021)이 연구에서 설명하는 바와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이 기존의 체육교육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천을 촉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체육교과가 가지고 있는 사회 개혁에 대한 수월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 속에서 개인의 여가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스포츠라는 영역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거부감 없이 다룰 수 있는데,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교과가 개인의 기능적 우월성이 보다는 사회적 협력과 통합을 강조하는 교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된다면 교과가 가지고 있는 사회 변혁적 가치는 훨씬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며, 비판적 교육 실천에 있어서 체육교과의 지위는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비민주적 상황의
발생 요인
교사 요인
학생요인
환경요인
학교체육에서의
비민주적 상황
전통적인 체육교육
이미지로 인한 교과소외
기능중심 체육교육
체육교과의 낮은 지위
전통적 체육교사상
성별에 의한 불평등과 차별
전통적인 성관념
성별에 의한 운동 기능 차이
역차별에 대한 반발
능력주의 체육수업
내에서의 불평등과 갈등
기능 차이에 의한
불평등과 갈등
체육수업에서의 능력주의
비민주적 상황에의
대응
수업공간 민주화를 위한 노력
소외를 줄이는 체육수업
기능 차이를 줄이는 체육수업
비경쟁적 수업 분위기 조성
체육교육의 민주성 강화
수업 내용의 다양화
학습자 중심 수업운영
양성평등 교육의 실천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다루는 체육수업
민주적 체육교육
실천 자질
민주적 체육수업 실천 자질
교육과정 실행자
교육과정에서의 6가지 핵심역량
평등을 지향하는 체육수업 운영자
공감과 이해
비판적 체육교육 실천 자질
비판적 체육교육에의 관심
사회적 민감성 / 비판적 사고력 / 개방성
비판적 체육교육의 내재화
반성적 성찰 /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
적극성/ 중립성

[그림 18] 종합정리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차 다원화 되어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형태의 불평등과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들이 지속적인 문제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중요한 키워드로 정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주성을 함양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체육교육 역시 기존에 교과가 가지고 있는 폐쇄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체육교사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미의 이해와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실천을 위해 기존의 체육교육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모습을 이해하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불평등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을 제안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체육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중등체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교육 상황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체육에서 민주적인 체육수업과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기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비판적 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한 중등체육교사의 자질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통해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체육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상황은 체육교과가 가진 이미지로 인한 교과 소외 현상과 기능 중심의 능력주의, 그리고 성별에 의한 불평등이 주된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체육교사들은 이러한 비민주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업 공간의 민주화를 지향하였으며, 과거의 관습을 넘어서는 체육교육의 실천을 통해 체육교육 분

야의 민주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사들은 이러한 대응을 통해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운동 기능 발달 중심의 체육수업 이미지를 탈피하여 사회적 이슈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민주성을 함양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체육에서 민주적인 체육수업과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은 학생요인, 교사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학생 요인에는 학생들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행 경험의 차이, 그리고 학생들 간의 권력 관계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비민주적 상황은 학생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예민함으로 인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요인에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관념으로 인해 민주적 체육수업의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 전문성의 부족이 있었다. 체육교사들의 낮은 민감성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체육수업이 가지고 있는 비민주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기존의 체육수업에 고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비판적 체육수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요인으로는 체육교과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사회적 지위로 인한 체육교과가 가지는 요인,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문화와 갈등, 혐오 사회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는 민주적 체육수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민주적인 체육수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평등을 지향하는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필요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6가지 핵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은 사회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하였으며,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접근하면서 비판적 체육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성찰 능력이 필요했다.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과 적용 과정에서는 체육교과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체육수업에 적용하는 적극성이 필요했으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과도하게 급진적인 주제 선정을 지양하며 교사 개인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주입하지 않는 중립성이 교사의 중요한 자질로 나타났다.

2. 제언

가. 현장 실천

첫째, 체육교사가 향후 민주적인 체육수업의 운영을 위해 기존에 행해진 체육수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체육수업의 고착화로 인해 많은 체육교사들은 기존의 체육수업에서의 비민주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체육수업의 변화를 더욱 더디게 만들고 있다. 체육교사들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체육수업의 비민주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는 민주적 체육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 반성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육교사들에게 비판적 페다고지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학교체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많은 체육교사들이 비판적 교육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직무 연수 등의 형태를 통한 비판적 체육교육의 교육과 전수를 꼽았다. 이러한 일회성의 교육도 좋지만, 예비체육교사 교육이나 직무 연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비판적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현재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며,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비판적 페다고지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페다고지는 기존의 사회 담론과 편견에 의해 쉽게 다루어지

기 어려운 주제가 대부분이기에 많은 체육교사들은 비판적 페다고지에 대한 실천에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외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비판적 페다고지의 주제를 정리하였으나, 더 많은 표본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환경에서 다루어 질 수 있고, 다루어져야만 하는 주제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향후 학교 현장에서 비판적 페다고지를 활용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후속 연구

첫째, 후속 연구를 통하여 학교체육의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체육교사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 페다고지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시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체육수업의 민주성과 비판적 체육교육의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일부 개입되었다. 이는 체육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과 '비판적 체육교육'의 개념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관련 개념을 전달하는 과정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연구 절차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상호 이해 정도에 차이가 드러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학교체육의 민주성과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 이전에 체육교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 방향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체육교사 면담 이외에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등의 자료 수집 방식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비판적 체육교육의 실천 방식과 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판적 체육교육은 기존에 행해지던 체육수업의 목적과 상이한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된 바, 교육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적인 체육수업과 비판적 체육교육은 학생들 간, 혹은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수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에, 수업 안에서 발생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요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비판적 페다고지를 적용한 체육수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많은 체육교사들은 비판적 체육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업 사례가 부족하기에 많은 교사들이 수업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다양한 연수나 수업 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 방식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 받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민감성과 사회 정의를 위한 적극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비판적 체육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비판적 체육교육의 적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체육교육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본 연구를 통해 논의 되었다.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기능적 우월함의 발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재의 사회적 흐름에 반하는 형태이다. 이를 대신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현재 사회에서 비판적 교육을 통한 약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덕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상호 작용의 축소판으로 여겨지는 체육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대현 (2007). 사회과교육 목표로서의 시민 개념에 대한 분석. 사회과교육, 46(1), 83-105.

강서희 (2018). 혐오 정서에 대한 서사교육의 방향 탐색. 새국어교육, 124, 181.

강종구 (2009). 사회구성주의 이론의 소개 및 사회구성주의 관점을 통한 장애의 고찰. 시각장애연구, 33, 125-142.

강학주 (1994). 남녀공학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 (1992).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교육부 (1997).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1]

교육부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교육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권민정 (2012)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역할 및 향후 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4), 45-65

권민혁 (2003a). 비조직적 스포츠 참가에서의 갈등상황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6(1), 125-141.

권민혁 (2003b). 또래의 신체활동 게임에서의 권력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권민혁 (2006).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의 또래 갈등 분석. 체육과학연구, 17(4), 113-124.

권민혁 (2009). 다문화 사회에서의 초등체육교육의 방향 및 과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4(3), 165-174.

권오남, 박정숙, 오국환 (2013). 비판적 수학교육에 대한 문헌 분석 연구. A-수학교육, 52(3), 319.

김경수, 이종영 (2018). 올림피즘 확산을 위한 청소년의 올림픽가치 교육프로그램(OVEP) 참여 효과 분석. 스포츠사이언스, 36(1), 1.

김기운 (2020). 스포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 바우만(Z. Bauman)의 시각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 33권 제 3호, pp.60-76

김동식, 장용규 (2018). 체육수업에서 시민성 교육의 실천 방향 탐색 : 비판적 페다고지 관점에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Vol. 25, No. 4, pp. 41-63

김미영 (2022). “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 능력 · 공과 · 필요의 복합평등론”. 경제와 사회 , 84권.

김방출, 서재철 (2019). 체육 교과 인성 교육의 시민성 접근 제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6(1), 55-75.

김병연 (2022). 혐오 문제의 도덕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74), 1-20.

김소영 (2011). 신자유주의적 개혁에서의 공교육 체제와 정치적 불평등. 현대정치연구, 4(2), 139-162.

김영재, 차은주 (2014). 체육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3(3), 313-327.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3판). 서울 : 아카데미프레스.

김우미 (2009). 시민성의 전제로서 의사소통 합리성. 시민교육연구, 41(2), 47-71.

김우현 (2011). 하나로 수업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 기피 학생의 인식변화.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김윤영, 박종률 (2021).또래관계 소외 학생들의 체육수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Max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8(1),103-134.

김윤희 (2007). 체육수업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학생의 인식과 체험.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63-80.

김윤희(2009) 체육 수업 소외 극복을 위한 체육 수업 전략 개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6(1), 41-56.

김준성, 한만석, 류태호 (2014). 체육의 부정적 인식 형성에 관한 담론 분석. 한국체육 학회지, 53(6), 63-78.

김진필, 박대원, & 박종률 (2016). 체육 수업 소외 현상 개선에 대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173-202.

김진훈, 이호근, & 신현규 (2008). 스포츠의 양면성 - 평등과 불평등. 스포츠인류학연구, 3(2), 83-96.

나병현 (2003). 교육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아시아교육연구 4권 2호, 293-310

남영림 (2015). 사회정의를 위한 비판적 다문화 미술교육 탐색. 미술과 교육 16(2), 29-50.

마코비츠, 다니엘 (2020) 엘리트 세습 : 중산층 해체와 엘리트 파멸을 가속하는 능력 위주 사회의 함정. 서울: 세종서적.

박권일 (2020). 능력주의와 불평등 :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 박권일 [외] 글.

박선영, 김응준 (2016).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 시민성 함양 방안 모색. 청소년학연구, 23(1), 153-179

박소진 (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경제와사회』, 제84호, pp. 12-40.

박승억 (2019). 다양성 사회의 갈등 양상에 관한 현상학적 성찰. 철학사상문화, 31, 1-22

박정준 (2012). 스포츠맨십의 발달 수준과 영역에 관한 경험적 탐색: 중학교 체육수업을 중심으로교육과정연구, 30(3), 221-246

박정준 (2013). 인성 함양을 위한 스포츠 경쟁 메커니즘의 반성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31(3), 281-297

박정준, 유창완 (2017). 미래사회 학교교육의 변화에 따른 체육교육의 방향 고찰.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4(2), 1-17.

박종률 (2003). 경쟁 스포츠 참여시 고등학생의 스포츠맨십 실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1), 77-93

박주식, 이창봉 (2005). 문화제국주의와 비판적 영어교육의 가능성. 영미문학연구, 9, 73-102.

박주양, 김현우, 선혁규 (2019).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이 스포츠맨십 및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17(4), 169-180

박태인, 조정형, 차은주, 김영재 (2017). 다층 모형을 활용한 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와 인성관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56. 5 : 105.

박효민 (2022). 능력주의의 한계와 선택가능한 불평등. 현상과인식, 46(1), pp. 97-124.

배미해 (2000).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본 혼성체육수업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배종희, 이안수 (2012). 초등체육수업의 갈등 해결을 위한 TSP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한국체육학회지, 51(3), 143-156.

서경혜 (2005). 반성적 교사교육의 허(虛)와 실(實). 한국교원교육연구, 22(3), 307-332.

서광호 (2010). 초등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와 인성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송지원 (2018). 유럽 전역을 강타한 극우 바람을 피하지 못한 스웨덴 2018년 총선. 국제노동브리프, 16(9), 61-69.

심광현 (2010). 제3세대 인지과학과 '신체화된 마음의 정치학'. 문화과학, 64, 201-247.

심광현 (2015). 욕망의 생태학과 주체화 양식 구성을 위한 시론. 현대사상(15), 89-170.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경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2), 161-191.

양윤경, 임태희 (2019). 스포츠 폭력으로 발생한 선수 간 갈등 해소 프로그램 적용 사례: 해결중심 상담 기반 자기주장훈련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30(2), 423-440.

오승현 (2018). 체육교육의 정당화론: '감정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육교육이 요청되는 이유, 체육과학연구, 29(3), 566-590.

오승현 (2021). 체육수업에서 감정교육의 도덕적 원리와 의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8(4), 81-105.

원영신 (1993). 어린이들의스포츠 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 14-26.

유경민 (2015).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양상 및 개선 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민재, 임정재 (2022). 한국사회의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연령대별·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2(1), 40-80.

윤정노, 안양옥 (2005).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의 학생간 갈등 상황 및 해결 전략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1(1), 155-170.

이규일 (2011).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체육수업의 불평등 현상 탐구. 한국체육학회지, 50(2), 165-177.

이근모 (2010). 갈등이론과 스포츠.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36.

이기대 (2019). 체육교사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르치며 배우는가? : 중등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인식, 실행 및 학습 방식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록 (2022). 불평등 속의 노동자들, 능력주의적 열망과 좌절의 웅얼거림 - 1970~1980년대 생산직 노동자들의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143-189.

이영국, 서경원, 강형원 (2022). 체육전담교사와 학생 간 갈등의 유형 및 배경 드러내기.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8(2), 101-116.

이윤미 (2015). 교육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교육비평, (35), 151-179.

이정택, 장용규 (2017). 덕에 기반한 학교 스포츠윤리 교육의 의미와 원리.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3(2), 15-34.

이제승, 손재현 (2019). 예비체육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이 다문화교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 17(4), 1255-1265.

이창섭, 여정권, 윤대현, & 황명구 (2010). 혼성체육수업의 남학생 역차별이 체육교사에 대한 동일시, 체육수업의 재미,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1), 157-173.

이현 (2021).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과 능력주의 그리고 불평등 문제. 교육비평, (48), 298-337.

장경환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경쟁 영역의 지도 방향 고찰.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5(1), 1-18

장수빈, 한동숙 (2018). 융·복합 시대의 공동체와 민주시민 교육,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1-85.

장용규, 김동식 (2016). 비판적 페다고지에 근거한 초등체육 연구 가능성 탐색. 한국초등교육, 27(4), 433-456

장은주 (2017).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서울 : 피어나.

장정민, 김진희 (2013). 변형 스포츠교육모형 수업 사례. 코칭능력개발지, 15(4), 113-121.

정병기 (2017). 독일 극우 정당의 발흥과 2017년 연방의회 선거, 의정연구, 52, 227

정소민, 김영순 (2015). 시민교육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프락시스 개념 탐구. 시민교육연구, 47(4), 241-271.

정유성 (2011). 다양성의 시대, 다채로운 교육 -비판적 다문화 교육담론을 찾아서, 사회과학연구, 19(2), 234-262.

정재원, 이은아 (2017). '혐오'에서 '공존'으로: 교양교육의 역할과 여성주의 페다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229-251.

정재원 (2019). 혐오사회와 공존의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 99-118.

정철희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는 공존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듀이 '자연과의 상호의존성' 개념의 명확화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3(3), 127-148.

정현수 (2019).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체육교사의 인성함양.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우 (2014). 학교체육정책 분석과 이해를 위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4), 87-108.

정현우 (2015).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비판적 전문성 함양의 의미와 방법. 체육과학연구, 26(4), 935-950.

정호웅, 정현철, 김대진 (2014). 중학교 혼성체육수업에서 나타나는 양성불평등 사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539-558.

조성식, 김효진, 맹이섭 (2014). 여고생의 체육수업 참여 갈등요인과 여성체육교사에 대한 역할기대. 한국체육학회지, 53(3), 127-137.

조용환 (2011). 질적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조욱상 (2020). 유・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이 인성 및 인지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스포츠사이언스, 37(2), 185-194.

조태구 (2020).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 -'올드 노멀(old normal)'을 꿈꾸며-인문학연구, 60, 7-36

최규훈 (2017). 체육교사는 자산의 인성을 어떻게 계발시켜나가는가?.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이, 이종희 (2017). 민주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사회문제 중심 초등수학영재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기반으로.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21(3), 415-441.

최순정 (2020). 학생 인성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중등체육수업의 특징과 체육교사의 전인적 자질.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의창 (1992). 인문· 사회과학편: 체육 교과교육 모형의 잠재적 이데올로기와 비판적 체육교육. 한국체육학회지, 31(1), 57-63.

최의창 (1996), 체육교육과정탐구, 태근문화사.

최의창 (2001).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 대학에서의 체육지도를 위한 한 가지 접근. 한국스포츠교육학 회지, 8(2), 45-644

최의창 (2004a). 중등학교 현직체육교사교육의 비판적 검토와 반성적 모형의 개발, 체육과학연구, 15(3), 81-101.

최의창 (2004b). 가장 바람직한 체육교사는 누구인가?:체육교사교육 논의의 최근 동향과 과제,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1), 25-49.

최의창 (2009). 전인지향적 채육교육론으로서의 인문적 체육교육: 탐색적 분석한국체육학회지, 48(6), 243.

최의창 (2014). 기법과 심법: 교수방법의 잃어버린 차원을 찾아서. 교육철학연구, 36(3), 127.

최의창 (2018). 스포츠교육에서의 철학적 탐구: 전통, 현황 그리고 전망,체육과학연구,29(3), 391-415.

최의창 (2021). 메슬러 트랩 벗어나기: 새로운 스포츠교육론들의 탐색과 그 지형도 그리기.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8(1), 1-27.

최정호 (2018).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경험하는 공감의 교육적 의미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3(3), 19-36.

추정훈 (2002). 사회과교육 목표로서의 민주시민성. 사회과교육, 41(4), 5-22.

하윤수 (2007). 비판적 교수법을 통한 새로운 민주시민교육론의 수업구성. 사회과교육연구, 14(4), 139-157.

하지원 (2003). 아동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희문, 김상훈, & 노재헌 (2018). 여고생의 체육수업 내적동기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및 학교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89-100.

한국리서치 (2018). 여론속의 여론: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리서치).

한태룡 (1998).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함은주 (2019). 사람 중심의 스포츠: 포용국가와 스포츠 인권, 스포츠과학, 146, 16-21

허성욱 (2017).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과 통합.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학술대회지, 63-74.

허창혁 (2002).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 소외의 경향과 원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석현 (2022). 골볼 체험 교육을 통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중학교 통합교육 실천 사례. 우리체육,(27),26-41.

홍재승, 임현주 (2015).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유형. 체육과학연구, 26(3), 626-633.

황경식 (2010b). 도덕행위의 동기화와 수양론의 문제 -의무와 덕이 상보하는 통합윤리의 모색. 철학, 102, 55-80.

황규호 외 (2001). '교실붕괴'라 불리는 교사-학생 갈등 현상의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 한국교육 제28권 제2호.

Apple, M.(1979). Ideology and curriculum, Routledge&Kegan Paul

Apple, M. W. (1992). Do the standards go far enough? power, policy, and practice in mathematics education,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23(5), 412-431.

Apple, 강희룡, 김선우, 박원순, 이형빈 (2014).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 또 다른 교육 더 나은 세상, 살림터.

Arora, K., & Wolbring, G. (2022). Kinesiology, Physical Activity,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through an Equity/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EDI) Lens: A Scoping Review. Sports (Basel), 10(4), 55.

Bailey R., & Kirk, D. (2009). The Routledge Physical Education Reader. Oxon: Routledge.

Coakley, S. (2013). God, sexuality, and the se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eswell,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 권지성 (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 John W. Creswell 저 ; 조흥식 [외]공역.

Martos-Garcia, D., Lozano-Sufrategui, L., & Drew, K. J. (2023). 'Once upon a time'. Explor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for inclusive PE through creative writing: A tale of exclusion, integration and inclus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Davis, M. (2019). Networked hatred: New technology and the rise of the right. In A. Hay (Ed.), Griffith review 64: The new disruptions (pp. 83–95). Queensland: Griffith University

Duffy, B., Murkin, G., Skinner, G., Benson, R., Gottfried, G., Hesketh, R., & Page,

B. (2021). 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

Ennis, C. D., Cothran, D.J., Davidson, K.S., Loftus, S.J., Owens, L., Swanson, L., & Hopsicker, P. (1997). Implementing curriculum within a context offear and disengagement. Journal of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7,58-72.

Ennis, C. D., Catherine D., Melinda A. Solmon, Barbara Satina, Susan J. Loftus, James Mensch, and M. Terri McCauley.(1999) "Creating a Sense of Family in Urban Schools Using the "Sport for Peace" Curriculum."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0.3: 273-85.

Fay, B.(1987). Critical social science., Ithaca, NY:Cornell University Press.

Felshin, J.(1972). More than movement: An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 Philadelphia: Lea&Febiger

Freire, P.(1972). Pedagogy of the oppressed. , Harmondsworth: Peguin Books

Gerdin, G., Smith, W., Philpot, R., Schenker, K., Moen, K. M., Linnér, S., Westlie, K.& Larsson, L. (2021). Social Justice Pedagogies in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Routledge.

Gerstein, L. H., Blom, L. C., Banerjee, A., Farello, A., & Crabb, L. (2021). Sport for social change: An action-oriented peace education curriculum.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27(2), 160.

Giroux, H. (1983), Critical Theory and Educational Practice., Theory and Practice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iroux, H. A. (1988). 이경숙 역(2001). 『교사는 지성인이다』. 서울: 아침이슬.

Giroux, H. (2009), Critical theory and educational practice. In A. Darder, M. Baltodano, & R. Torres (Eds.), , The critical pedagogy Reader (pp. 27–52). New York, NY: Routledge.

Gore, J. (1990). Pedagogy as text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Beyond the preferred reading.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nd culture: Critical issues in the contemporary crisis, 101-138.

Gore, J. (1993).The struggle for pedagogies: Critical and feminist discourses as regimes of truth. New York: Routledge.

Hellison, D. (1985). Goals and Strategies for Teaching Physical Education. Champaign, IL: Human Kinetics

Johnson, D. W., & Johnson, R. T. (1995). Reducing school violence through conflict resolution. ASCD.

Kozol, J. (2005). The shame of the nation: the restoration of aparthei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Crown.

Lamb, C., Oliver, K., & Kirk, D. (2018), 'Go for it Girl' adolescent girls' responses to the implementation of an activist approach in a core physical education programme, Sport, Education and Society, 23(8), 799-811.

Luguetti, C., Oliver, K., Kirk, D., & Dantas, L.(2018), Exploring an activist approach of working with boys from socially vulnerable backgrounds in a sport context, Sport, Education and Society, 22(4), 493-510.

Lynch, S., Walton-Fisette, J. L., & Luguetti, C. (2021). Pedagogies of social justice in physical education and youth sport. Routledge.

Mathison, S. (1988).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17(2), 13-17.

McNamee, Stephen, MeritocarcyMyth(MD: Rowman & Littlefield, 2018).

Miller-Lane, J., Howard, T., & Halagao, P. (2007). Civic Multicultural Competence: Searching for Common Ground in Democratic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5(4), 551-573.

Mills, C. W. (1959).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Penguin Books.

Morrow, R. A., & Brown, D. D. (1994). Critical theory and methodology. Sage.

OECD. (2018). Preparing our youth for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 The OECD PISA global competence framework.

Oliver, K., & Kirk, D.(2015), Girl, gender and physical education. An activist approach. , London: Routledge.

Parker, W. C. (2003). Teaching democracy: Unity and diversity in public life. Teachers College Press.

Scanlon, D., Baker, K., & Tannehill, D. (2022), Developing a socially-just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TPSR) approach: a pedagogy for social justice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13.

Siedentop, D. (1994). Sporteducation. Champaign, IL: Human Kinetics.

Silberman, M.(1971) The Experience of school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Stoecker, R. (1991). Evaluating and rethinking the case study. The sociological review, 39(1), 88-112.

Strauss, A. L.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zuki, K., Asaga, R., Sourander, A., Hoven, C., & Mandell, D. (2011). Cyberbullying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4(1), 11–29.

Tinning, R.(2002), Toward a "Modest Pedagogy": Reflections on the Problematics of Critical Pedagogy. , Quest (National Association for Kinesiology in Higher Education), 54(3), 224-240.

Tinning, R,(2020). Troubled thoughts on critical pedagogy for PETE. , Sport, Education and Society, 25(9), 978-989.

Tomlinson, J. (2007). The culture of speed: The coming of immediacy. Sage.

Tony Ruth's Equity Series (2019)

Tracy, S. J. (2010). Qualitative quality: Eight "big-tent" criteria for excellent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6(10), 837-851.

Van Manen, M. (1977). Linking ways of knowing with ways of being practical. Curriculum Inquiry, 6(3), 205-228.

Westheimer, J. , Kahne, J.(2004). What kind of citizen. ,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2), 237-270.

White, C. S.(1997),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Internet: Prospects for civic deliberation in the information age. , The Social Studies, 88(1), 23-28.

Williams, J. F.(1930),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 5-8

Wolcott, H. F.(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age.

Yin, 서아영., 신경식., 서아영, & 신경식. (2005). 사례연구방법 / Robert K. Yin 지음 ; 서아영, 신경식 [공]옮김.

Abstract

How Critical Physical Education can be Practiced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 Exploring social justice and democratic pedagogy practices in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Yoonseob Ch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inequality and undemocratic situations in school settings in relation to the power structure of society, and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abilities and pedagogical measures necessary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practice critical pedagogy, one of the educational theories that seeks to address these issues through critical perspect. This study is organized around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does undemocratic education look like in second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Second, what are the causes of the phenomenon of undemocratic education, and how are these problematic situations being

addressed? Third, What competencies are needed for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practice critical education, and how should these qualities be developed?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tilizing the stories and voices of participants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ir perceptions of improving social issues through education. Purposive sampling and snowball sampling methods were utilized to select participants. Participants were selected a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ith a commitment to teaching social justice and addressing inequality and conflict, and a total of 14 participant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and local document analysis, and the Nvivo program was used to categorize the collected data.

Th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undemocratic situation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was identified as a phenomenon of subject marginalization due to the image of the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function-oriented meritocracy, and inequality based on gender. In order to prevent and improve these undemocratic situation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imed to democratize the classroom space and strove to foster democracy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through the practice of physical education that goes beyond past conventions. Through these response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ought to improve the undemocratic situation in the classroom and utilized social issues to foster democracy in students. Second, the factors that hindered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and critical physical education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were categorized into student factors, teacher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Student factors included differences in prior experiences due to socio-economic differences among students, and inequalities due to power relations among students, and this undemocratic situation is not easily improved due to students' passivity and sensitivity. Teacher factors included teachers' inability to recognize the need for democratic physical education practices due to their traditional ideas and lack of expertise in critical physical education practices. The low sensitiv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did not recognize the undemocratic nature of traditional physical education, which led them to stick to traditional physical education, and the lack of expertise in implementing critical physical education prevented them from implementing critical physical education. In terms of environmental factors, the status of physical education due to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the conservative culture, conflict, and hateful social atmosphere in Korean society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Third,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o practiced critical pedagogy were able to implement democratic physical education and had the expertise to practice critical physical education. In order to practice democratic physical education, they were found to be practicing equity-oriented physical education and to have the six core competencies identified in the curriculum as necessary to develop the qualities of democratic citizenship.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acticing critical physical education needed to have soci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skills, openness to approach various topics without rejection, and reflective skills to learn the value of critical physical education through continuous access to such topics. In the practice and application of critical physic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physical educ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alizing social justice and to be proactive in applying it to physical education lessons. In addition, neutrality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quality of teachers, who should consider the social climate, avoid choosing overly radical topics, and not impose their own opinions on students.

Suggestions for practice in the field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reflect critically on their existing practice in order to develop a democratic PE classroom in the future.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critical pedagogy and apply it to school physical educa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identify specific critical pedagogical topics that are currently required by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need to be addressed. In terms of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refine and confirm the perceptions of critical pedagog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o play a pivotal role in the manage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through further research. Second, in addition to interview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s, data collection methods such as participatory and non-participatory observation should be utilized to specifically confirm the practice and effectiveness of critical pedagogy in school setting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o develop physical education programs that apply critical pedagogy.

keywords : Critical Pedagogy, Social Justice, Second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20-23483**